

여의도동성당 50년사 1974-2024

전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동성당



여의도동성당 50년사

50-year History of Yeouidodong Catholic Church

1974



2024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동성당

| 일러두기 |

1. 여의도동성당 50년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본당사편찬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했다.
2. 50년사는 지역 안에서의 복음 전파와 신앙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신앙공동체가 어떠한 활동으로 오늘날의 성숙된 교회로 형성하였는지를 이해하며 향후 본당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됐다.
3. 수록 내용은 역대 주임신부 재임 기간의 사목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당시 사목 회장과 교우들의 증언을 참고했다.
4. 발간 기초 자료는 『여의도성당 20년사』, 『여의도성당 30년사』, 본당 주보, 사목계획서, 본당의 보관 자료, 역대 본당신부와 본당 교우들의 증언, 언론 보도 내용 등이다.
5. 수록 사진은 본당 보관용, 본당 홈페이지, 각 단체와 교우 제공, 언론 보도 및 정부 기록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출처는 참고문헌에 제시했다.
6. 단체사의 자료와 사진은 각 단체의 단체장 협조로 작성됐다.
7. 50년사의 모든 내용은 여의도동성당 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후 주임신부가 감수했다.
8. 맞춤법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 규정을 따랐으며, 용어와 세례명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천주교용어집』 개정정보판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과거 표기도 함께 사용했다.
9. 음악회와 일부 행사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했다.
10. 이 책의 본문은 ‘을유1945’, ‘마포곰빛나루’, ‘가톨릭’ 서체를 사용했다.

본당주보성인



파티마의 성모

희망의 순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자화자찬으로만 끝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년의 여의도동성당의 역사를 기억하여 ‘50년사’에 남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100년을 향한 이정표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자들이 어떻게 본당을 시작하고 성장시켰는지, 그동안 본당에 어떤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지, 반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난 50년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100년을 향한 새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의 해(2023. 9. 17 ~ 2024. 11. 24)를 지내면서 본당 교우들이 선정한 50주년 주제성구인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감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50주년을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것은 ‘희년’의 정신대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교우들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생명력인 ‘친교와 선교’였습니다. 또한, 떠들썩한 집안 잔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가난한 이웃들과의 나눔을 위해 페루 공소지원과 카메룬 바피야교구 김안드레아 사목센터 지원을 한 것

도 의미 있는 5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현 성당을 건축하면서 스테인드글라스 계획을 세웠지만 건축비 부족으로 나중에 설치하자고 미뤄왔던 일인데, 마침 스테인드글라스 작가와 연락이 되어 40년 전에 계획한 도안을 그대로 설치한 일도 50주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빛’이었습니다.

50주년 기념사업을 모두 마치고 나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25년 희년을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좀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순례’인 것 같습니다. 50주년을 마친 직후에 다시 희년을 지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여의도동성당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 힘차게 써 내려갑시다.

지난 50년의 여의도동성당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성직자, 수도자, 사목위원, 봉사자와 본당 교우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50주년 기념사업의 마지막 작업으로 남아있었던 ‘50년사’를 잘 정리해 주신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의 여정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도 새로운 헌신과 열정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희망의 순례가 되길 바랍니다.

여의도동성당 주임신부 |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축사



은총의 50주년



여의도동성당 본당 설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의도동성당을 생각하면 그 시작과 성장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대 여의도의 시작과 함께한 여의도동성당은 평신도 전래의 자발적 교회의 모습처럼 몇몇 교우들이 모여 인근의 당산동성당 김대성 신부님을 초대해서 10평 정도의 성모병원 진료소 마룻바닥에서 1971년 12월 19일 감격의 첫미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에 신자들이 꾸준히 늘어나 1973년에 영등포본당 여의도공소로 인가를 받게 되어 본당승격으로의 발돋움을 힘차게 시작한 지 1년 만에 1974년 9월 17일에 서울교구 82번째 본당으로 승격과 함께 최용록 신부님이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 성전이 비좁아 성전 재건축을 모색하면서 지금의 성당터인 유치원부지를 어렵게 마련하고 김택암 신부님이 1984년에 성당을 다시 신축할 때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성당이 들어서게 되었고, 300여 명의 작은 겨자씨가 지금은 7천 명의 큰 나무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은총의 50주년, '희년'(레위 25,8-13:루카 4,16-18)의 정신은 '하느님께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정신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선교-참여의 정신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하는 교회상을 지향하고 있는데, 회년과 시노드의 근본은 하느님께 되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파견되는 복음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여의도동 본당 교우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날로 세속화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하느님께로 ‘리셋’시키는 자기 봉헌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의도는 1984년에 103위 성인 시성식이 열렸던 거룩한 장소이고, 1989년에는 제44차 성체대회가 요한바오로 2세 전임 교황의 주례로 열려 서울대교구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못자리가 되었던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당 설립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여의도동성당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한 힘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터전 위에 세워진 여의도동성당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바랍니다. 머릿돌에 새겨진 ‘성전을 지어 하느님을 빛내라’(2사무 7,13)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시 100주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위해 본당주보이신 파티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추기경 | 염수정 안드레아

축사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는 여의도동성당 모든 교우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의도는 상전벽해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금융, 상업 중심지로서 빛나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월에 여의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입주한 몇몇 교우들이 모여 당산동성당 김대성 신부에게 미사를 부탁해 1971년 12월 19일, 성모병원 진료소 10평 정도의 마루 바닥에서 첫미사를 드린 것이 여의도동성당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한국 교회의 첫 시작이었던 평신도 중심의 교회 탄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300여 명의 신자로 출발한 본당이 지금의 교세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 여의도동성당을 거쳐 가신 주임신부님들, 보좌신부님들, 수도자들, 그리고 사목위원들과 본당 교우들의 땀과 희생과 기도가 한 켠 한 켠 쌓여서 오늘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모두의 노력과 함께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여의도동 본당을 거쳐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열정으로 아름다운 성당을 물려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의 기쁨을 증거하며 ‘친교와 선교’를 통해 복음화 100년을 향해 더욱 매진하는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번 시노드를 통해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

이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경청하며, 함께 걸어가는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당 설립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여의도동성당 교우 여러분도 교황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시노드 교회의 모델을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 ‘하느님 안의 우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우리’를 위해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면서 성덕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 안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보호자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임을 상기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시편 60,14)는 희망을 복돋우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쁘게 지내고 있는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사목위원, 봉사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히 내리시길 기도드리며, 여의도동성당 교우들이 ‘함께한 50년’이 그러했듯이 성령과 ‘함께할 100년’을 향한 발걸음도 은총 충만한 복된 날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 정순택 베드로

축사



희망찬 여정의 시작



여의도 본당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의도는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이 거행되고, '이 땅에 빛을!' 시성 슬로건이 새겨진 103위 시성터가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곳에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고 미사를 봉헌하며 순교자들의 고귀하고 거룩한 삶과 영성을 품고 있는 여의도 교우들에게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당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시작되었듯이 여의도동 본당도 성스럽지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너섬의 개발과 함께 여의도동 본당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하느님께서는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는 땅에 빛과 하늘, 온갖 동물과 식물,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창세기 1장),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은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의 맨땅에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신앙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건립되기까지 여의도의 평신도들과 신부님, 수도자들의 고단함과 간절함, 그리고 그 이후의 감격과 행복은 감히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여의도를 정치 1번지, 금융 1번지 등 화려하게 칭하고 있지만, 여의도동 본당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늘 낮은 자세로, 여의도동 교우들은 머릿돌에 새겨진 '성전

을 지어 하느님을 빛내라’(2사무 7,13)라는 말씀처럼 성전을 건립했던 초심으로 묵묵히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목주기도 200만 단 봉헌, 냉담 교우와 비신자를 위한 선교, 단체 활성화와 교우들의 활발한 친교, 페루 공소 지원과 카메룬 바피야교구 돕기 등 친교와 선교 활동들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본당 공동체가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과 감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50년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며 이제 향후 50년, 100년을 위한 희망찬 여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의도동 본당의 사목 지침인 시노달리타스 정신대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나, 가족, 이웃이 함께 어우르는 하느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의도 공동체의 위상답게 친교, 선교, 참여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 17,21)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37차 세계청년대회(WYD)가 2027년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미래의 후손에게 ‘서쪽 끝에서 극동까지’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 주기 위한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행사입니다. 1984년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시성식, 1989년 제44차 성체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었을 때 여의도동 본당 공동체의 저력은 이미 증명되었듯이, 다시 한번 친교와 선교의 정신으로 여의도동 교우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열정을 고대하겠습니다.

여의도동 본당의 교우들과 늘 함께 하는 동반자인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함께 만들어 갈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며, 그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동 본당의 50주년을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앞으로 함께 할 50년, 100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주교 | 이정상 바오로

헌신적 봉사의 결실, 본당 50년사



1970년대 아파트 건립 붐이 여의도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그와 함께 교우들의 자발적 신앙으로 여의도 땅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여의도동성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71년 성모병원 진료소에서 첫 미사가 열리고, 1974년 9월 17일 여의도 본당 승격이 이루어지면서 2024년에 이르러 50주년을 맞는 큰 나무로 자라 가지마다 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었습니다.

50주년은 회년으로 불리며, 일곱 해가 일곱 번 지난 마흔아홉 해를 살고 나서 50년째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와 사람들 사이에 이루는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기회로 제시되었습니다(레위 25,8-13). 이제 이 회년의 정신으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더 성숙한 신앙공동체로서 새로운 100년을 향할 때입니다.

2023년 9월 17일 50주년 기념 개막미사와 2024년 11월 24일 폐막 미사 사이에 5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50주년 기념 동영상도 완성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여의도동성당의 50년에 이르는 역사를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작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 작업을 위해 2023년 2월 '50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본당 50년사 발간을 위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앙공동체 교우들과 함께 여의도동 본당 5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에는 주임신부님과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의 엄청난 수고와 본당을 위한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진, 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신 교우분들, 인터뷰에 응해주신 역대 신부님들, 수도자분들, 사목회장님들과 본당 소장 성물 사진을 찍어주신 김영섭 건축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본당 50년사는 이전에 발간된 본당 20년사와 30년사에 이어 발간된 것으로서, 본당의 설립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상황을 망라하여 기록한 것이며, 여의도동성당의 소중한 기록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관계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5대 사목회장 | 정옥선 안젤라

Content

- 일러두기
- 주보성인
- 발간사
- 축 사
- 인사말
- 목 차
- 50주년 엠블럼 / 현판과 기념성구
- 50주년 기도문
- 여의도동성당 분당가
- 서울대교구 주교단
- 본당 사제 및 수도자
- 역대 주임사제
- 인포그래픽(1974~2024)

제1편 여의도 지역사회와 신앙공동체 태동

- 제1장 여의도의 형성 30
- 제2장 초기 신앙공동체 35

제2편 본당의 설립과 성장

- 제1장 본당 설립과 성전 건립(1974~1988) 40
 - 1. 제1대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 2. 제2대 김택암 베드로 신부
 - 3. 제3대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
- 제2장 본당 안정과 발전(1988~1998) 55
 - 1. 제4대 이계광 세례자요한 신부
 - 2. 제5대 김승훈 마티아 신부
 - 3. 제6대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
- 제3장 2000년 대희년의 시작과 본당 설립 30주년(1998~2004) 73
 - 1. 제7대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 2. 제8대 정광웅 요셉 신부

제3편 본당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제1장 본당의 안정과 교세 확대(2004 ~ 2022)	86
1. 제9대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	
2. 제10대 최선웅 야고보 신부	
3. 제11대 구분영 바오로 신부	
4. 제12대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	
제2장 본당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2022 ~ 현재)	133
1. 제13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	
50년을 되돌아보며	152

제4편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제1장 본당 설립 50주년 10대 기념사업	186
제2장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	207

제5편 평신도 사도직 단체

제1장 사목협의회·구역공동체	216
제2장 신심·봉사단체	222
제3장 동교회	267

제6편 본당 건축과 성물

제1장 본당 건축물	278
제2장 본당 성물	302

제7편 본당 운영 현황

제1장 본당의 연혁	344
제2장 본당의 현황	352
편찬위원 후기	364
참고문헌	366

50주년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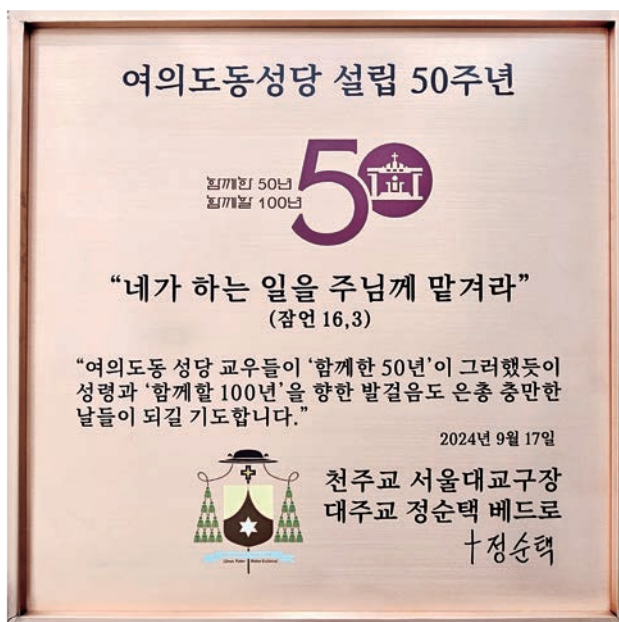
디자인

위미경 헬레나(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디자인 컨셉

- 서울대교구 상징인 자주색과 가톨릭체를 기본으로 제작
- 숫자 5와 0의 배열에서 0을 위쪽에 배치해 희망적인 내일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
- 0안에 여의도동성당의 로고를 넣어 교회공동체가 함께해 온 5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50주년 헌편과 기념 성구



여의도동성당 설립 50주년 기도문

자비하신 주님

한국 교회의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 성장처럼
여의도의 시작과 함께 교우들의 자발적 신앙으로
이곳에 뿌린 첫 신앙의 씨앗이
‘여의도동성당’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으며

희년의 정신으로 저희 모두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친교와 화합의 정신으로 더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주소서.
본당 주보이신 파티마의 성모님의 가르침대로
기도와 희생과 봉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복음화 100년을 향한 새로운 헌신의 마음으로
추수할 주님의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고
쉬는 교우들과 새 교우들이 모여들어
여의도 신앙공동체 안에 찬미와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파티마의 성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여의도동상당 본당기

작사 주경수 신부

작곡 진호영 신부

주 주 고 의 설 자 리 비 로 신 사 양 의 세 부 러 진 너 성 - 에

5
만 우 - 리 은 더 전 계 이 뭇 함 백 개 한 희 새 - 의 의 사

9
티 세 없 상 이 어 신 동 파 밝 티 하 는 성 모 영 의 가 르 침 따 라

13
아 인 를 세 상 에 찬 복 - 을 진 하 는 전 교 - 사 랑 이 이 룬 세 상 의

17
빛 빛 여 의 도 동 성 명 빛 영 원 하 리 라 세 상 의

21
빛 빛 세 상 의 빛 여 의 도 동 성 명 빛 영 원 하 리 라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대교구 주교단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동서울지역 교구장 대리주교
유경춘 티모테오



총대리 주교(중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겸)
구요비 읍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주교
이경상 바오로

본당 시제 및 수도지



주임신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부주임신부
하상헌 윤호요셉



원장수녀
김 마리아막달레나



전교수녀
이 줌마



유치원 원장수녀
홍 아나톨리아

역대 주임시제



제1대
(고)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1974. 10. ~ 1979. 6.)



제2대
(고)김택암 베드로
(1979. 6. ~ 1984. 8.)



제3대
(고)조순창 가시미로
(1984. 8. ~ 1988. 9.)



제4대
(고)이계광 세례자요한
(1988. 9. ~ 1993. 11.)



제5대
(고)김승훈 마티아
(1993. 11. ~ 1996. 10.)



제6대
(고)김정직 디오니시오
(1996. 10. ~ 1998. 10.)



제7대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1998. 10. ~ 1999. 10.)



제8대
정광웅 요셉
(1999. 10. ~ 2004. 9.)



제9대
김충수 보니파시오
(2004. 9. ~ 2009. 9.)



제10대
(고)최선웅 야고보
(2009. 9. ~ 2014. 9.)



제11대
구본영 바오로
(2014. 9. ~ 2018. 8.)



제12대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2018. 8. ~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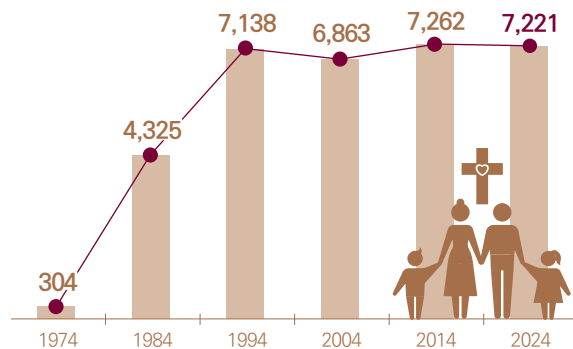
인포그래픽(1974~2024)

● 신자수

총 **7,221** 명 (2024년 기준)

1974년 304명에서
2024년 7,221명으로
50년 사이 24배 증가

—● 신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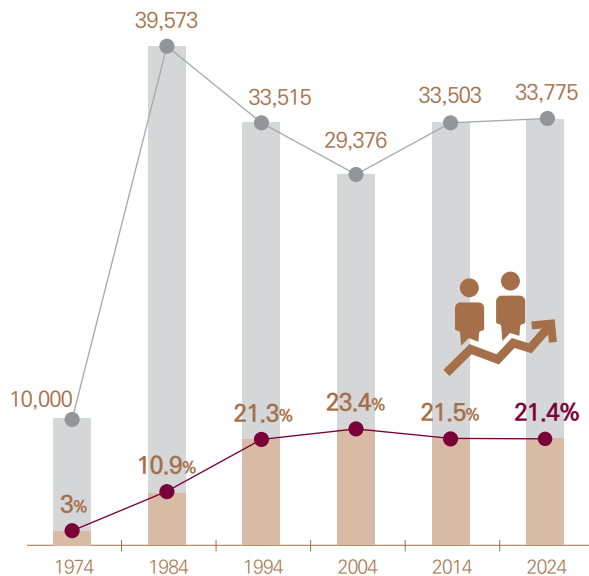
● 신자비율

2024년 **21** %

여의도동 주민에 대한 신자비율은
1974년 3%에서
2024년 21%로 증가

—● 주민수 (단위 : 명)

—● 신자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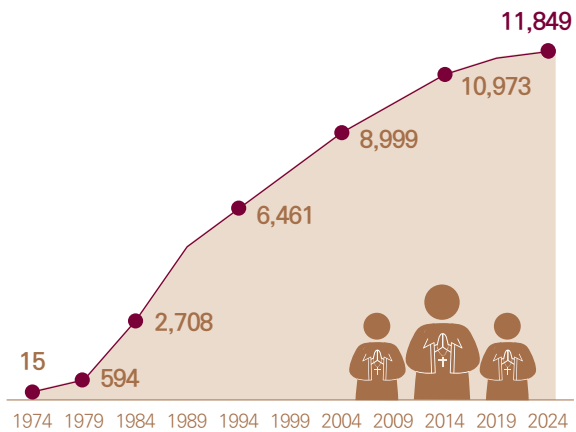


• 세례자수

총 **11,849**명

지난 50년간
세례를 받은 신자수는
11,849명

—● 세례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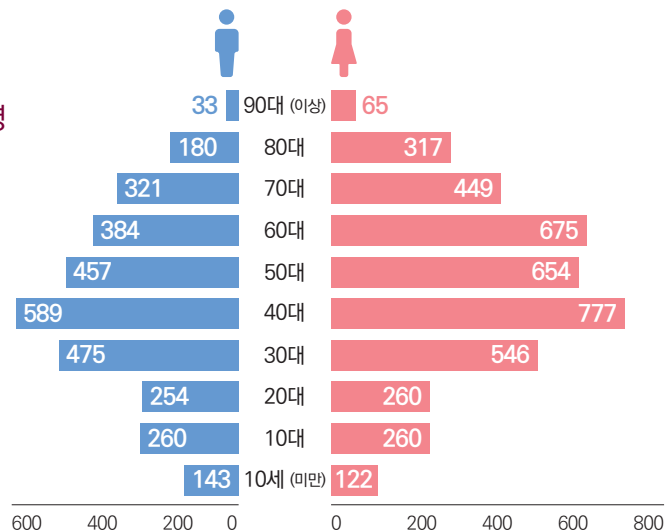


• 연령별 신자수

40대 **1,366**명

남녀 모두
40대 신자가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은
전체 신자수의 34%

■ 남성 ■ 여성
(단위: 명)



본당 모습

주간

야간



성모동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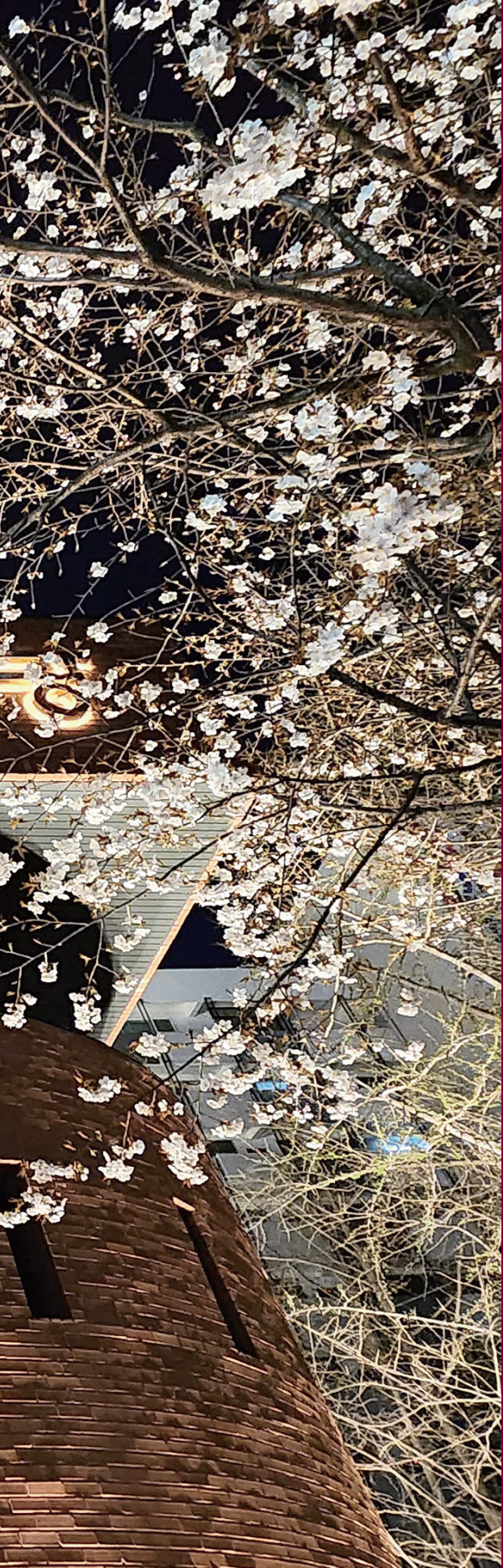
여름
겨울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여의도동성당





제1편 여의도 지역사회와 신앙공동체 태동

제1장 여의도의 형성

1. 여의도의 유래와 역사
2. 여의도의 개발

제2장 초기 신앙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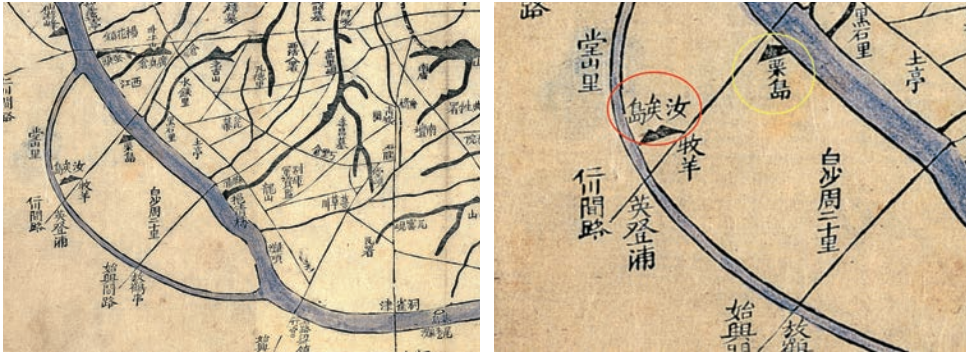
1974-2024

제1장 여의도의 형성

1. 여의도의 유래와 역사

여의도는 역사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명칭과 토지의 활용도가 변화해 왔다.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의도 지역이 ‘잉화도(仍火島)’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종 원년(1864년)에 편찬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한성부 도서조(島嶼條)에는 저자도(楮子島), 울도(栗島)라는 말과 함께 잉화도 대신 여의도로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표시한 여의도와, 오른쪽의 ‘울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의도와 울도(밤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대동여지도 도성도에 표시된 여의도와 밤섬(1861)

조선 말의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2권에 의하면 여의도와 울도(밤섬)는 붙어 있었는데 홍수로 분리되었고 나의를주(羅衣洲)라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이곳은 고립된 섬이 아닌 현재의 영등포동에 이어진 삼각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의를주(羅衣洲), 나의를도(羅衣島)라는 명칭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제일 높은 곳인 양말산(지금의 국회의사당 자리)이외의 지역은 물 속에 잠기게 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섬, 너의 섬으

로 지칭하면서 생겼다.

여의도는 조선시대에 주로 목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일제 시대에는 목장, 경마장, 그리고 비행장으로 활용됐다. 일본군은 이 일대를 군용지로 매수하여 농민들을 퇴거시킨 후 1916년 9월 임시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여의도는 최초의 비행장이 되었다. 이 때만 해도 단순 비행장으로 취급했으나 이후 이용 수요가 크게 늘자 1929년에 비행장을 확장했으며 1930년대에는 다양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군사시설로도 이용하게 됐다.

여의도공항은 1953년에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선이 개설되었으나, 한강의 빈번한 범람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1958년 김포국제공항이 건설되자 민간 항공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되었고 여의도공항은 공군기지로 계속 사용하다가 1971년에 공군기지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폐쇄됐다. 여의도공항의 시대적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2009년 여의도공원에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탑이 세워졌다.



마포에서 바라 본 여의도의 모습(1884)

행정구역을 보면 이 지역은 일제 시대에는 경기도 고양군이었으나 1936년 서울(당시 명칭 경성부)에 편입된 후 1946년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같이 여의도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2. 여의도의 개발

1960년대에 이르러 서울은 인구 과밀화, 주택 문제, 급수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던 여의도는 1963년의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 도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1966년 여름, 여의도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1968년 2월 10일, 밤섬을 폭파하여 여의도 개발에 필요한 토석과 모래를 확보해서 여의도 제방을 쌓는데 이용했다. 1967년 12월에 시작된 윤중 제방 공사는 밤섬의 자원을 활용하여 110일 만에 여의도 둘레의 제방 7.6km를 완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1971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 안에는 세계적 규모로 길이 1,350m, 너비 280~315m인 12만평의 대광장 건립과 상주인구 4만명, 활동인구 18만 명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또한, 시범아파트 등 약 8천명 규모의 아파트 신축, 학교, 유치원, 동사무소, 쇼핑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었다.



밤섬 폭파(1968)



윤중제 공사 현장(1968)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아파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는데, 초기에는 입주 모집 공고에도 입주 신청이 부진했다. 해결방안으로, 여의도초등학교 졸

업생은 여의도중학교로, 여의도중학교 졸업생은 여의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특수 학군을 설정했다.



구분		면적
A	여의도 면적 (제방안쪽)	2.9km ²
B	여의도 면적 (한강시민공원포함)	4.5km ²
C	여의도동 면적 (한강바닥, 밤섬일부 포함)	8.4km ²

여의도 면적(2024년 기준)

이때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나 민간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삼익, 한양, 라이프, 삼부 등의 건설사에 의해 1978년까지 16개 단지의 민간 아파트가 잇달아 건설됐다. 삼익아파트(4개동/360세대), 은하아파트(4개동/360세대), 대교아파트(4개동/576세대), 한양아파트(8개동/560세대), 수정아파트(3개동/329가구) 등이 건설되면서 마침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다. 1969년 9월 서울교 완공을 시작으로 마포대교(1970. 5.), 여의교(1976. 11.), 원효대교(1981. 10.) 등 교량들이 완공되면서 도심과의 연계 교통망도 갖추게 됐다.

1975년 여의도 양말산(羊馬山, 양마산이라고도 부름) 일대 부지에 면적 21,881m², 높이 70m의 국회의사당이 건설되었고, 1976년에는 KBS가 여의도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1980년 TBS, 1983년 MBC, 1991년 SBS가 연이어 개국했다. 또한, 1979년 전경련회관이 준공되었고 한국산업은행 본점, 중소기업회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들어서면서 여의도는 정치, 금융, 방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71년 2월 당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10대 광장에 들어가는 5.16광장이 착공되어

같은 해 9월에 완공됐다. 5.16광장의 기존 도로는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했다. 5.16광장은 197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그 후 이곳에서 대통령 취임식, 이산가족 찾기 등의 대규모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1984년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시성식, 1989년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대 행사인 제44차 성체대회가 열렸다.

5.16광장은 1987년에 여의도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97년 서울시의 공원 추진화 사업을 통해 1999년 7월 5일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레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5.16광장의 103위 시성식(1984. 5. 6.)



여의도광장의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1989. 10. 8.)



여의도 공원

제2장 초기 신앙공동체

여의도동성당은 여의도의 형성과 함께 신앙공동체로서 탄생했으며, 본당 설립 50주년 기도문에도 언급되었듯이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역사

는 1960년대 중후반 여의도 지역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는 약 7,000명 교우의 본당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여의도동성당의 역사는 여의도의 지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온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여의도 택지 개발이 시작된 후 1971년부터 입주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 가운데 일부 교우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다.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된 이 공동체는 1971년 12월 19일 약 30명 정도의 교우가 모여 성모병원 2층 진료소에서 당산동성당의 김대성 바오로 신부와 함께 첫 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 신앙공동체는 여의도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여의도공소시절 영등포동성당 방문(1973)
(왼편 장덕필 니콜라오 신부, 중간 김대성 바오로 신부)

신자수가 증가하면서 1973년 5월 18일 영등포동성당의 여의도공소로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신자 수는 52세대, 약 150명에 달했다. 이후 영등포동성당 장덕필 니콜라오 신부가 매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했는데 모든 교우들이 함께할 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

다. 장 신부는 서울대교구에서 차입한 2백만원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19동 12호(24평)를 6개월간 임차하여 임시공소로 사용했다. 이곳은 여의도공소의 첫 미사 공간이자 신앙공동체가 더욱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

1973년 10월, 19동과 같은 규모인 시범아파트 6동 26호를 매입하면서 이는 여의도공



여의도 유치원 터와 시범아파트 6동 공소(1971)

소의 첫 자산이 됐다. 1974년 9월 17일, '천주교영등포교회 여의도공소'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여의도동교회'로 승격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이로써 여의도동성당은 독립적인 신앙공동체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여의도동성당의 신앙공동체 형성과 성장 과정은 여의도 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지난 50년 동안 여의도동성당은 규모와 역할을 확장해 나가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지역 사회의 발전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신앙 활동과 역대 주임신부 및 수도자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여의도동성당의 50년사는 지역 사회와 공동체 신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2편

본당의 설립과 성장

제1장 본당 설립과 성전 건립 (1974~1988)

1. 제1대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2. 제2대 김택암 베드로 신부
3. 제3대 조순창 가미시로 신부

제2장 본당 안정과 발전 (1988~1998)

1. 제4대 이계광 세례자요한 신부
2. 제5대 김승훈 마티아 신부
3. 제6대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

제3장 2000년 대희년의 시작과 본당 설립 30주년(1998~2004)

1. 제7대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2. 제8대 정광웅 요셉 신부



1974-2024

제1장 본당 설립과 성전 건립(1974~1988)

1. 제1대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1974. 10. 1.~1979. 6. 14.)

(1) 사제와 수도자

1974년 9월 17일 여의도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고, 10월 1일 여의도동성당 초대신부로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부임했다. 최 신부는 1963년 사제 수품 후 가톨릭대 서울관구 신학원장을 거쳐 본당에 부임했다. 본당에서 사목활동을 마치고 1979년 6월 화곡본동성당으로 이임했으며 2002년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 후 원로사목자 겸 교구고문서 담당으로 사목했다. 2015년 1월 87세로 선종하였으며 장례미사는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교구사제단 공동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함께 사목한 수도자는 서안례 세바스찬 수녀, 정진옥 아네스릿다 수녀, 조애현 수산나 수녀, 전순자 발바라 수녀이다.

(2) 성전 건립

첫 성전 건립

최 신부가 부임한 1974년 10월 본당 교우는 총 82세대, 300여 명으로 24평 아파트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점차 증가하는 교우를 수용하기 어려워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 신부는 교우 가정 80여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성전 건립을 위한 협조를 구했

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교우 수로는 성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또한, 비상계엄령 및 유신헌법 공포 등으로 교구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본당 교우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성전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졌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돼지저금통을,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당시 금액으로는 거액인 100만원을 익명으로 봉헌한 교우도 있었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리석 성모상을 봉헌한 교우도 있었다. 최초의 봉사단체인 ‘데레사회’는 성전기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손수 만든 양말과 떡을 판매하면서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다.

1971년 12월 성모병원 진료소에서 첫 미사를 올린 지 3여 년, 아파트를 공소로 사용한 지 1여 년 만인 1975년 3월 23일 부활절에 대지 213평, 건축 면적 150평 규모의 첫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 새 성전이 완공되어 1976년 1월 25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주례로 축성식과 기념미사를 가졌다.



성전 신축 기공식(1975. 3. 23.)



기공식 후 사목회장과 교우들(1975. 3. 23.)

1976년 2월 8일 가톨릭시보 996호(현 가톨릭신문)는 서울대교구 본당 중 가장 작은 본당인 여의도동성당이 공사비 2천 6백만 원을 들여 성당을 신축하면서 4년간의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였다고 보도했다.



성전축성 미사(1976. 1. 25.)



1976年2月8日 (일요일)

가 톨 릭 시 보 第996號

여의도성당祝聖

4년간의專賣아파트생활청산

서울 여의도성당(주임 Ⅱ 최용득신부)이 완공되어 1월 25일 오후 3시 완공기정집전으로 축성식을 가졌다. 한강성당에 이어 두번째로 아파트단지내 세워진 성당은 지난해 3월에 착공공사비 2천6백만원에 2층 연건평 1백60평에 성당(60평) 사제관 사부실수를 나열한다.

내원을 갖추어 11월말에공사를 끝내고 사용하도록 이날 축성식을 가졌다. 현재 신자수 4백15명(1백5세대)으로 서울교구 본당중 가장작은 본당인여의도본당은 71년12월 신자30명이 인근 여의도 성묘병원 진료실을 빌어 첫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 영등포본당 공소로 전세아파트를 전전해오다 74년10월 본당으로 승격했다. 성당 착공시 세대수는80세대로 이들은 공사비중교구보조 4백만원에 제외한2천2백만원에 부담, 세대당 평균27만5천원을 현금하는 기록적인 현금 신적을 나타냈다.

두 번째 성전터 매입과 증·개축

첫 성전이 준공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신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장소의 협소함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됐는데 마침 여의도유치원이 매물로 나와있어 최 신부는 교우들과 협의하여 1977년 12월 23일 여의도유치원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써 여의도동성당은 대지 700평, 건축면적 350평을 확보하고 건물을 증개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최 신부는 건물의 매입과 증개축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1년 12월 19일 여의도에서 첫 미사를 올린 바로 그 장소인 만큼 감격과 기쁨이 더했다.

(3) 교우의 증가와 사목 활동

최 신부는 성전 건립 외에 교우의 증가에 맞는 체계적인 사목활동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교우는 계속 급증하여 1974년 304명이던 교우수는 1976년에는 793명, 1978년에는 1,519명, 1979년에는 1,841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6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해마다 세례를 받는 교우도 증가했다.



세례식(1976. 12. 24.)



첫영성체(1977. 4. 10.)



세례식(1977. 12. 24.)



세례식(1978. 5. 13.)

공소 시절이던 1973년에 이기석 비오 공소회장이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성당으로 승격되면서 제1대 사목위원회 회장이 됐으나 분과는 조직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79년 3월에 작고하였고, 2대 남규백 프란치스코 회장이 선임되면서 분과장이 선출되고 사목위원회가 구성됐다. 또한, 1976년에는 울뜨레야와 레지오 마리아가 창단됐다.

1974년 10월 창단된 어버이 성가대는 1976년 5월 22일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성전이 공사중이라 연습실이 없어 교우 가정과 양카라 공원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경연대회 후 추기경과 함께(1976. 5. 22.)



사목위원 및 반장단 제1차 총회기념(1977)

(4)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를 회고하며

『여의도본당 20년사』에서 최 신부를 기억하는 당시의 교우 김덕순 요안나의 회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참으로 선하고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잘 웃으시고 그런가 하면 결단력과 인내심도 강한 존경하는 신부님 중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대성전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공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대성당을 짓기까지 돌이켜 생각하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납니다. 유치원 2층을 빌리고 아파트를 전세 얻어 성당으로 사용하다 나중에는 팔고, 성당을 짓고 또 팔고, 이 성전 자리 계약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 S.O.S를 쳐서 집에 비상금 모두 가져오고, 바자회를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애장품을 모두 가져와서 팔고, 또 계를 조직해서 오르간을 구입하고, 이 모든 행사를 우리 최 신부님이었기에 우리 신자들이 협력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최 신부님의 원만한 성격과 화를 내지 않는 조용 조용한 성품에 우리 교우들이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모름지기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신부님,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어린 양 떼들의 참 목자되시어 주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2. 제2대 김택암 베드로 신부 (1979. 6. 14.~1984. 8. 17.)

(1) 사제와 수도자

1979년 6월 14일, 본당 제2대 주임신부로 김택암 베드로 신부가 부임했다. 김 신부는 1967년 12월 사제 수품 후 중림동성당 보좌신부, 일산성당, 수색성당 주임신부를 거쳐 1979년 6월 본당에 부임했으며 1984년 8월 용산성당으로 이임했다. 2005년 안식년을 거쳐 2006년 9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미국 체류 중 2021년 12월 83세로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12월 29일 미국 샌디에고 골롬바 대성당에서 봉헌됐으며 서울 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함께 사목했던 원장수녀는 전순자 발바라 수녀, 조규명 마리아 수녀, 심진순 가오로 수녀이다.

본당 설립 이후 7년만에 첫 사제가 탄생했다. 1981년 2월 18일 서유석 사도요한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다. 서 신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가톨릭대학에서 수학하여 사제가 됐다.

(2) 사목 목표

1981년 김 신부는 교우들의 신앙생활 지침이 되는 사목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사목 활동을 했다.

첫째, 이웃과 함께 말씀을 살자.

둘째,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자.

셋째, 이웃과 함께 사랑을 증거하자.

(3) 교세 확장과 단체의 정비

김 신부는 본당의 교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79년 10월부터 전신자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사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각 구역 반장들을 방문하여 본당 운영 방안과 가정방문 일정을 협의했다. 김 신부는 가정방문을 통해 교우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은 후 이 내용을 사목활동에 반영했다. 그 결과 교우 수가 늘고 신심 단체가 활성화되어 1979년 12월 초에는 미사참례자 1,129명, 주일헌금은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50만원을 넘기도 했다.



세례식(1979. 12. 24.)

루도비코회 발족

김 신부 부임 이전인 1976년부터 남녀 혼성 상아보탑 뵈레시디움, 여성 셋별 뵈레시디움과 평화의 모후 뵈레시디움, 남성 사도의 모후 뵈레시디움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79년 9월 23일 레지오 마리아 협의회가 발족했고 ‘루도비코회’로 명명했다.

M.E. (Marriage Encounter)

김 신부는 1981년 4월 12일 본당 교우 부부가 M.E.체험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4월

29일 6쌍의 부부를 사제관으로 초청하면서 여의도 M.E.를 결성했다. 1984년 8월 이 임할 때까지 M.E. 모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체를 지도했다.

(4) 두 번째 성전 건립

새 성전 신축위원회 구성

최용록 신부 재임 시기에 매입한 여의도유치원을 성당으로 사용했으나 교세 확장으로 장소가 협소해졌다. 이에 1981년 10월 11일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새성전 신축위원회’가 구성됐다. 1982년 9월 26일 경갑룡 요셉 주교의 주례로 미사와 성전 신축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1984년 4월 28일 완공하였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편 여의도동 본당 건축물에 상세히 수록했다.



성전신축 기공미사(1982. 9. 26.)



성전신축 기공식(1982. 9. 26.)



성전공사모습

건축 기금 모금

1981년 11월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말씀의 전례 행사에서 약 2억 5,000만 원이 모금되었다. 이와 함께 김 신부는 사제생활을 하며 모은 1,000만 원을 쾌척했

다. 또한, 1982년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성모병원 내 임시 성당 자리에서 본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레지오 단원들은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고가품을 기증한 교우도 있었다. 또한, 연예인 뽀빠이 이상용 등을 초청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품 추첨 행사도 병행하였는데 최고상은 포니 자동차 1대였다. 바자회에서는 약 8천 3백 만원의 수익금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다.



성전 마련 장터(1982. 10. 31.)



주보 성인 선정 및 성전 준공

새 성전의 완공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교우들은 ‘여의도의 성모성당’으로 불리던 본당의 주보 성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보 성인 선정을 위하여 교우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1983년 10월 30일에 ‘파티마의 성모’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됐다. 신축성당 축성식은 1984년 4월 28일 이루어졌다.



신축성당 축성식(1984. 4. 28.)



(5) 김대건 신부 유해순회 기도회 및 103위 시성식

성모병원으로 성당을 임시 이전한 후 1983년 6월 13일 ‘김대건 신부 유해순회 기도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1984년 개최된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시성식’에 대비한 예비 행사였다. 103위 시성식 행사는 요한바오로 2세 교황 성하의 역사적인 방한과 더불어 103위 성인이 탄생하는 뜻깊은 행사로 5.16광장(현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됐다. 본당 교우들은 교구 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행사가 순조롭게 거행되도록 힘을 보탰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시성식(1984. 5. 6.)



유해순회 기도회 후(1983. 6. 13.)

(6) 김택암 베드로 신부를 회고하며

『여의도본당 20년사』에서 김 신부를 기억하는 당시의 교우 김봉기 안드레아의 회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성당이 지어질 때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지나칠 정도로 세심히 연구하시고 감독하시어, 여의도성당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 김 신부님의 정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의도성당을 그분의 정열과 혼이 담긴 성

전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한마디로 이 성전은 김 신부님의 사제생활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된 예술적인 역작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성당 교우들은 김택암 신부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 성전을 아끼고 잘 가꾸어 김택암 신부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그때의 기억이 되었던 몇 가지를 늘어 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아팠던 것은 불편하고 어려웠던 세월을 보내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느님께 미사 성제는 물론 즐거운 사제활동을 하시려 하실 때 용산성당으로 발령이 나셨으니 신자들 사이에서 “위 어른께서 참으로 무정하시다”라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1년만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파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김택암 베드로 신부님 내내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여의도성당 교우 모두 주님께 기원합니다.

3. 제3대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1984. 8. 17.~1988. 9. 9.)

(1) 사제와 수도자

김택암 베드로 신부가 용산성당으로 이임하고 1984년 8월 17일 불광동성당에서 사목하던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가 3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조 신부는 1959년 사제품을 받은 후 해군 군종신부와 명동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포천, 일산, 미아동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1988년 9월 본당에서 이임 후 명동성당을 거쳐 2008년 원로사목자로 사목하다가 2010년 6월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명동성당 내 지하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사제단 공동 주례로 봉헌됐으며,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이 시기는 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85년 8월 첫 보좌신부로 박향오 마르코 신

부가, 1987년 2월 김경모 야고보 보좌신부가 부임했다. 함께 사목한 원장수녀는 심진순 가오로 수녀, 함희자 베드로 수녀이다.

본당 출신 사제로는 박원주 요셉 부제가 1987년 2월 6일 사제품을 받았다.

(2) 본당 교우 총회 개최

조 신부의 사목 시기는 본당의 크고 어려운 과제였던 성전 신축이 마무리된 직후로 안정화에 들어선 때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여건 속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으며 1983년 3,890명이었던 교우수는 1988년에 6,456명으로 1.7배 증가했다.

1986년 1월 19일 처음으로 본당 교우 총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본당 사목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교우로, 이 자리에서 사목 총회장의 총괄 보고, 각 사목분과 소개, 사목 실적,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단체 운영의 어려운 점



사목회

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존의 중복 또는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기 위해 심사분석 업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3)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활동

조 신부는 본당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하면서 항상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조 신부는 각종 후원사업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4년 9월 초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홍수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조 신부는 수재의연금을 대대적으로 모금하여 전달했다. 그밖에 1984년 절두산 순교기념관 건축기금 후원, 성소자 돕기 자선 성탄 음악회 개최, 1985년 충북 진천 복자수녀원 ‘대월의 집’에 오르간 기증, 단양성당 신축기금을 후원했다. 또한, 1986년 사랑과 나눔의 잔치 개최, 양평 용문리 ‘희망의 집’ 후원, 1987년 태풍 셀마 피해 수재의연금 전달, 1988년 불우이웃돕기 음식 바자회 개최 등의 나눔 행사가 있었다.

(4) 단체 설립

노인대학

조 신부는 외딴 교우 모임, 청년과의 만남, 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 잔치를 자주 열었다. 그리고 타 본당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1987년 9월 11일 노인대학을 설립했다.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푸른군대

1985년 4월 18일 조 신부를 지도신부로 푸른군대(파티마의 성모 세계사도직) 여의도 모임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시 초대 단장은 오재성 카타리나였다.



성모의 밤(1985. 5. 29.)

(5) 성가정 주일

매월 첫 주일을 성가정 주일로 정하여 예수·마리아·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우러러 기리도록 했다. 아버지는 요셉 성인처럼 신의를 지키고, 어머니는 성모님처럼 사랑이 깊으며, 아들은 예수님처럼



가톨릭 성서모임(1986. 3. 20.)

효성스러워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은 곧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 사이의 답을 대화로 허물며 기도와 사랑, 감사와 희생으로 성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례하도록 권장했다. ‘효자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 주신다.’는 조 신부의 가르침에 따라 교중미사에 가족이 함께 참례했다.



건진성사(1984. 9. 15.)



교우들과 함께(1984)



첫영성체 기념(1985. 6. 9.)



영세 기념(1985. 12. 22.)

(6) 성모동산 조성

성당 건물만 있던 새 성전의 뜰 안쪽에 1986년 6월 24일 성모상을 에워싸는 주변 장식 벽을 세워 더욱 아늑한 성모동산을 만들었다. 장식 벽은 주변의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1986년 8월 15일에 축복식을 가졌다.



성모동산 축복식(1986. 8. 15.)

(7)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를 회고하며

『여의도본당 20년사』에서 조 신부를 기억하는 당시의 교우 남봉원 모니카의 회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조순창 신부님의 성함을 떠올리자마자 연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 신부님은 성품이 온화하시고 지혜로우셨습니다. 새 성당에 부임해 오셨는데도 조금도 새로 오신 신부님으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함께 계셨던 분으로 미소로써 여의도 교우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셨으며 어느 상황에서든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분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부님을 경애하며 따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 지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새 성당의 사목을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앎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조용한 미소로, 큰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교우들을 올바르게 이끄셨으며 신앙인들의 모범

과 교훈이 되셨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어머님께 효도하시는 마음과 모습이었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조용한 미소로 어머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불평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신부님은 흡사 성모님의 마음과 같으셨습니다.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님을 통해 성인 신부님을 보는 듯 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2장 본당 입장과 발전(1988~1998)

1. 제4대 이계광 세례자요한 신부(1988. 9. 9.~1993. 11. 5.)

(1) 사제와 수도자

제3대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가 명동성당으로 떠나고, 1988년 9월 9일 본당의 4대 주임신부로 이계광 세례자요한 신부가 부임했다. 이 신부는 1945년 사제품을 받고 인천성당 보좌를 시작으로 1948년 삼각지성당 주임을 거쳐 웅진성당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이 신부는 휴전 후 의정부성당 주임으로 부임해 의정부성모병원의 기초를 다지고, 의정부 지역 첫 유치원인 성모유치원을 개원했으며 이후 서울 대림동성당 등의 주임을 역임했다.

이 신부는 휴일 외에는 성당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을 정도로 원칙을 중시했다.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면서도 옳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에는 무한히 너그러웠으며 청빈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생활화했다.



부임 환영(1988. 9. 9.)

이 신부는 1993년에 여의도동성당을 떠나 성북동성당 주임신부로 이임했으며 1996년 3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 후 원로사목자로 봉사하다가 2011년 12월 26일 91세로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12월 28일 서울 명동주교좌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주례로 봉

헌됐으며 유해는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이 신부 재임기간 동안 여의도동 본당에는 양형석 루카 신부, 손명종 요한 신부, 유병만 가브리엘 신부가 보좌신부로 재임했다.

함께 사목했던 원장 수녀는 함희자 베드로 수녀, 조애현 수산나 수녀, 윤태순 바오로 수녀, 김정자 바오로 수녀이다.

(2) 소공동체 활성화와 신심 강화를 위한 행사

관할 구역 개편

이 신부는 먼저 소공동체 활성화라는 교구의 방침에 따라 작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당의 관할 구역을 7개 지구에서 12개 지구로 재조정하고 새 지구장을 임명했다.

본당 설립 15주년 행사

1989년 9월 17일은 여의도동성당 설립 15주년이 되는 날로 축하 미사와 어버이 성가대의 성가로 창립 기념 행사를 거행했다. 본당의 사목 활동에 공로가 큰 교우에 대



영세식(1988)



건진성사(강우일 주교 주례, 1988. 9. 11.)



성탄의 밤(1992)



첫영성체(1993. 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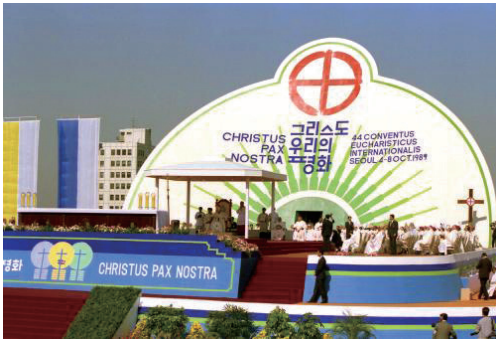


레지오 마리아 행사

한 표창과 앞으로의 본당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축하 피로연을 가지며 15주년 행사를 마쳤다.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1989년 10월 4일 ‘평화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5일 ‘감사의 날’, 6일 ‘회심의 날’, 7일 ‘일치의 날’, 8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 10. 8.)

로 2세 성하가 주례하는 장엄미사가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됐다. 여의도동 본당의 신자들도 각 행사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기쁨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관진 베드로 전 사목회장의 교황청 성 그레고리오 대십자훈장 수상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만찬(1993)

본당 사목협의회 이관진 베드로 회장이 1991년 6월 29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성 그레고리오 대십자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교회 발전에 공이 많은 평신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교황 훈장이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을 3회 유임하고 당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으로서 교회

를 위해 헌신해 온 이관진 회장의 수훈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본당의 큰 기쁨이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본당에서는 6월 30일 축하미사와 축하연을 가졌다.

(3) 장학회 발족

“나 사람들에게 봉사하려 세상에 왔노라.” 이 신부의 수품 성구이다. 강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희생하며 절제하고 겸손하라’고 강조했던 이 신부는 부임 초기부터

사목회의에서 장학 사업에 대한 뜻을 밝히며 기금 마련과 운영을 담당할 장학회를 구상했다. 그리하여 1990년 1월 14일에 장학회를 창립하고, 그 해 2학기부터 원주 교구 내 16개 성당 96명의 학생들에게 분기당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5만 원을 지급했다. 1991년에는 안동교구 내 20개 본당의 67명을 추가하여 지원하였고, 1994년 5월에는 대상을 넓혀 36개 본당 18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임지인 대림동성당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교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여의도동 본당의 경우 교우들의 생활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 장학 사업의 수혜 대상을 탄광촌과 농촌의 학생으로 정했다. 이 신부는 장학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이 지난 1992년 10월에 원주와 안동교구 내 36개 본당을 순회 방문하여 각 지역의

가 룰 리 新 聞

1992년 11월 8일

(일요일)

황폐한 도시에 생명주는 교회모습

10월22일(목) 아침 8시 사목의 장학담당 신부님(비오) 회동과 같이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횡성군을 거쳐 오후 1시경 용평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연이어 정선, 함백, 사북의 각 성당을 방문했으며 태백산맥의 웅장한 산맥에 도착한 것은 저녁 10시가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밤 9시 호텔 1층 2백㎡의 고강고지를 빌어올리는 무서움도 있었습다. 한지성당 사제관에서 그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8시 상동성당과 용평성당을 거쳐 도계 성당으로, 그리고 동해시 북쪽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도계 성당에서 집회소와 용평성당에서 초조한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 용평을 출발해서 우리성당 여의도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태백산맥 폐광촌본당 탐문기

이와에는, 광부의 일 많고 다른 성당수당과 방법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계는 더욱 어렵고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이 폐광촌에 도시의 신자들은 또 본당들은 그리고 사제의 수녀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까지, 사제의 수녀님들은 할까지 그들의 열정이 되고 수호자가 되어 팔까지 그 팔과 같이 있어야하며, 그

들은 이곳 본당의 여러 사제들과 수녀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하나 같은 그 열정과 용기와 사명의식에 감동했습니다. 한밤중의 찬 바람과 눈발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아주 젊거나 그냥 젊은분들이었습니다. 한밤중의 찬 바람과 눈발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아주 젊거나 그냥 젊은분들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본당 주임 이계광 神父



교아·양로원 건립하러 동분서주 의욕 용기 배가워해 나눔가져야

들의 편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신부님에게로 그들의 양육을 지시할인 신자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시제인 소위 신앙합리화와 정책이라 이지에 대한본의 한과 공신이 폐쇄되거나 폐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구 3만여의 시가 1만1천으로, 인구 2만여의 읍이 1만 9천으로, 급속히 광화되고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9개본당 전체 성 그러나 그것은 이세상 본당 5~6천명의 그것보다 작았습니다. 3백명이던 신자수가 1백명이 되었는 데도 역시 간과없이 주말에는 3번의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5명의 예비자를 위해서도 교리강좌는 계속되었고 30명의 어린이를 위해 3개반의 주일학교는 전과 다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기 위해 지역관공

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폐한 도시, 폐허가 된 마을 그러나 그것은 이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요, 말 시 가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교회와 이곳의 수녀님 수녀님들은 불타는 신자들의 나라를, 비 폐 폐기물 속에 참 생명을 심어주고 건설하라는 의욕과 노력을 보였습니다. 스스로는 부족하면서도 주교의, 나누는 교회로 이끌기 서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9개성당 어디에도 성

당사무실은 있어도 사무공의 본당을 찾아다니는 의도도 식복사는 없었습니다. 그의 모두가 시간제 파출부 뿐이었습니다. 만능신부 만능수녀 아니 만능사목회 교회에게는, 사제에게는 그 가 소용하며 그 하나를 위해 이곳의 교회는 그리고 이곳의 사제는 보람을 갖

서울의 여러본당을 서울의 여러신자들을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양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으며 열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러본당을 서울의 여러신자들을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양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으며 열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아무리 크고 많은것도, 아름답고 화려한것도 그 하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요, 그 열의와 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잃었던 그 하나를, 그 진실한 하나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우리들의 그 많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아픔당고 해라한 것들을 닦아서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의 신부님 수녀님들처럼, 신자들처럼, 발발하고 생기넘치는 의욕과 용기와 보람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속에 살 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곳 폐광지대 9개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들로부터 이에도 본당 고 존 신자들과 장로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본도시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여 이마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라는 지 본당신부의 확신을 여러신자들에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강론 모습



유치원 졸업식(1992)

본당 주임신부로부터 장학금 집행 현황과 성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신부는 장학 사업이 사랑과 고통을 나누는 복음 사업이자 황폐한 도시에 생명을 주는 교회 모습이며 도움을 받은 이들이 후일에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학회는 이 신부의 관심과 본당 교우들의 후원 속에서 빠르게 기틀을 잡아나갔다. 2004년에는 안동교구 고등학생 65명, 원주교구 고등학생 60명에게 매 분기 12만 원씩 연간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20명에게 14억 8,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4년 기준으로 12억 7,100만 원의 운영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본당 단위의 장학기금으로는 매우 큰 규모이다.

(4) 이계광 세례자요한 신부를 회고하며

이 신부를 기억하며 당시 사목회 부회장이었던 배삼원 막달레나의 회고 내용 중 일부를 『여의도본당 20년사』에서 발췌했다.

1988년 9월 우리 여의도에 신부님께서 부임하시던 날 그 당시 총회장님이셨던 이관진 회장님의 환영사에서 4번째로 여의도동 본당에 오시는 신부님이기에 4번 타자로서 홈런을 치실 것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신부님께서서는 커다란 장외홈런을 치셨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여의도 장학회를 만드신 일입니다.

가난한 탄광촌과 어촌에서 사목활동을 하시면서 밥 짓고 빨래하며 고생하는 젊은 신부님들을 보고 오셔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던 인자하신 신부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서품 10주년만 되어도 기념행사로 요란한 것이 요즈음 우리 교회 모습이건만 신부님께서는 극구 사양하시어 여의도 본당에서 맞으신 칠순도 그냥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본당 사목의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하시는 새로운 감각의 강론 말씀, 공과 사가 분명하시고 원칙을 지키시되 합리적이며 옛 교리를 지키시되 결코 고루하지 않고 몇 나라 말들을 아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실력 있고 멋을 아시는 멋쟁이 우리 이계광 신부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5대 김승훈 마티아 신부(1993. 11. 5.~1996. 10. 10.)

(1) 사제와 수도자

4대 이계광 신부가 성북동성당으로 떠나고 왕십리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김승훈 마티아 신부가 1993년 11월 5일 제5대 여의도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김 신부는 1962년 사제 수품된 후 신림동성당과 홍제동성당 등에서 주임신부를 역임했으며, 그밖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직을 맡는 등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 신부는 여의도동성당 사목활동을 마치고 1996년 10월 11일 시흥동성당 주임신부로 이임했다. 2001년 10월 5일부터 안식년을 보내다가 2003년 9월 2일 64세로 선종했다.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영원한 벗이었던 김 신부의 장례미사는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묘역에 안장됐다.

1993년 11월 5일 김 신부와 함께 부임했던 유토마스 토마스아퀴나스 보좌신부는 10

개월여 동안 주일학교 등 많은 분야에 헌신적으로 일했으며, 1994년 9월 9일 용산성당 주임신부로 이임했다. 뒤이어 이정훈 클레멘스 신부, 한상호 그레고리오 신부, 한철호 라이문도 신부가 보좌신부로 부임하여 사목활동을 했다. 당시의 원장 수녀는 김정자 바오로 수녀와 정영자 아가다 수녀이다.

본당 출신인 김선용 토마스아퀴나스 부제가 1996년 7월 5일 사제품을 받았으며 제주교구 신창성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 후 2025년 현재 안식년을 지내고 있다.

(2)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농촌돕기

김 신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과 고통에 관심이 많았다. 김 신부가 부임하고 5일 후, 본당 앞마당에서 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이는 산지 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전라북도 신태인성당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배추는 두어 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야간 수송으로 추가 물량이 공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또한, 김 신부는 긴급히 사목위원들과 협의하여 신태인성당에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1994년 말에도 김 신부는 전라북도 순창성당의 요청으로 순창고추장과 각종 김치 등의 판매 장터를 열었다. 본당 교우들은 순창성당 교우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순창성당은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경로잔치

김 신부는 부임 후 한 달이 지난 12월 말, 지역 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떡국 잔치를 베풀었다. 왕십리성당 재임 시절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자주 마련해 온 김 신부는 효자 신부로 불리며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을 심어줬다.

이웃 성당 신축기금 후원

1994년 1월 23일 강남구 포이동의 낙후되고 협소한 본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2차 현금과 신립서를 모집한 결과 교우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같은 해 4월 24일에는 성전 건립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기성당 신축을 위하여 2차 현금 및 신립금으로 총 4,677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3) 공동체를 통한 친교와 신앙 교육

가정 방문을 겸한 구역미사 재개

김 신부는 구역과 반모임의 활성화가 소공동체 운동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1994년 1월 17일부터 가정방문을 겸한 구역미사를 했다. 가정방문 미사는 쉬는 교우를 찾아 회두함과 동시에 교적을 정리하여 본당의 교우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당 교우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사목위원

레지오 마리에 활성화를 위한 단원 교육 및 기타 행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레지오 마리에 단원 교육도 강화했다. 1994년 2월 28일에 조금양 마태오 세나투스 단장 초청 강의를 있었는데 조 단장은 성모님의 군대로서 투철한 정신무장으로 천상의 모후께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3월 13일에는 본당 대성전에서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와 성모성심 꾸리아 소속 전 단원이 아치에스 행사를 통해 악의 세력과 싸울 힘과 축복을 받았고, 4월 25일에는 전 단원 합동 피정을 실시했다. 5월에는 본당 지침에 따라 '본당은 우리'라는 주제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당은 우리’ 행사를 마친 M.E.(1994. 5. 1.)

신심 강화를 위한 특강

대림 특강은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당 대성전에서 개최됐는데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매일 3~4백명의 교우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이 특강은 교우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 평소 교우들의 재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김 신부는 1994년 3월 박대웅 신부를 초청하여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한 특강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400여 명이 참석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 기도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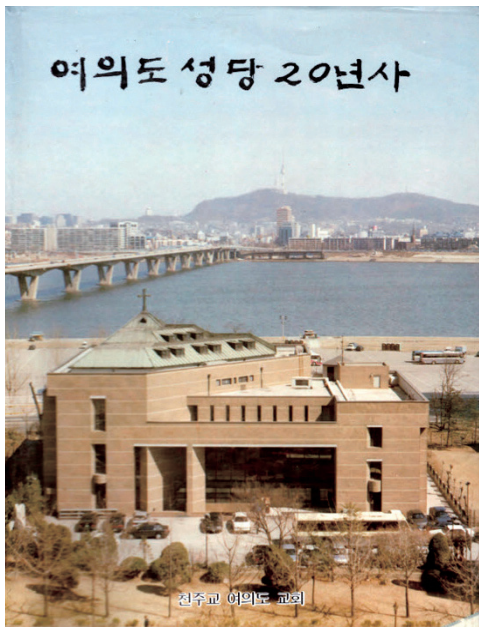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7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지역의 본당과 수도회 등 221곳에서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가 열렸다. 유해 행렬 순서는 향→초상화→꽃가마→사제→복사→성가대→평신도 순으로 이루어졌다. 여의도동 본당도 순회기도회 9일 전부터 ‘9일 기도’를 하며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기리는 기도회에 동참했다. 또한, 교우들은 9월 15일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1996. 9.)

개최된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에도 참석했다.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2대 김택암 신부 재임 기간인 1984년에 103위 시성식을 기념하여 개최됐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본당 교우들은 김대건 성인에 대한 공경과 순교자 신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여의도동성당 20년사 발간



20년사 발간(1995. 3. 31.)



김 신부는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의도성당 20년사』 편찬을 계획했다. 본당 20년사의 발간 취지는 20여 년 걸어온 본당의 발자취를 되돌아 봄과 동시에 앞으로 여의도동 본당을 유구히 이어 나갈 미래의 교우들에게 이를 전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 편찬작업에 착수하여 1995년 3월 발간하였다.

편찬과정에서 편찬위원들이 마주한 가장 큰 난제는 사진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전출 교우들을 비롯해 많은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년사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본당의 설립 과정, 초대 최용록 주임신부부터 5대 김승훈 주임신부 재임까지 사제와 수도

자, 본당 교우들의 눈부신 활약상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본당 20년사는 현재의 50년사 편찬 과정에서도 여의도동 본당의 역사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4) 김승훈 마티아 신부를 회고하며

김 신부를 기억하는 당시 허회 바오로 연령회장의 회고 내용 중 일부를 『여의도본당 20년사』에서 발췌했다.

언젠가 혼배미사에 참석했더니 신부님께서 강론을 마치시고 신랑 신부에게 매일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1단이라도 바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손에서 묵주가 떠나있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당 마당을 산책하면서도 묵주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려운 성당에서 도움을 청해오면 교우들에게 부탁하여 도와주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꼭 도와주는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제로서 전심전력으로 사목하셨던 신부님.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시려 내 한 몸 희생양으로 내놓으셨던 신부님. 사회가 어지러울 때 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로서 그 어려웠던 시절,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던 신부님, 감사합니다.

위로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 마티아 신부님 목자로 가시는 길에 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3. 제6대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 (1996. 10. 11.~1998. 10. 8.)

(1) 사제와 수도자

제5대 김승훈 마티아 주임신부가 시흥동성당으로 이임하고,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가 1996년 10월 11일 여의도동 본당 6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김 신부는 1972년 사제품을 받고 이문동성당 보좌신부로 첫발을 내디뎠고 군중신부를 거쳐 대림동성당,



부임 환영(1996. 10. 11.)

성산동성당 주임신부를 역임했다.

1998년 10월 김정직 신부는 여의도 동성당에서 사목활동을 마친 후 연희동성당 주임 겸 제2지구장으로 이임했다. 이후 후곡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했으며 2007년 9월 18일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 후 원로사목자로

활동하다가 2016년 11월 21일 75세로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24일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됐으며 유해는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김 신부 재임 중 보좌신부는 한철호 라이문도 신부, 이재경 요한 신부, 황영욱 루카 신부이며 원장 수녀는 장영자 아가타 수녀이다.

1997년 7월 5일에는 본당 출신의 김환수 가비노 신부가 사제품을 받았고 2025년 현재 반포1동성당 주임신부로 재임 중이다.

(2) 사목활동

당시 교우가 4천명 이상이면 본당을 분할하는 것이 서울대교구 방침이었는데 1994년 기준 여의도동성당의 신자 수는 7천 명이 넘는 상태였다. 부임 후 본당의 현황을 파악한 김 신부는 아파트로만 형성된 여의도의 특성과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본당 분할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교구에 전달했다.

구역분과의 활성화

김 신부는 다가오는 대희년과 새천년기의 복음화 운동에 부합하는 사목활동을 위해 먼저 본당의 안정을 되찾고 신자들의 친교와 내실화 작업을 위하여 소공동체 운



건진성사(김육균 바오로 주교 주례 1998. 3. 28.)



동을 전개했다. 구역분과를 남성구역분과와 여성구역분과로 나누었으며, 특히 남성 구역분과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접 남성총구역장을 맡아 활동했다. 김 신 부는 남녀구역장, 반장들에게 월 1회 ‘복음 나누기 운동’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복음 화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전신자 복음나누기 7단계 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구역별 성 지순례, 피정, 연도대회 등을 통해 구역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활동비로 연 100만 원을 지원했다.

청년 조직 강화

청소년 사목에도 중점을 두어 본당 예산의 10%를 청소년 사목활동비로 책정했다. 청소년 분과 소속 청소년 사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부, 초중고등부, 기획부를 운영했으며 청소년들의 사목활동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성소후원회 발족

김 신부는 본당 출신 신학생들의 양성을 위해 성소후원회를 발족했다. 후원회는 본당 교우들의 후원금으로 신학생의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성소에 관심 있는 복사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하여 신학교 입학을 권장했다.

대희년 준비

1998년은 서울대교구에서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성령의 해’로 지정된 해였다. 이에 본당에서는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성령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성서의 회년 1·2권’과 ‘성장에서 변화’를 교재로 월 1회 공부 모임을 가졌다. 또한, 구역과 반 모임에서도 ‘복음나누기’를 통해 가난한 이들,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동포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대희년의 축복이 모든 이에게 내릴 수 있기를 기도했다.

가정의 성화와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 봉헌

김 신부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매월 첫째 목요일을 ‘가정기도일’로 지정하고 기도문을 직접 작성했다. 김 신부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관한 강좌와 토론회를 자주 개최했으며 교구에서 주관하는 ‘행복한 가정운동’과 M.E.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청년 단체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 부부간의 대화 방법,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혼인 전 교리 교육을 강화했다.



김수환 추기경 환영



견진성사(1996. 11. 23.)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7년 4월부터 매 주 봉헌되는 교중미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복사를 서는 ‘가족복사’ 제도를 도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포함하는 일가족 4명이 복사에 참여토록 허용하여 복사에 참여하는 가족은 물론 일반 교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복사를 서는 가족은 처음에는 쑥스러워 했지만 가족복사를 통해 가족 간의 화목과 신앙을 키울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가족도 늘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았다. 이에 본당은 1998년 1월 5일부터 1999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을 IMF 국난 극복을 위한 54주간 특별기도기간으로 정하여 경제 회복을 지향하는 기도를 했다.



성모의 밤

(3)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를 회고하며

당시 전례단에서 봉사했던 한 교우는 김 신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대지로 돌아가는 이 계절, 그리운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야윈 얼굴, 선하고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진 신부님은 늘 조용하고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한 주간의 바쁜 성무를 끝내고 쉬는 월요일이면 근교의 삼촌 주교님(고 김옥균 주교님)의 농장으로 달려가곤 하셨지요. 어느 날 신부님은 제가 속해 있던 단체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넓은 밭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초록빛을 내며 앞다투어 자라나 있던 각종 채소들을

마주하는 순간 저희 모두는 “농심은 천심”이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신부님은 밀짚모자에 작업복, 장화까지 신으신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이셨습니다. 혼자서 그 넓은 밭을 가꾸고 계셨다니요. 갓 따온 채소와 쌈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는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 하시며 여러 대의 차에 무, 배추, 고추, 파 등을 가득가득 실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소중한 체험은 함께했던 저희 모두에게 활력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신부님은 여의도동 본당에 계시면서 큰 어려움도 겪으셨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평온하셨던 분. 본당을 떠나신 후 삼촌 주교님의 노환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지면서 선종하실 때까지 그 곁을 지키시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교님을 보내 드린 후, 세상의 무게를 다 내려놓으신 듯 더할 수 없이 가벼워진 몸으로 그토록 염원하시던 하느님 곁으로 훌훌 떠나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뵈옵는 영광 안에 계시길 믿습니다. 신부님! 다시 뵈올 수 있는 그 날까지 천국에서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3장 2000년 대희년의 시작과 본당 설립 30주년(1998~2004)

1. 제7대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1998. 10. 9.~1999. 9. 30.)

(1) 사제와 수도자

1998년 9월 25일, 서울대교구 사제인사를 통해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가 제2지구장 겸 연희동 성당 주임신부로 이임하고, 10월 9일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제7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부임 환영(1998. 10. 9.)



김 신부는 1년여의 짧은 재임 기간에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역동적인 사목 활동을 전개했다. 1999년 9월, 지구장 겸 의정부2동성당(現 의정부교구 주교좌 의정부성당) 주임으로 이임했으며, 2025년 현재 안식년을 지내고 있다.

함께 사목했던 보좌신부는 이재경 세례자요한 신부, 황영옥 루카 신부이며, 당시의 원장 수녀는 정영자 아가다 수녀, 송복기 안나 수녀이다.

(2) 사목활동

사목협의회 개편

김 신부는 부임 후 가장 먼저 사목협의회를 개편했다. 이때 역점을 둔 것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젊은 세대가 12대 사목협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한 점이다. 또한, 교구 평신도 사목국이 강조한 소공동체 활성화와 선교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역분과와 선교분과가 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한편, 교구의 사목 지침에 따라 본당의 사목 방향을 정한 후 사목위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우리 본당이 최고의 본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조하면서, 임명된 젊은 분과장들에게 부족한 경험으로



사목 위원 임명(1998)

위촉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구역개편 및 꾸리아 재정비

소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12개 구역을 30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남성구역의 일부에서 세분화에 따른 소속 인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 구역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본당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 본당 관할 구역에서 참석하는 브레시디움 단원은 소속 본당으로 전출하도록 했다. 이때 브레시디움의 수와 단원이 축소됐는데,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 소속 19개 브레시디움이 14개로 줄면서 기존의 200명 단원이 147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성모성심 꾸리아에서도 나타났는데 15개 브레시디움이 13개로 줄면서 182명의 단원이 142명으로 감소했다.

성경 지참과 전례의 변화

1998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김 신부는 미사 때 매일미사 책 대신 성경을 지참하여 시편 화답송을 바치도록 했다. 이는 성경을 가까이함으로써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매일미사 책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교우들은 이러한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미사 때의 성경 지참은 제8대 정광웅 요셉 신부가 부임한 후 매일미사 책 사용을 다시 허용할 때까지 이어졌다.

예비신자 교리교육

김 신부는 기존의 교리교육 방법을 새롭게 바꿨다. 받아들이는 예식을 추가했으며, 교재도 ‘초대받은 당신’에서 ‘함께하는 여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발맞춰 교육 방법이 주입식에서 나눔식으로 바뀌면서 봉사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 여성구역과 남성구역에서는 봉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나

눔을 위한 회합실을 확보하기 위해 성당 지하 공간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했다.



세례성사

가두선교

사목협의회는 김 신부의 사목 방침에 따라 선교분과가 주축이 되어, 선교사례의 경험이 뛰어난 대구, 대전, 인천 지역 성당을 5회에 걸쳐 방문하여 선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 3월 9일부터 본당 설립 이후 첫 가두 선교를 실시했다.

가두선교는 구역별로 이루어졌다. 각 구역에서는 피켓과 인쇄물을 준비하여 안내띠를 두르고 아파트에 선교 포스터를 붙이며 여의도 거리를 행진했다. 이 선교 행진에는 남성 꾸리아도 함께했다. 남성 꾸리아에서는 브레시디움의 행동 단원들이 길가에 야외 벤치와 파라솔을 설치했다. 또한, 간단한 음료수를 준비하고 본당 안내서와 선



혼인 갱신식



청년들과 함께

교 관련 팸플렛 및 사진 등의 전시를 통해 가두선교에 동참했다.

(3)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를 회고하며

그 당시 유년회 아오스딩 사목회장은 김 신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은 우리 본당에서 사목하신 주임 신부님 가운데 가장 젊으셨던 신부님으로 기억합니다. 신부님은 여의도동 본당을 활기 넘치는 젊은 본당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목회에서는 열띤 논의도 했었지요.

김 신부님이 강조하셨던 성경의 생활화와 전신자 이름표 달기 등을 통해 본당 교우들의 신심이 더욱 깊어졌던 일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노약자를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분들이 편안하게 위아래층을 다닐 수 있도록 전용 리프트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리프트는 시설 개선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제8대 정광웅 요셉 신부(1999. 10. 1.~2004. 9. 21.)

(1) 사제와 수도자

1999년 9월 30일,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지구장 겸 의정부2동성당(現 의정부교구 주교좌 의정부성당)으로 이임하고, 명일동성당의 정광웅 요셉 신부가 제8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정광웅 신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을 맡아 북한주민돕기와 민족화해를 위한 연대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2004년 9월, 등촌1동성당으로 이임한 후 가락동성당 주임을 거쳐 2014년 9월, 42년간의 현장 사목 활동을 완수했다. 현재 원로사목자로 사목 중이다.

함께 사목했던 보좌신부는 황영욱 루카 신부, 김종한 베네딕토 신부, 황현 미카엘 신부, 박성욱 엘리야 신부, 이응제 베드로 신부,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최형규 미카엘 신부이며, 당시의 원장 수녀는 송복기 안나 수녀, 김정자 빠르빠뚜아 수녀이다.

(2) 사목활동

성경 읽기와 쓰기

2000년 2월 18일,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성서 40주간’을 시작했다. 정 신부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교우가 성경 읽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오전반에 6백여 명과 직장인을 위한 저녁반에 150여 명이 참여하여 본당 전체는 면학의 열기로 가득 찼다.

또한, 2002년 구약성경 쓰기에 이어 2003년 신약성경 쓰기를 마치면서 필사본을 전시하고 이듬해 3월 시상식을 가졌다. 성경을 필사한 교우들에게 이 필사본은 자랑스러운 신앙 실천의 산물로서 귀중한 애장품이 됐다.



상임회의

교육과 피정

2003년 3월 사순시기 피정 프로그램으로 수원교구 시화성바오로성당 주인배 베드로 신부를 초빙하여 ‘나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와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해 12월에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서강대 교수인 예수회 송봉모 토마스 신부를 초

빙하여 ‘은총의 고백성사’와 ‘임마누엘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묵상했다. 이날 550여 명의 교우가 강의를 들었는데, 타 본당 교우들도 참석하여 함께 거룩한 성탄을 준비했다.

말씀의 생활화

정 신부는 사회가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신앙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사회의 어두운 면이 개선되고 변화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가정이 미사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첫째, 매일 첫째 주일을 ‘본당 가정 성화의 날’로 정하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가정 성화를 이루도록 했다. 둘째,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침묵을 지켜 기도 중인 다른 교우에게 분심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셋째,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주일미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이므로, 미사에 늦거나 미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바르고 참된 예배를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신자 성지순례

2003년 10월 25일, 본당의 날 기념행사로 배론성지를 순례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900여 명이 26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본당을 출발했는데 이동하는 차내에서 이날의 순례를 위해 103위 한국성인호칭기도와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시성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를 했다.

배론성지에서는 최양업 신부 묘



전신자 배론 성지순례(2003. 10. 25.)

소를 참배하고,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인 성요셉 신학당과 황사영 알렉시오가 백서를 썼던 용기굴을 가장한 토굴, 그리고 전시된 황사영 백서를 보면서 신앙 선조의 삶을 묵상했다.

전신자 성지순례는 체육대회, 성가대회와 더불어 정 신부의 재임 기간에 처음 마련된 뜻깊은 행사였다.

나눔

정 신부가 부임한 1999년 대림절부터 나눔 사랑 주머니 모금을 시작했다.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절약과 극기로 정성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는데 매년 3천만 원 이상이 모금됐다. 정 신부가 이임할 때까지 모금된 1억 8,900만 원을 개인 149명과 172개 단체에 전달했다.

전신자 체육대회

정 신부는 본당 교우들의 신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단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10월 8일 본당 설립 후 처음으로 ‘본당의 날 체육대회’가 국회의사당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800여 명의 교우가 단합된 힘과 숨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는데, 특히



본당의 날 체육대회(2000. 10. 8.)



본당의 날 체육대회(2000. 10. 8.)

교우들과 한팀을 이루어 힘차게 달리는 정 신부의 축구 경기 모습에 모두 힘찬 응원을 보냈다.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2004년은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는 해였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본당 교우들은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1월부터 매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쳤다. 그 결과 1월부터 11월 말까지 134만 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할 수 있었다.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2004)

또한, 2월부터 9월까지 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를 다 함께 기도드렸다. 2월부터 11월에 걸쳐 신앙학교를 개설했는데, 박용수 바오로 선



필리핀 독립 106주년 기념미사(2004. 6. 13.)

교사의 강의를 통해 400여 명의 교우가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매월 다른 내용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

2004년 6월 13일, 필리핀 독립 106주년 기념 미사가 본당에서 봉헌됐다. 필리핀 주교가 주례한 이날 미사에는 필리핀 대사 부부와 서울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필리핀 교우가 참석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본당 교우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6월 27일,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가정 성화와 부부 일치를 위한 혼인갱신식이 있었는데 50쌍의 부부가 참여했다. 정 신부는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감싸주며 이웃에 봉사하는 거룩한 성가정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혼인갱신식은 혼인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혼인 생활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혼인갱신식(2004. 6. 27.)



또한 9월 11일 성가 발표회, 12일 기념미사 및 축하식, 17일 오르간 연주회 등을 개최하였다.

(3) 정광웅 요셉 신부를 회고하며

당시 본당에서 활동했던 조운곤 요셉 전 사목회장은 정 신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정광웅 요셉 신부님께서서는 조용하시고, 온화하신 성격을 가지셨으나 사목활동에서의 추진력은 대단하셨습니다. 부임 몇 개월 뒤 2000년 대회년이 시작되면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서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40주간을 추진하시고, 주간반 600여명, 저녁반 150여명의 학습반을 조성하여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당의 재정 건전과 투명성을 강조하시며 십일조의 정신으로 교무금 납부 당위성을 역설하시며 납부 내역을 구역별, 개인별 주보 간지에 공지하여 본당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본당의 날 기념행사인 배론성지순례는 버스 26대와 900여명의 교우가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기도와 친교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50년 본당의 발자취에 한 페이지로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0주년 개막미사에도 참석해 주시어 감사하였으며 항상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3편

본당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제1장 본당의안정과교세 확대 (2004~2022)

1. 제9대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
2. 제10대 최선웅 야고보 신부
3. 제11대 구본영 바오로 신부
4. 제12대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

제2장 본당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 (2022~현재)

1. 제13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

50년을 되돌아보며



1974-2024

제1장 본당의 입장과 교세 확대(2004~2022)

1. 제9대 김충수 보나파시오 신부(2004. 9. 21.~2009. 9. 1.)

(1) 사제와 수도자

김충수 보나파시오 신부는 2004년 9월 21일부터 2009년 9월 1일까지 여의도동성당의 주임신부로 사목하였다. 김 신부는 1970년 12월 8일 사제 수품 이후 1971년 후암동성당 보좌를 시작으로 도림동성당 보좌를 거쳐 1974년부터 가좌동·청파동·길음동·문정동·신대방동·문정2동·여의도동성당 주임을 역임했다. 2009년 9월 2일부터 2013년 8월 25일까지 암사동성당에서 사목한 후 현재는 원로사목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9대 김충수 보나파시오 주임신부와 제18대 김영철 시메온 보좌신부가 함께 부임하여 2004년 9월 21일 첫 환영 미사를 봉헌했다. 주임신부와 보좌신부가 동시에 부임하여 교우들은 두 배의 기쁨으로 환영했다.



김충수 보나파시오 신부 부임 환영(2004. 9. 21.)

김 신부 재임 동안 호흡을 맞춘 보좌신부는 김영철 시메온 신부, 김진규 다니엘 신부, 김진호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이다. 2024년 현재 김영철 시메온 신부는 중앙동성당의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으며, 김진호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는 현재 서울대교구 주교좌 기도 사제로 사목을 하고 있다. 김진규 다니엘 보좌신부는 2013년 12월에 안타깝게도 36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하여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잠들어 있다. ‘김 신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를 기도한다.

김 신부의 재임 기간 43대부터 50대까지 8명의 수도자가 함께 활동하였다. 김정자 빠르빠뚜아 수녀, 오순복 아나스타시아 수녀, 김복희 방지거 수녀, 김경진 마리아막 달레나 수녀, 고성아 아가다 수녀, 박정자 아가다 수녀, 함영자 막달레나 수녀, 이선영 안젤라 수녀이다. 수도자들의 깊은 신앙심과 헌신은 본당 교우들의 귀감이 되었다.

김 신부는 아들 신부로 22명의 신부를 탄생시켰는데 그 중 2018년 사제 수품을 받고 현재 군중교구에서 주임신부로 활동하는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가 우리 여의도동 본당 출신이다.



김진규 다니엘 보좌신부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의 사제 서품(2018. 2. 4.)

(2) 사목 목표

김 신부는 부임 후 여의도동성당을 위하여 ‘이웃 사랑, 나와 내 이웃의 돈독한 신앙 생활, 그리고 유년 시절의 신앙교육’ 등에 관하여 5가지 사목 지침을 발표했다.

첫째, 긴축과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 배가

- 긴축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가하자.
- 어려움에 처한 타 본당이나 기관을 적극 후원하자.

둘째, 구역 미사를 통한 쉬는 교우 회두 권면

- 구역 미사를 통해서 구역을 활성화하고 쉬는 교우와 외딴 교우 가족에게 신앙을 전하자.

셋째, 신자 재교육을 통한 신앙심 회복

- 사순 특강과 대림 특강과 같은 신자 재교육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자.

넷째, 복음 선포의 구체적 실천으로 1인 1명 이상 선교

-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재인식하여 1인 1명 이상의 예비신자 인도를 의무화하자.

다섯째,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 인식

- 부모 대상으로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여 주일학교 참석률을 향상을 시키자.
- 자녀 신앙 교육을 강조하여 모든 교우와 학생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하자.

이러한 사목 지침에 따라 활동하던 중 성전 보수 및 증축 사업이라는 뜻밖의 어려운 소명을 받게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소명을 완수한 결과 현재의 성전 모습을 갖추게 됐다.

김 신부는 우리 본당으로 부임하기 전 여섯 곳의 부임지에서 성당 신축 및 증축 경험 이 있었다. 여의도동 본당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 없이 일반 사목에만 중점을 두고 사목을 시작했으나 성당 보수 및 증축 소명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신축과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항상 함께한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은 늘 김 신부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 일환으로 2006년 아프리카 잠비아의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 ‘사



사랑의 콘서트(2006. 4. 26.)

랑의 징검다리' 자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에는 가수 인순이가 출연하여 진심 어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며 교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쉬는 교우 회두권면과 1인 1명 이상 선교

① 구역 미사

김 신부는 본당 모든 교우들을 대상으로 구역 미사를 시작했다. 미사 봉헌 후에는 각 가정마다 정성스럽게 친교 시간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었다. 2005년부터는 남성 구역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다.

재임 기간에 17구역의 자이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김 신부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었다. 각 가정 에 들어서면 '웅장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장엄하다, 깨끗하다...' 등 각기 다른 미사여구로 칭찬을 하여 교우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각 가정의 축복이 끝난 후 한 교우 집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저녁식사를 했는데 축복받은 입주 교우들에게는 가슴 벅차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② 선교 활동

“남을 위한 신앙, 즉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느님께 가지고 가서 낮게 해 달라고 청원을 드린다는 것은 사랑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 말은 2007년 7월의 강론 내용으로, 김 신부는 남을 위한 신앙이 진정한 선교이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교우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대세를 받은 고인의 장례 절차를 돕는 등의 유가족을 위한 모든 선행은 비신자 유가족을 교회 내로 이끌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중요한 선교라고 말했다.

매년 봄에는 교중미사에서 예비자 입교식 및 환영식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합류하는 이웃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예비자 교리와 친교 행사

에 참석하며 본당의 소중한 구성원이 됐다. 또한, 65세 이상의 교우와 비교우 어르신을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하고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가두 선교 활동을 통해 여의도동 본당과 한국 천주교를 주변에 널리 알렸다.



건진성사(박순재 라파엘 몬시뇰 주례, 2005. 11. 5.)

신자 재교육과 유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

① 신자 재교육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온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새기고 자 매년 대림특강을 마련했다. 2004년 12월 대림특강에는 구요비 읍 신부(현재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2회에 걸친 특강에서 ‘성탄에 나타난 주님의 아름다움’, ‘온유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가난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2005년 12월에 있었던 김준수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동방박사의 마음으로’라는 주제의 특강은 성탄절의 깊고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2006년에는 3차례에 걸친 대림 특강이 있었는데, 그 중 한번은 가톨릭신문사 사장 이창영 바오로 신부를 초빙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순 특강도 거의 매년 실시하였는데, 2006년에는 ‘소공동체와 복음화’, ‘고백성사의 은총’을 주제로 김요성 바오로 신부가, 2008년에는 ‘일상의 부활’을 주제로 유은희 수녀가 특강을 했다.

2006년 2월부터는 전신자성서읽기를 시작하였고 2008년은 ‘성경 읽기와 쓰기의 해’

로 지정하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강건한 신앙을 키웠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집결시키기 위해 7주 동안 여의도동성당 성령 세미나를 8회에 걸쳐 개최했다. 본당 가정 성화의 날에는 가정 공동체 기도문인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며 실천한다.’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영화 ‘기적’을 본당에서 상영하여 우리 교우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또한, 오르간 연주회를 개최하여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미사곡과 종교음악을 감상했다.

2006년 5월 10일 여의도동성당 ‘은혜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주제로 왕영수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의 특강 후, 생활 성가 부부 듀엣으로 유명한 강승식 시몬·이윤희 데레사 부부의 감미롭고 심금을 울리는 찬미가 있었다.

② 유년기의 신앙교육

사목 지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김 신부는 초중고등부의 유년 시절 교육과 신앙을 매우 강조했다. 학생들의 주일학교 출석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미



복사단 졸업기념(2004. 12. 18.)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와 청년(2009. 8. 30.)

래 희망인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의 신앙 교육에 모든 부모와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하여 김 신부와 보좌신부는 교중미사와 학생미사를 교대로 주례하였다. 이 미사에서 학생들이 복음 말씀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뜻을 새길 수 있도록 퀴즈를 내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사와 주일학교에 흥미를 갖도록 했다.

2009년에는 주일학교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여 유년 시절의 신앙 및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일마다 미사 봉헌에 봉사하는 복사단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독려했다.

(3) 본당 설립 기념행사 및 『여의도성당 30년사』 발간

본당 설립 기념행사

본당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는 매년 이루어졌다. 김 신부 부임 후 2004년에는 절두산 순교성지로 전신자 도보순례를 했고, 이후 2005년 기념일에는 ‘전교우 떡나눔 행사’가 조출하게 치뤄졌다. 2006년에는 국회 뒷편의 한강 둔치 운동장에서 본당 설립

33주년을 기념하는 본당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는 홍주순교성지로 전신자 순례를 했으나, 2008년은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본당의 날 행사를 할 수 없었기에 특별한 행사 없이 미사만 봉헌했다.

① 절두산순교성지 전신자 도보 순례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행사는 절두산순교성지 도보 순례였다. 이 행사는 사목협의회가 주관을 하였고 여성 구역과 남성 꾸리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진행됐다. 900여 명의 교우들이 여의도에서 절두산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의 투철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절두산성지에서는 야외미사를 봉헌했다.



절두산 순교성지 전신자 도보 순례 및 미사(2004. 10. 10.)

② 홍주순교성지 전신자 성지순례

김 신부는 재임기간 두 차례의 전신자 성지순례를 추진했는데, 2007년에 본당 설립 33주년을 기념하여 홍주순교성지로 전신자가 성지를 순례했다. 홍주순교성지는 기차를 임대하여 영등포역에서 홍성역까지 기차로 이동하였고, 홍성역에서 성지까지 홍성군청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차도를 이용하여 걸어서 순례했다.

900여명의 본당 순례객은 천주교 박해 당시의 순교지인 홍성군청 여하정 앞 잔디밭에서 미사를 봉헌하였고, 미사헌금 전액을 홍주순교성지와 홍주성지성당에 후원하

여 빠른 성역화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한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의 이웃돕기 성금은 홍성군에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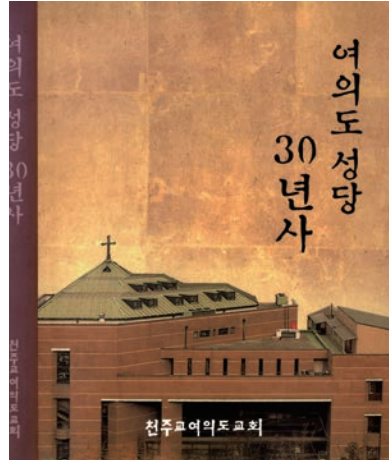
이 순례에서 홍성군청은 미사 장소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고, 경찰서는 우리 교우들이 안전하게 순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줬다. 여기서도 우리 본당의 저력과 견고한 신앙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됐다. 우리 본당 순례단의 진지함과 투철한 신앙심을 보면서 홍성군 군민들이 가톨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했다.



홍주순교성지 미사(2007. 9. 12.)

『여의도성당 30년사』 발간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1년여 동안 준비해온 30년사가 2004년 12월 25일 출간됐다.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의 발간사와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8대 정광웅 요셉 주임신부의 축사를 서두로 하여 우리 본당의 산 역사를 그대로 담은 30년사는 여의도 개발에서 시작하여 2004년까지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역동적인 발자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여의도성당 30년사 발간(2004. 12. 25.)

30년사에는 성모병원 마루방을 빌려 봉헌한 미사부터 시범아파트 거실에서 봉헌한 미사와 2004년 당시의 성전에서 봉헌하던 미사까지의 역사가 글과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30년간 9명의 주임신부, 17명의 보좌신부, 43명의 수녀가 본당을 위하여 헌신했고 평신도는 봉사와 희생으로 여의도동 본당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다.

여의도동 본당 20년사와 30년사를 보면 역대 주임신부와 보좌신부, 수녀 및 평신도들의 훌륭한 발자취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3세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 신앙을 받쳐주고 계시므로, 우리 교우들도 30년을 맞으며 향후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을 다짐했다.

(4) 성전 보수 및 증축

1984년부터 사용한 성전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고, 성전의 보수 및 증축을 희망하는 교우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성전 증축에 대하여 약 1년 동안의 검토와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8년 1월부터 성전보수 및 교육관 증축 공사금 봉헌 약정서가 배부되었는데 2월 2주 동안 83명

으로부터 17억 5,000만 원의 약정을 받았다. 2008년 8월 3일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주례로 성전 보수·증축 기공식 미사와 기공식을 하고 본격
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성전 보수·증축 기공식 미사(2008. 8. 3.)

2009년에는 공사로 인하여 사제관, 수녀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개월간 자이
오피스텔에서 임시 거주했다. 13개월에 걸친 공사가 완료되면 염수정 안드레아 주
교를 다시 모시고 축성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의 지연으로 축성식 일
정이 미루어져 김 신부는 축성식을 하지 못한 채 9월 1일 다음 임지로 떠나게 됐다.

마지막 보수 및 증축 완공 후 축성식을 하지 못하고 다음 임지로 떠난 것을 김 신부는 제일 아쉬워했다.

(5) 김충수 보니파시오 신부를 회고하며

당시 사목회장이었던 조운곤 요셉 회장은 김충수 신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김충수 신부님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은 훌륭한 강론과 노인들에 대한 큰 관심입니다. 신부님은 특유의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교우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강론을 해 주시곤 하셨지요. 또한, 연세높으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아 남성 교우들이 노인이라는 호칭을 불편해한 것을 안 신부님은 활동 단체명에 노인이라는 말 대신 활동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2009년 홍성의 홍주성지로 떠난 기차성지순례는 교우들과 신부님의 호응이 함께 어우러져 성공리에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여의도동성당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성지순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의도동성당의 보수 및 증축에서도 두드러진 추진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제10대 최선웅 야고보 신부(2009. 9. 1.~2014. 9. 2.)

(1) 사제와 수도자

2009년 9월 1일, 최선웅 야고보 신부가 제10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최선웅 신부는 1971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고 미아동(現길음동)성당을 시작으로 사목 활동을 했으며, 여의도동성당으로 부임하기 전 상계2동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2014년 9월 2일, 최 신부는 여의도동성당을 마지막으로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원로 사목자로 활동하다가 2020년 5월 24일 향년 77세로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교구사제단 공동주례로 5월 26일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으며 서울대교구 용인천주교공원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최 신부와 함께 사목했던 보좌신부는, 김진호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김은기 바오로 신부, 김필중 세례자요한 신부이며, 당시의 원장 수녀는 함영자 막달레나 수녀, 인재영 보나 수녀, 임춘자 아녜스 수녀이다.

(2) 사목 목표

최선웅 신부가 매년 발표한 사목 목표는 일관되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인 나눔을 실천하자.

우리는 나눔을 통해 변화해야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둘째, 신앙의 긍지를 지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겨운 세상에서 희망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주님께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셋째,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함께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자.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약속으로 가는 길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

최 신부는 본당 교우들이 사목 지침에 따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특히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그리고 교리 공부를 독려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의 실천인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나눔의 기회를 마련했

다. 김 신부는 나눔은 자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간직해야 할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사목위원

한국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행사 및 기념 표석

2009년 9월 19일 한국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행사 및 기념 표석 제막식이 여의도공원에서 거행됐다. 이 기념 행사는 ‘화해·나눔·증거’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표석에는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터 이 땅에 빛을! - 한국의 103위 순교자를 성인 반열에 올리노니 세계 교회가 공경하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기념 표석은 여의도공원에 있으며 우리 본당이 관리한다.



표석 제막식(2009. 9. 19.)



관리위임증(2009. 9. 19.)

103위 시성 기념 표석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터
이 땅에 빛을!
한국의 103위 순교자를 성인 반열에 올리노니,
세계 교회가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20~2005)께서 1984년 5월 6일에 이곳에서 한국
순교복자들을 성인 반열에 올리 이룰 온 세상에 선포
하신 것을 기리고자 이 돌을 세웁니다.

2009년 9월 1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니콜라오 정진석

신심 역량 강화

최 신부는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사랑하고, 나눔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당 교우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다.

① 성경통독

201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신구약 통독을 목표로, 매 미사 전 10분 동안 기도를 드리는 듯 성경을 읽었다.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본당 교우들이 총 340권의 성경책을 기증했는데, 성경책 안쪽에 기증자 이름을 표기하여 비치했다.

처음 목표한 대로 2년 후인 2013년 2월 24일 신구약 통독을 완료하여, 같은 해 3월 매 미사 전 성경 읽기 2회째를 시작했다. 2회째의 성경 통독을 완료하기 전에 최 신

부는 본당을 떠나 원로사목자로서 새로운 사목 활동을 시작했다. 미사 전 성경 읽기로 성전 안은 성경 읽는 소리가 가득했으며, 이 시간은 하느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② 성경필사

미사 전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한 달 후인 2011년 4월부터 여성 구역원을 대상으로 성경 쓰기를 시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당의 여러 단체 가운데 ‘반’과 ‘구역’이 기초가 되는 단체이며, 대다수의 교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여성 총구역 신약성경 쓰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반장 회의에서 쓰기 노트를 배부했다.

12월에는 구역과 반별로 성경 필사본을 제출했으며, 2012년 1월 8일 교중미사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말씀과 가까이’를 목표로 실시했던 성경 쓰기에는 25개 반이 참여하여 최다참여상, 빠른필사상, 최다참여지역상 등을 수상했다.

같은 해인 2012년 2월부터는 대상을 확대했다. 구역과 반을 비롯하여 가족, 개인, 단체 등 모든 교우가 창세기부터 말라키서까지 구약성경을 필사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필사하기까지는 약 3년이 걸려 2014년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전체 필사가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③ 성경공부

성경통독과 필사 외에도 성서100주간, 성서40주간, 그룹성경공부 등 최 신부의 사목 기간 내내 성경 공부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의 보좌신부였던 김은기 바오로 신부는 성경 공부 봉사자들에게 주 1회 신약성경을 강의했으며,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친 봉사자와 그룹원들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순례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우기 위해 사순시기와 대림 시기에는 특강을 들었다. 섭외가 쉽지 않았던 황창연 신부, 송봉모 신부, 차동엽 신부, 김혜윤 수녀 등을 초빙해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이들 명강사의 섭외가 가능했던 데는 최진옥 율리야나 교육분과장의 역할이 컸다. 이 모든 과정은 본당 교우들이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가톨릭성서모임 개근상 수여식

④ 가톨릭교회교리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했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가톨릭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추어, 교우들은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추천한 『가톨릭교회교리서』를 함께 읽으면서 신앙을 배우고 익혀 신앙의 증거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첫영성체(2010. 6. 8.)



세례식(2013. 5. 25.)

또한 2013년 5월 한 달 동안 ‘신앙의 해’를 주제로 신앙체험 수기를 공모하여 같은 해 7월,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험 수기를 책자로 만들어 교우들에게 배부했다.

2014년 5월 20일,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교재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민경일 신부를 초빙하여 특강을 들었다. 이어서 6월에는 ‘가톨릭교회교리서 읽기반’과 ‘바티칸공의회문헌 읽기반’을 개설하여, 성경 말씀의 핵심인 교회의 가르침을 익혀가며 신앙의 기쁨을 노래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을 이어갔다.

2014년 7월 15일, 교회 쇄신의 문을 연 교황 성 요한 23세를 그린 영화를 상영했다.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친교

최 신부는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려면, 사랑으로 행하는 나눔과 친교 그리고 기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곧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 신부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① 빵 나눔 잔치



오병이어(2010)

2010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6시 30분 미사 후에 빵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오병이어'로 명명했는데, 이른 아침에 식사를 거르고 미사에 오는 교우들을 위해 가정사목분과에서 정성껏 빵을 마련했다. 교우들의 빨랑카로 친교를 다지기도 했으나 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② 차 한 잔의 나눔

2011년 4월 10일부터 매월 셋째 주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약 30분 동안 '나눔의 방'에서 주일학교 자모를 위한 '차 한 잔의 나눔'을 했다. 이 시간은 가정분과에서 마련했으며 주일학교 자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배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친교를 다졌다.

③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

2011년 8월부터 매월 1회 주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에서 열린 구역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가 진행됐다. 매월 구역별로 '신부님과 함께하는 국수 잔치'를 열었으며, 보좌신부는 중고등부 학생과 가족이 봉헌하는 '중고등부 가족미사'를 함께 봉헌했다.

본당 설립 39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2013년 12월의 신부님배 바둑대회와 2014년 6월의 신부님배 테니스대회 등을 통해서도 교우들과 함께하려는 최 신부의 사목 방침을 잘 알 수 있다.

④ 본당의 날 행사

2011년 10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운동장에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본당 설립 37주년 기념 본당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내 장소를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려웠는데, 이곳이 행사장으로 결정되기까지 유희진 이냐시오 사목회장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컸다.

이날 교중미사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사당 대운동장에서 봉헌했다. 행사는 본당 교우들과 비신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에 참가자에게 초대장과 작은 선물 등을 전달하며 한층 분위기를 돋우었다. 모두의 기대 속에 열린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은 경품 추첨과 시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신자와 비신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당의 날 행사는 자연스러운 선교 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었다.

2013년 10월 1일, 본당의 날 행사로 평화방송 TV프로그램 ‘김지영 신부의 The 해피’ 녹화 촬영이 대성전에서 있었다. 이날 자리를 가득 메운 많은 교우들의 큰 환호 속에 뮤지컬 갈라콘서트팀 TOP을 비롯하여, 성악, 가요, 악기 연주 등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입장권 판매수익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됐다.



본당의 날 행사 - 체육대회, 장기자랑(2011. 10. 9.)

(3) 선교활동과 사회사목

과테말라 빠가야 화산 폭발 재해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

2010년 5월 27일 과테말라 수도로부터 50km 떨어진 빠가야 화산이 폭발했다. 당시의 이 화산폭발은 과테말라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만큼 규모가 컸다. 이 화산폭발과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입은 과테말라 형제자매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재해의연금 마련으로 7월 4일 미사 중에 2차 헌금을 봉헌했다.

북한과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

2010년 9월 5일, 대홍수의 큰 피해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와 파키스탄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재해의연금으로 2차 헌금을 봉헌했다.

미얀마 폐콘 교구 후원

2013년 10월 27일에는 ‘미얀마 폐콘교구’를 위한 2차 헌금 및 모금이 있었다. 폐콘교구는 2005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구로 주교좌 성당과 교육관 건축 기금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신월1동 성당 성전건립을 위한 후원

2010년 9월 26일, 본당 출신 사제이면서 신월1동성당 주임 김환수 가비노 신부가 신월1동성당 성전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본당을 방문했다. 교우들은 본당 출신 사제인 김 신부를 환대하면서 신립 약정금 1억 666만 원과 2차 헌금 872만 원을 봉헌했다. 이듬해 12월 24일 성탄 성야 때 신월1동성당에서 첫 미사 봉헌을 알리는 감사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사무실 앞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신월1동성당의 소식을 알렸다.

본당의 날 기념 자선 나눔 바자회

2012년 9월 23일, 본당 설립 38주년 기념 본당의 날 행사로 ‘자선 나눔바자회’를 열었다. 가전제품, 술, 도자기, 그릇 등을 기부받아 판매했으며, 재능나눔으로 그림, 도자기, 퀼트 등의 공예품과 프라모델 수집품 등을 기부받아 전시 판매했다. 이날의 자선 나눔 바자회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총 2,053만 원으로, 이 수익금은 살레시오회 다문화센터, 혜화동 비둘기집, 필리핀 면형공동체 빈민어린이 보육사업 등에 배분하여 기부했다.

제주도 서귀복자성당 유치원 건립기금

2013년 6월 15일과 16일의 미사에서 제주도 서귀복자성당 유치원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2차 봉헌을 통해 729만 원을 모금하였다. 또한, 감귤주스, 하귤잼, 꿀, 비타민 등의 물품 판매와 후원 접수가 있었다.

성모자애보육원 후원

2014년 2월 9일, 성모자애보육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이 있었다. 성모자애보육원은 노원구에 있는 아동시설로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져 지반이 흔들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새로 건축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날 2차 헌금 664만 원, 일시불 후원금과 약정금 1,019만 원, 혼배 축하쌀값 적립금 298만 원을 합하여 총 1,981만 원을 후원했다.

나눔사랑주머니

대림시기가 되면 여성구역에서는 ‘나눔사랑주머니’를 각 가정에 보냈고, 각 가정에서는 정성껏 이웃돕기 후원금을 모았다. ‘나눔사랑주머니’는 교우들의 정성이 가득 채워져 돌아왔는데, 이듬해 1월에 집계한 모금액은 2011년도 2,613만 원, 2012년도

2,664만 원, 2013년도 2,633만 원, 2014년도 2,250만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됐다.

본당 재건축 기금 마련

2009년 11월 29일, 서서울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주례로 지하 교육관과 성전 보수 및 증축 축성식을 가졌다. 그런데 그 후 수도, 온수, 가구 등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가 발생하게 됐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자 본당 교우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3월의 교무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여성구역은 직접 만든 깍두기와 새우젓, 미역, 다시마 등을 판매하면서 힘을 모았다. 그 결과 2014년 5월에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 보수 및 증축으로 인하여 미납됐던 교구 납부금을 완납할 수 있었다.

(4) 최선웅 야고보 신부 은퇴미사

최 신부의 은퇴미사는 2014년 8월 31일 정순택 베드로 주교와 원로사목자 여형구 미카엘 신부 등 사제단 공동 주례로 여의도동성당에서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최 신부가 사목했던 난곡동성당, 성북동성당, 삼성동성당 교우들도 참석하여 천여 명이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은퇴미사(2014. 8. 31.)



최 신부는 강론을 통해 “사제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사제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고했다. 최 신부는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여 여러 교우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5) 최선웅 야고보 신부를 회고하며

최 신부 재임시절 당시 사목회장을 역임한 유희진 이나시오 회장은 최 신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최선웅 야고보 신부님께서는 소탈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본당 교우들과 늘 소통하려고 하셨지요. ‘신부님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만 보더라도 신부님의 자상하신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몇몇을 꼽아보자면 국수 잔치, 신부님배 테니스대회, 바둑대회 등이 생각합니다.

매월 있는 여성 총구역과 남성 총구역 모임에는 사목회장도 함께 참석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본당 교우들의 희망 사항을 잘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였지요. 이렇게 교우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으시고 본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미사 전의 성경 읽기와 본당 설립 37주년 기념행사, 나눔사랑주머니 등이 사목회와 본당 교우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 신부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발적이면서 기쁘고 보람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 신부님께서는 사목위원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사제관으로 종종 초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본당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이때 신부님께서는 다과뿐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던 각종 알코올 함유 음료를 아낌없이 내놓으셨지요. 사목위원들이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신부님께서 소장 중이시던 음료들을 기분 좋게 소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당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신 최 신부님, 신부님이 계셔서 우리는 즐겁게 본당 일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

내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아쉬운 연세에 선종하셔서 안타깝고 항상 그립습니다.

3. 제11대 구본영 바오로 신부(2014. 9. 2.~2018. 8. 28.)

(1) 사제와 수도자

2014년 9월 2일, 구본영 바오로 신부가 제11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구본영 신부는 1987년 2월 6일 사제품을 받고 봉천동성당(現 중앙동성당)을 시작으로 세종로성당 주임신부를 거쳐 여의도동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2018년 8월 28일, 제4지구장 겸 길음동성당 주임신부로 이임한 후 안식년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이태원성당 주임신부로 사목 중이다.

함께 사목했던 보좌신부는 김필중 세례자요한 신부, 김성민 시메온 신부, 한정화 레오 신부, 성지운 이냐시오 신부이며, 당시의 원장 수녀는 임춘자 아녜스 수녀, 임성심 세실리아 수녀, 김은영 아가다 수녀이다.

구 신부의 재임 기간에 3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다. 2014년 11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이제훈 아오스딩 부제가 여의도동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2017년 2월에 서울대교구 이민구 프란치스코 부제가, 이듬해인 2018년 2월에는 김문강 크리스토폴 부제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본당 교우들은 새 사제가 탄생할 때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 새 사제가 본당에서 봉헌하는 첫 미사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성전을 가득 메웠다. 첫 미사는 새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을 받는 은총의 자리였다. 2024년 10월 현재,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는 미얀마에 파견돼 사목 중이며, 이민구 프란치스코 신부는 등촌3동

성당 주임신부로,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는 군종신부로 사목 중이다.

(2) 사목 목표

구본영 신부는 ‘생활의 복음화와 신앙화’를 사목 목표로 정하여, 재임 기간 중에 연속성 있는 사목 활동을 전개했다.

구 신부가 강조한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침묵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둘째, 회개와 용서,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자.

셋째, 자비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의로움과 자비를 증거하자.

구 신부는 교우들이 본당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자리를 마련했다. 교우다운 마음가짐과 신심 활동은 본당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당을 우리 손으로 가꾸고 보살피는 일이 본당 교우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의 본당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목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신심 역량 강화

구 신부는 본당 교우들의 신앙심을 끌어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우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칙서 읽기’, ‘성서 40주간’, ‘교구생명위원회의 참생명학교’, 구 신부가 직접 강의한 ‘금요교리교실’과 구 신부의 제안으로 실시한 ‘청소년 지구연합 견진교리 및 견진

성사' 등이다.

① 「자비의 얼굴」 (프란치스코 교황 칙서) 읽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를 자비의 특별 회년으로 선포하면서 회년의 주제를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로 정했다. 본당 교우들은 대림 시기에 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 칙서인 「자비의 얼굴」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② 성서 40주간

2015년 3월 6일에 '성서 40주간'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40주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다. 본당 교우들은 매주 6일 동안 각자 읽은 성경을 7일째에 함께 모여 강의를 들으며 그 주에 읽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다. 강의는 가톨릭성서모임의 전 사피엔시아 수녀가 담당했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듬해인 2016년 2월 12일까지 이어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우들은 40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생활화하면서 더욱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

③ 참생명학교

2015년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인 '참생명학교'가 개설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 생명과 가족, 부모가 됨, 생명의 수호와 돌봄, 삶의 마지막 시기의 윤리 문제, 사목적 배려와 돌봄 등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생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0주째 되는 날에는 전체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있었다. 이날 교육을 이수한 교우들은 생명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상



참생명학교 종강(2015. 11. 5.)

생활에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심했다.

④ 금요교리교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6개월 3학기에 걸쳐 실시한 ‘금요교리교실’은 구 신부가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사용 교재는 『가톨릭교회교리서』로, 이 책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담은 표준 교리서이다. 매주 금요일 저녁, 평소 교리 공부에 목말라 하던 본당 교우들은 구 신부의 강의를 통해 신앙 고백,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도 등 가톨릭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그리고 습득한 교리를 생활 안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금요교리교실은 7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교육 기간이 길었던 때문인지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친 인원은 30여 명에 그쳤다. 당시의 주일미사 참여 인원이 1,800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 본당 교우 가운데 약 2%에 해당하는 교우만이 마지막까지 교리 교육을 받은 셈이다. 구 신부는 ‘이와 같은 결과는 신앙생활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별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리교육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교리교육을 받은 후 신앙과 믿음에 변화가 생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교리교육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⑤ 청소년 지구 연합 견진교리 및 견진성사

2016년 11월, 서울대교구 제15지구 6개 본당의 중고등부 학생 130여 명이 대방동성당에서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주례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연합으로 치러진 견진성사는 교리 단계부터 성사까지 일련의 과정이 구 신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구 신부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당시 중고등부 학생은 성인 교우와 한 자리에서 성인 중심의 견진교리를 받았는데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참여 또한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눈여겨보던 구 신부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 결과 중고등부 학생은 눈높이에 맞는 견진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견진성사의 의미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다.

교재는 『유캣(YOUCAT)』을 사용했으며, 학생들은 소속 본당에서 중고등부 대상의 견진교리를 받았다. 성인 교우들과 함께 교리를 받을 때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 기간을 마친 후 제15지구 6개 본당의 중고등부 학생이 함께 모여 견진성사를 받는 기쁨 또한 컸다.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

구 신부는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심, 교육, 봉사 등에서 공동체의 활성화 없이는 본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임했을 당시에는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했다. 구 신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① 동호회 신설

구 신부는 신규 단체로 당구 모임과 걷기 모임 등의 동호회를 만들어 소공동체의 활동을 늘려나갔다. 본당 행사를 진행할 때는 사목협의회와 주임신부가 함께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 잡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았다.



본당의 날(2014. 9. 21.)



당구대회(2018. 2. 10.)

② 구역미사 신설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구역 미사가 봉헌됐다. 첫 구역 미사는 1지역 1~2 구역인 시범아파트 1~8동과 상가의 교우들이 봉헌했으며, 그 후 매주 1회 한 두 구역을 단위로 본당 교우의 가정에 모여 미사를 봉헌했다. 처음에는 50여 명이 시범아파트 교우 가정에 모였는데, 미사가 봉헌되는 가정에서는 거실 외에 방을 확장 배치하여 공간을 더욱 넓게 개방하기도 했다.

구역미사가 횃수를 거듭하면서 참석 교우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공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됐다. 여러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는 7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어 구역 미사를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에는 그와 같은 부대시설이 없어서 구역 미사를 봉헌하기 위한 충분한 장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구역미사(2016)

본당 지하 교육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구역미사의 본래 의미가 축소되면서 구역미사를 신청하는 구역도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구역들이 미사 참례 인원과 준비 상황 등을 점점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교우들은 가정에서 봉헌하는 구역미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비용 부담과 책임 소재 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우 가정에 모여 봉헌했던 구역미사는 중단하게 되었다.

③ 전신자 기차 성지순례

2016년 9월 3일,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전주교구 나바위성지로 전신자 기차 성지순례를 했다. 나바위성지는 1845년 10월 12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첫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곳이다.

이날의 순례는, 2016년 서울대교구의 사목 지침 중 하나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 선조를 기억하며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교우간 친교를 위해 마련됐다. 11량의 전세 기차를 이용했는데, 700명에 가까운 교우들이 참여했다.

순례에 대한 평가에서 매년 ‘전신자 기차 성지 순례’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낼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기차 이용 시에는 버스로 이동할 때와 달리 내부를 자유롭게 다니며 친교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원 통제가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이처럼 전신자 기차 성지 순례는 만족도는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전신자 나바위성지 순례(2016. 9. 3.)

있었으며, 새로운 방식의 성지 순례를 원하는 교우들의 요구도 있었다.

④ 가족과 함께 여의도 둘레길 걷기

본당의 위치가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함께 산책하며 친교를 이루는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매주 토요일 ‘사제와 함께하는 여의도 둘레길 걷기’가 시작되었는데 교우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걷기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보 완주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2시간 정도였으므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완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되돌아오도록 하는 등 둘레길 걷기는 탄력적으로 진행됐다. 걷기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곁들인 친교 시간을 가졌다.

여의도 둘레길 걷기는 1년 정도 이어졌는데, 횡수가 거듭될수록 참여하는 인원도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본당 교우들 간의 친교와 더불어 비신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



가족과 함께 여의도 돌레길 걷기

는 선교를 위해 ‘가족과 함께 여의도 돌레길 걷기’ 행사가 마련됐다.

2017년 6월 3일의 첫 걷기 행사에는 약 600명 정도의 교우와 가족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오후 3시에 성당 앞마당을 출발하여 돌레길 걷기를 마친 후에는 저녁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구역별로 친교 시간을 가졌다.

⑤ 성가대 정비

구 신부는 부임 초기에 성가대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의 성가대는 매월 행사 때마다 초빙한 전공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전공자들이 타 본당 교우이거나 심지어 비신자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구 신부는 하느님께 온전한 찬미를 봉헌하는 성가대 본연의 자세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성가대의 정비를 추진했다. 형식적인 성가대가 아닌 교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가대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구 신부는 지휘자를 새로 선발하고, 전공자라는 필수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비전공자에게도 문을 개방하여 새롭게 성가대를 구성했다.

구 신부가 새 지휘자에게 요구한 사항은, 첫째, 기본에 충실한 소리 내는 법을 익히게 할 것, 둘째, 성가를 부르기 전에 해당 주일의 복음과 성가의 가사를 읽고 묵상할

것, 셋째, 능력 이상의 어려운 곡은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였다.

⑥ 레지오 마리아 정비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이하, 레지오)는 3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본당의 여러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구 신부가 부임했을 당시에 레지오는 2개 남성 꾸리아와 2개 여성 꾸리아로 구성돼 있었다.



사도의 모후 Pr. 제2000차 주회(2017. 10. 12.)

남성 꾸리아 중에는 단원의 감소로 레지오 간부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뽀레시디움 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레지오 활동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구 신부는 뽀레시디움의 활성화를 위해 남성 2개 꾸리아를 1개 꾸리아로 통폐합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레지오 단원들이 회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았다. 회칙을 어기는 것은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레지오 마리아의 회칙에 의하면 단원이 교적을 전출했을 경우에 전입한 지역 본당의 레지오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단원들이 계속 우리 본당 레지오 단원으로 남아 활동하며 회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로 잡기는 쉽지 않았는데, 꾸리아 단장을 비롯한 일부 단원이 인간적인 정을 우선시하며 통폐합이나 단원 전출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레지오를 탈퇴했다. 이와 같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구 신부는 한결같은 방침으로 회칙에 충실하도록 정비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레지오는 4개 꾸리아에서 3개 꾸리아로 재정비됐다.

선교활동과 사회사목

구 신부는 일상의 삶을 복음적으로 살 것과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성당 마당에서 개최한 가족 가게 장터와 여러 기금 마련 행사는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교우들 간의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① 가족 가게 장터

2016년 6월 12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아나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당 마당에서 ‘가족 가게 장터’를 열었다. 이 장터는 가정 성화를 위해 마련한 가정의 달 행사였다.

본당 교우들은 5월 한 달간 가족 기도를 바치고, 특별히 가족 가게 장터가 열리기 2주 전부터 미혼모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이 행사는 주일학교 자모회가 주관했는데, 본당의 20여 가정이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 행사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자신이 기증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나눔의 가치와 기쁨을 체험했다.

장터의 수익금은 주일학교 자모회가 모집한 기부금, 기증된 유모차 및 유아용품 등과 함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미혼모자 시설 ‘마음자리’에 기부했다. 자모회의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간 지속되었다. 2017년 5월 28일 가정의 달 행



가족가게장터(2016. 6. 12.)

사로 개최한 ‘나눔 바자회’와 2018년 4월 1일 부활 대축일에 개최한 ‘주일학교 바자회’의 수익금과 기부물품은 모두 ‘마음자리’에 기부했다.

② 가톨릭농아선교회 후원

2015년 11월 1일, 가톨릭농아선교회 박민서 신부가 성전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당을 방문했다. 이날 후원 약정금 7,400만 원과 2차 현금 909만 원, 합계 8,309만 원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③ 원주교구 흥업성당 후원

2017년 11월 4일과 5일, 원주교구 흥업성당 성전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흥업성당 심한구 신부가 본당을 방문했다. 본당 교우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흥업성당의 사제와 수도자, 교우들을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2차 현금 1,477만 원, 성구봉헌 8,200만 원, 천사봉헌 3,522만 원, 성모봉헌 84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4,039만 원을 모아 흥업성당 성전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④ 대전교구 유구성당 후원

2018년 6월 9일과 10일, 대전교구 유구성당에서 성전 재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당을 방문했다. 유구성당은 토요일 저녁미사와 주일미사 전후에 인건 이불, 파자마 등의 물품을 판매했다. 판매액 2,340만 원과 신립금 6,057만 원을 전달했다.

구 신부는 우리 본당에서 지냈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본당공동체에 이렇게 부탁했다.

‘본당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어떤 면에서 고착화되고 변하지 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를 바란다. 고해성사에 비추어 말한다면, 지난 시간의 성찰과 성찰 뒤에 따르는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다. 이 새로운 다짐

은 곧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되는데,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고 또 정돈해야 한다. 보속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다. 보속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지,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느님을 닮았는지 성찰해보고 여의도동 본당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우리의 노력은 미미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 그 열매는 풍성할 것이다.’

(3) 구본영 바오로 신부를 회고하며

당시의 이병지 프란치스코 사목회장은 구 신부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구 신부님은 교우들의 잘못된 신앙 활동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신부님의 사목 방침에 반대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특히 레지오와 성가대를 새롭게 구성하려던 때의 저항은 매우 심했습니다. 일부 교우들은 불손한 태도로 항의하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신부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후 레지오는 점차 질서를 잡아갔고, 성가대도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구역미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구역이든 몇 명이 모이든 신부님께서 기꺼이 미사를 봉헌해 주신 것입니다. 전신자 여의도 돌레길 걷기, 기차로 떠나는 전신자 나바위성지 순례, 본당의 날 행사 등과 같은 큰 행사도 사목회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맡겨주셔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잘 해결되어 이제 좀 편해지실까 했는데 신부님께서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 새로운 임지로 떠나실 때는 무척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 늘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나날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4. 제12대 봉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2018. 8. 28.~2022. 8. 30.)

(1) 사제와 수도자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2018년 8월 28일 제12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홍 신부는 1989년 2월 4일 사제 수품 이후 대림동성당, 명동성당 보좌신부로 사목하였다. 그 후 1992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군중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가톨릭출판사 사장으로 재임하였다. 6개월간의 안식년을 지낸 후 2018년 여의도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4년간 사목하고 2022년 8월 30일 제11강남지구 지구장으로 이임했다.

홍 신부의 재임 기간에 성지운 이냐시오 보좌신부와 최성한 베드로 보좌신부, 그리고 김은영 아가다 원장수녀, 이현옥 마리아 원장수녀가 함께 사목하였다.

홍 신부는 영명축일에 부임하게 되어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 중간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2월부터 본당의 대면 미사가 전면 중지되었고 3월에는 주보 발간도 금지됐다. 6월부터 마스크 착용, 매 미사 완료후 소독, 일부 인원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미사가 진행됐고 2022년 4월 미사가 완전히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약 2년여 기간 동안 정상적인 대면 모임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항상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을 목표로 했던 홍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계획했던 사목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2) 사목 목표

홍 신부는 서울대교구의 2019년 사목교서인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공동체’의 내용에 따라 가정과 교우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를 사목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증가, 젊은 교우들의 감소, 세속 가치에 타협하는 가정으로 변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깊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정과 교우 공동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쉬는 교우들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기도 그룹 활성화

둘째, 가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마련

셋째, 가족 상호 간에 손편지 쓰기로 마음 표현

넷째, 성경을 통한 주님 말씀 맛들이기

이를 위해 홍 신부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기획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자리와 불우한 이웃을 도울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준비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8년 8월 부임 당시 1,000명이었던 주일미사 참례 교우 수가 1년 4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코비드19 발생 직전에는 1,2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공동체 일치와 친교

홍 신부는 교우들이 '성당 가기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와 활동을 마련했다.

① 호프 앤 호프데이(Hof & Hope Day)

호프 앤 호프데이의 목적은 친교와 쉬는 교우들의 참여, 사제와 교우들의 대화를 통한 구역의 활성화이다. 홍 신부와 사목회장, 구역별 교우들은 함께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맥주를



호프 앤 호프데이 - 시범아파트 1~12동(2019. 6. 26.)

결들이며 친교를 다졌다. 각 구역의 교우들은 자기 구역 차례가 오기를 고대하였으며, 구역에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교우나 교류가 없었던 교우들과 친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 없이 기도와 흥 신부의 강복으로 마무리했다.

흥 신부는 31개 구역에서 호프 앤 호프데이를 22회 실시하여 750명의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호응도가 높아 2차 호프 앤 호프데이를 계획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산되었다. 이 행사는 쉬는 교우를 포함한 모든 교우에게는 본당의 여러 행사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흥 신부에게는 본당 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우들은 2019년 6월 30일, 감사의 뜻을 담아 흥 신부와 이병지 사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당 교우들이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이병지 프란치스코 사목회장에게 수여한 감사패 (2019. 6. 30.)

② 가정공동체의 화목과 성가정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 성숙한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성탄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감사한 일 1천 가지 적어 오기’, 온 가족이 함께 필사한 ‘가족 성경 만들기’, 그리고 ‘가족 간 손편지 쓰기’이다. ‘가족 성경 만들기’는 2회 실시했는데, 1회차는 2018년 11월에 시작하여 2019년 11월에 마감하였으며, 2회차는 2019년 1월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에 마쳤다. 성경 필사본은 ‘우리 가족이 만든 가정 성경책’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2월에 봉헌식과 시상식을 하고 전시했으며, 가족 성경을 제출한 가정은 여의도동성당 로고가 새겨진 기념패 또는 기념메달을 받았는데 10가정은 기념패, 14가정은 기념메달을 받았다.

③ 본당의 날 기념행사

본당의 날 44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9월 15일에는 ‘감사와 찬미 음악회’를, 9월 16일에는 ‘사랑 실천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감사와 찬미 음악회’에서는 본당의 파티마 성가대와 어린이 성가대, 그리고 교우들이 기악, 성악 및 무용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사랑 실천 나눔 바자회’에는 정순택 베드로 주교와



사랑 실천 나눔 바자회(2018. 9. 16.)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도 참석했다.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기증 물품과 여성충구역에서 준비한 음식을 판매하고 경품행사도 진행했다. 바자회의 총수입은 1,431만 원, 지출은 331만 원으로 수익금 1,100만 원이며 본당의 어려운 교우들과 여의도 지역의 기초수급 대상 38세대에 지원했다.



사랑 실천 나눔 바자회(2018. 9. 16.)

본당의 날 45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9월 28일 ‘화합과 환희의 음악회’가 개최됐으며, 성가, 클래식, 국악 그리고 무용 공연을 보면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감사와 찬미 음악회(2018. 9. 15.)



화합과 환희의 음악회(2019. 9. 28.)

④ 혼인갱신식

가정의 달을 맞아 2022년 5월 22일, 혼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느님의 축복을 통해 가정 성화를 이루도록 혼인갱신식을 하였다. 총 13쌍의 부부가 축복을 받았고, 성가정의 모범으로 박종수 야고보, 김진희 세레나 부부의 영상이 상영되었다. 참여한 부부들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의 '성가정 축복장'과 혼인갱신식 기념사진 액자를 받았다.

⑤ ‘차 나눔’을 통한 친교

2019년 2월 10일부터 30여 명의 자부회가 부정기적으로 ‘청년 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레지오에서도 교중미사 후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교우들에게 친교의 장을 제공했다.

⑥ 첫영성체 어린이 부모 교육

첫영성체를 위한 어린이들의 교리 수업과 함께 부모 대상의 교리 수업을 진행했다. 부모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배운 교리를 복습하면서 어린이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공부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부모들의 친밀감을 높여 자모회 가입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첫영성체(2022. 7. 17.)

성경 말씀 공부 및 공동체의 기도 모임 활성화

홍 신부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등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기도 모임’을 활성화하여 쉬는 교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특히 매일 밤 9시가 되면 교우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자리에서 주모경을 바쳤다.

① 성서못자리 강좌 개설

‘성서못자리’ 강좌는 2019년 5월 3일 개설되었다. 이 강좌는 3년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성경을 다루며, 주 1회 외부 전문 강사 신부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교구장으로부터 ‘봉사자 자격증’을 받고, 신약성서 나눔터 교재 연수과정을 거친후 각 본당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2019년 36명의 교우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는 휴강이 되었다가 2021년에 다시 개강하여 2022년 12월, 3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14명의 교우들은 본당 내 말씀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성서못자리 종강과 봉사자 자격증 수여식(2022. 12. 9.)

② 성경통독 프로그램

2019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읽어 나가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많은 교우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약 8명 단위로 그룹을 구성한 후 주간 2개 그룹과 야간 2개 그룹을 운영하였다. 그룹별로 2명의 책임봉사자를 두어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진도를 조절하면서 11월 말까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독했다.

③ 책방 ‘까미노’ 개설

2019년 12월 본당 1층 로비에 책을 기증받아 작은 책방 ‘까미노’를 열었다. 소수의 봉사자로 운영되는 까미노의 이용 규칙은, 대출한도와 기간은 1인 1권 2주간이며,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을 때는 1권을 기부하는 것이었다. 책방은 문을 연 직후 발생한 코비드19 팬데믹 영향으로 기대했던 만큼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못했다.

다양한 지원과 외연을 넓힌 사회사목 활동

① 빈첸시오회 설립

홍 신부는 15지구 관할 ‘빈첸시오회’의 지도신부로, 2019년 10월에 여의도동성당 빈첸시오회를 설립했다. 홍 신부는 여의도동성당의 회원 30여 명을 포함한 15지구 내의 200여 명 빈첸시오 회원들과 함께 소외되고 고통 받는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다. 15지구는 재정이 부족한 성당이 많고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환경이었으므로 이 지역에서 여의도동성당 빈첸시오회의 역할은 매우 컸다. 여의도동성당 빈첸시오회는 발족 1년 만에 2,000여만 원을 모아 15지구에 속한 타 본당의 어려운 교우 가정 3곳과 8개 시설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본당 교우들로부터 쌀, 한과, 통조림 햄, 참치세트, 홍삼, 미역 등을 기부받아 선물이 필요한 타 성당들에게 전달하는 명절 선물 행사를 진행했다.



빈첸시오회원 모집 (2022. 6. 14.)



명절 선물 전달(2022. 2. 13.)

② 나눔행사

2019년 6월 23일 ‘요셉의원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모금한 후원금은 필리핀 요셉의원으로 보냈으며 수술비, 급식비,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본당 교우의 주선으로

유통회사를 통해 어린이용 의류, 신발, 장난감, 학용품 등 50상자를 기증받아 요셉 의원에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필리핀 학생들은 2019년 성탄절에 여의도동성당의 교우들에게 감사카드를 보내왔다.

환경개선 공사

현재의 여의도동성당은 1984년 신축된 이후, 김충수 신부가 재임했던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 약 30억 원을 들여 보수 및 증축을 한 성전이다. 그 후 10년이 지나 본당 시설이 노후화하고 냉난방 시설과 스피커 등 전자 기기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에 걸쳐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는, 본당 예산 약 5억 원, 여성충구역의 ‘먹거리장터’ 수익금 569만 원, 그리고 교우들이 봉헌한 거액의 환경개선 봉헌금으로 충당하였다. 이 외에도 교우들은 익명 또는 기명으로 고가의 설비와 작품성 높은 성물을 봉헌하였다. 이러한 환경개선으로 본당의 성직자들과 교우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① 여의도동성당 보수 공사 실시 및 성당 설비 교체

2019년 4월에 창고 방화문과 물탱크를 철거하고 세탁실 방수와 타일 교체를 했다. 7월에 사제관과 수녀원의 바닥 교체와 도배, 욕실 세면대 교체 공사를 했으며, 10월에



1층 로비



지하1층 회의실



대성전(LCD스크린 설치 전)



대성전(LCD스크린 설치 후)

는 1층과 지하 1층의 회합실 리모델링과 함께 환기·제습 시설을 개선했다. 2020년 2월에는 보좌신부 사제관, 옥탑방 환경개선, 성당유치원 천장의 누수방지 공사를 진행했으며, 11월에 성전 지붕 보수 공사를 했다.

2019년 9월에 앰프방송장비, 음색조절장비, 메인스피커장비, 마이크장비를 11월에는 1층과 지하 1, 2층의 회합실 조명 및 외부 조명을 교체했다. 2020년 1월 익명의 교우가 오르간을 봉헌하여 대성전 2층에 교체 설치했으며, 또한, 본당 교우 김 미카엘 형제가 대형 LCD 스크린 2개를 봉헌하여 대성전에 설치했다.

② 성물 봉헌

홍 신부는 구역장들과 베트남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아름다운 목재 성모상과 성 요셉상을 사재로 구매하여 본당에 기증하였다. 목재 성모상과 성 요셉상은 2020년 2월 15일과 27일에 대성전에 설치했으며 이후 지하 1층 교육관으로 옮겨졌다. 2022년 4월 24일, 본당 교우 박비송 로사 자매가 대형 성화 ‘자비의 예수’와 ‘프라하의 아기 예수상’을 기증하여 각각 본당 2층과 1층 로비에 설치했다.

(3)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를 회고하며

홍 신부는 여의도동성당이 주임신부로 부임한 첫 성당이었고, 부임한 날인 8월 28일

이 생일이면서 영명축일이기도 하여 “운명, 인연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당시의 이병지 프란치스코 사목회장은 홍 신부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홍 신부님은 ‘신자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신자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당 가는 일이 기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당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여러 이벤트를 활용하여 교우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쉬는 교우들을 포함해 많은 교우가 성당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홍 신부님은 교우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호프 앤 호프데이 이벤트를 하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본당에서의 따뜻함은 거액의 성전 설비 봉헌, 익명의 기금 봉헌, 사회사목을 위한 봉헌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힘들었던 코비드19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도 홍성학 신부님의 재임 시절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즐거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결국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홍성학 신부님의 말씀을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2장 본당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2022~현재)

1. 제13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2022. 8.30.~현재)

(1) 사제와 수도자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는 2022년 8월 30일부터 여의도동 본당에서 사목을 시작했다. 주 신부는 주교좌 명동대성당 출신으로 1990년 2월 9일 사제 수품되었고 당산동 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역촌동, 의정부 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원목실장을

역임했다. 그 후 마천동, 일본 교포 사목을 거쳐 신정3동, 청담동, 돈암동 등 여러 성당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임신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의도동 본당에 부임하여 주 신부의 가장 큰 과제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성당을 떠나 쉬는 교우들을 다시 성당으로 이끄는 것과 본당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주 신부가 항상 강조하는 선교와 친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기였고,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필요한 본당이었다.

2022년 9월 4일, 교중미사 중에 주 신부의 부임 환영식이 열렸다. 본당 교우들은 새로 부임한 주임신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들뜬 마음으로 환영식에 참여했다. 주 신부 역시 모든 교우들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특성 외에 각 성당 교우들의 특성이 다름을 경험해 왔기에, 처음 접하는 여의도동성당 교우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 부임(2022. 8. 30.)



첫 교중미사 및 환영식(2022. 9. 4.)

주 신부가 2022년에 부임했을 때 함께한 최성한 베드로 보좌신부는 2023년 2월 14일 이임하고, 김여욱 프란치스코 부주임 신부가 부임하여 2025년 2월 18일까지 주임신부를 보필하였다. 현재는 2월 18일 부임한 하상헌 윤호요셉 부주임신부가 함께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옥 마리아 원장수녀와 장 발렌티나 수녀는 2023년 2월 1일까지 활동했으며, 그 이후부터는 김 마리아막달레나 원장수녀와 이 켄마 수녀가 봉사 중이다. 수녀들은 미사 전례를 위한 준비, 단체 활동과 주일학교를 지원하며 교우들을 돌보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2024년 2월 16일 정윤경 마리아 수녀가 이임하고 홍성희 아나톨리아 수녀가 부임했다.

(2) 사목 목표

여의도동 본당과 교우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임 후 한 달 만인 9월 25일에 사목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022년 11월 27일에 2023년을 위한 사목 목표를 발표하였고, 2023년 12월 3일에는 2024년을 위한 사목 목표를 발표했다.

주 신부는 2022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에 2023년을 위한 사목 목표로 서울대교구의 사목 목표인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에 맞춰 본당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본당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며 여의도동 성당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둘째, 친교 : 단체와 동교회 활성화에 힘씁시다.

셋째, 선교 : 선교활동과 사회사목에 힘씁시다.

또한, ‘본당 활성화를 위한 3대 배가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첫째는 주일미사 참례 인원 배가(1,200명 → 1,500명 → 2,000명), 둘째는 예비 신자와 냉담 교우 회두 배가, 셋째는 단체 및 동교회 참여 배가였다. 주일미사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주임신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 신부는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교우를 약 1,100명에서 1,500명, 2,00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을 맞아 2024년 서울대교구의 사목 목표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 갑시다.’에 맞추어 “친교-선교-참여”라는 키워드로 사목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목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소 실천이 미흡한 친교와 선교를 더욱 강조했다. 특히, 2024년 본당 설립 50주년을 교우들에게 큰 축복이자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는 교회, 섬김과 봉사의 교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본당 주보성인이신 파티마의 성모님께 여의도동 본당을 봉헌하며,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자고 당부했다.

첫째, 시노달리타스 정신대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둘째,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합시다.

셋째,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전례/교육/행사)

교우 신심 역량 강화

① 파티마 성모신심

여의도동 본당의 주보성인은 파티마 성모님이다. 파티마 성모님은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셨다. 주 신부는 매일 묵주기도를 하고, 자신의 고통을 희생으로 바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라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성모신심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묵주를 지



파티마 성모상 봉헌식(2023. 5. 13.) 파티마의 Nuestra Senora de los Dolores 경당 (2023. 3. 20.)

니고 매일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께 의탁하자고 강조했다.

2023년 5월에는 대성전에 새로 마련된 파티마 성모상을 봉헌했다. 또한, 성모신심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2023년 4월에는 26명의 교우가 포르투갈 파티마를 비롯하여 벨기에 바뇌, 보랭, 프랑스의 폼맹, 뤼뒤박, 라살레트, 생테티엔르 등의 성모발현지를 방문하여 성모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모발현 성지순례를 통해 성모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항상 성모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② 다양한 신심활동

교우들의 신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했다. 매월 성시간, 하느님 자비의 신심미사,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며 적극적인 교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성모성월, 묵주기도 성월에는 매일 저녁 교우들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 오라토리오를 실시하였



성모성월 오라토리오(2023. 5. 31.)

는데 보통 60~80여명의 교우가 참석했다. 교우들이 매일 성전과 성모동산에서 바치는 묵주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본다.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선종하신 주임, 보좌 및 본당 출신 사제는 9명이다. 매년 위령 성월에는 이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묘지를 참배하고 미사를 봉헌했다. 한분 한분 사제의 묘에서 묵상하며 사제들의 재임 시절을 상기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찰했다.



용인천주교묘원 참배(2023. 11. 11.)

추석에 봉헌되는 한가위미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에 주 신부는 교우들과 고인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위해 성전 밖에 설치했던 미사봉헌자 액자를 제대 앞에 설치하여 한가위 미사를 봉헌했다. 교우들은 조상의 이름이 적힌 액자가 제대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더욱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 마음이 뿌듯했다. 매년 행하는 한가위미사였지만 더욱 더 의미있는 미사였고, 교우들을 위한 배려에 감사했다.



제대 앞 미사봉헌자 판넬(2024. 9. 17.)



미사 중 분향(2024. 9. 17.)

③ 틈새교리와 특별강연

교우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전에 집중적으로 교리를 배운다. 그 외에는 각 교우가 별도로 교리프로그램을 찾지 않는 한 교리를 배울 기회가 없다. 교회의 가르침은 물론 모든 전례와 하느님을 섬기는 자세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방식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주 신부는 교우들을 위한 틈새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교리 기회를 마련했다.

견진교리는 견진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교우들의 재교육 기회로 활용하였고, 사순절, 대림절, 순교자성월 등 특별한 시기에 맞춘 특강과 성모신심 강연은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본당 설계 건축가와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작가의 특강은 성전에 대한 교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순교자성월 때 홍사영 바오로 신부의 특강 이후 성지순례회가 조직되었고, 사순특강을 한 해외선교봉사국 국장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의 강연 후에는 해외선교후원회가 창립됐다. 이정순 프란치스카 수녀와 한양희 카타리나 수녀의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의 특강은 레지오 마리아 단원과 셸기도회 단원들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주는 샘물과도 같았다.

견진교리는 주임신부, 부주임신부, 원장수녀, 전교수녀가 담당하였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체 신심의 영성, 미사의 역사, 전례 등 하느님의 군사가 되고자 하는 견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2023. 7. 21.)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2024. 8. 3.)

진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교우들의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한 여름캠프, 신앙학교, 온라인 전례학교 등을 개최하여 어린 교우의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했다.

단체와 동호회 활성화

여의도동 본당에 부임한 이후 시노드 정신인 ‘친교-선교-참여’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여 교우들의 신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단체를 신설하고 활동이 중단된 기존 단체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여의도동 본당의 단체는 34개에서 48개로 증가했고, 동호회는 4개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친교가 더욱 강화되면서 본당은 교우들의 친교와 참여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졌다.

① 사목협의회

주 신부는 부임 후, 1년 임기가 남아 있던 24대 사목협의회 회장(회장: 김대수 미카엘)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에게 재신임 의사를 밝히고 함께 본당 살림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는 25대 사목협의회(회장: 정옥선 안젤라)가 조직되었고 17명의 상임위

원과 86명의 사목위원들이 힘을 합쳐 50주년 행사를 준비했다. 사목협의회는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의 대소사를 모두 담당하여 교우들의 단단한 중심체 역할을 했다.



25대 상임위원 임명식(2023. 10. 15.)

② 구역장·반장 공동체

본당의 여러 행사와 사목활동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단체는 구역장과 반장이라고 생각하는 주 신부는 구역과 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사 때마다 교우들에게 구역과 반 활동에 참여를 요청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구역장과 반장이 부족한 구역을 재정비하여 현재 18개 구역과 70개의 반으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했다. 구역장과 반장이 소공동체 구성원들과 활동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당의 대소사를 모두 담당하고 봉사하는 구역장과 반장의 노고



고토 기리성당(2024. 11. 20.)



고토 다이노우라성당(2024. 11. 20.)

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 신부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와 고토지역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숨으로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일본 천주교 신자들의 영성과 거룩한 삶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③ 단체 신설과 정비

교우들 간의 친교를 위한 단체와 동호회 활동을 위해 ‘1인 1단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성과는 신설된 단체, 기존 단체의 신입회원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들 신설 단체 및 동호회의 회원수는 340명으로 주일 미사 참여 교우의 30%가 참여하고 있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늘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주 신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성지순례회

주 신부의 부임 한 달 후 가장 먼저 성지순례회를 조직했다. 주교회의 순교자 현양과 성지순례 사목위원회에서는 「한국천주교 성지순례」를 발간하여 교우들이 성지를

순례하며 신앙 선조의 숭고한 삶과 거룩한 정신을 본받아 신앙심을 견고히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의도동 본당은 성지순례회가 없어 이러한 순례를 갈망하고 있던 터라 교우들은 성지순례회 창립을 반겼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월 성지를 순례하며 순교자들의 고귀한 신앙을 느끼고 그들의 용기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교우 간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과 친밀함으로 자연스레 친교의 장이 되고 있다.

선창단

평일미사 시간에는 성가대가 없어서 성가의 시작이 일치하지 않고 매끄럽지 못했다. 이에 선창단을 조직하여 교우들은 선창단의 도움을 받아 일치된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며 더욱 경건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쌍투스 성가대

또한, 여의도동 본당의 대표격인 파티마성가대는 교중미사를 담당하며 찬송을 하고 있던 중에 토요저녁주일미사에 성가대의 봉사를 원하는 교우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주 신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쌍투스성가대를 창단하였고 이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가 연습을 하여 토요 저녁 주일미사에 성가 봉사로 미사를 찬양하고 있다.

우니따스챔버 오케스트라

오르간 반주에 더해지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앙상블은 미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므로 이 앙상블을 위한 우니따스챔버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파티마성가대와 협연을 하고 있다.

해외선교후원회

해외선교후원회는 여의도동 본당에는 다소 생소한 단어였다. 그동안 코비드 19로 인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이웃을 위한 나눔

도 소원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회 사목을 활성화 하자는 주임신부의 사목 방침에 따라 해외선교후원회가 창립됐다. 매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천주교구를 후원하여 페루의 공소 건립, 카메룬 바피아교구의 성 김안드레아 사목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했다.

성체조배회

교우들의 심신함양과 성체조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체조배회를 조직했다. 또한 성체조배실을 경건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며 환경을 재정비했다. 성체조배회 63명의 회원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순번을 정하여 성체 조배를 하며 신심 활동을 하고 있다.

시문회

주일이나 새벽미사에는 복사단이 복사를 하며 주례사제를 보필한다. 그러나 평일 10시 미사는 복사단의 학생들이 복사활동을 할 수 없어 성인복사단을 조직하였다. 성인복사단은 미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제를 돕는다.

대건회

자모회는 주일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아버지들의 단체는 없었다. 본당 형제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주일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대건회를 조직하였다. 현재 대건회는 본당 내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카리타스 봉사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는데 여의도동 본당은 평균보다 더 높은 26%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 신부는 카리타스봉사회(호스피스봉사회)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살피도록 했다.



성지순례회(2022. 9. 25.)



선창단(2022. 11. 22.)



쌍투스성가대(2022. 11. 26.)



우니따스 챔버 오케스트라(2022. 12. 11.)



해외선교후원회(2023. 1. 29.)



성체조배회(2023. 2. 5.)



50년사편찬위원회(2023. 2. 28.)



성물방봉사회(2023. 5. 14.)



시몬회(2023. 6. 7.)



대건회(2023. 7. 9.)



카리타스봉사회(2024. 11. 17.)



파티마의 모후셀 외 5개 셀(2025. 5. 13.)

50년사편찬위원회 / 50주년행사준비위원회

2024년 9월 17일은 여의도동 본당의 설립 50주년이 되는 날로 50년사를 편찬하는 과제가 있었다. 또한 50주년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50년사 출간을 위한 50년사편찬위원회를 발족하여 50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향후 50년, 100년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50년 본당사를 편찬했다. 또한, 5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각종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 신부는 편찬 및 행사 방향을 제시하고, 50년사에 수록될 주요 내용, 동영상, 행사 내용 등을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④ 동교회 활성화

동교회 활동은 강력한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동교회는 친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각자의 취미를 살려 활동하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던 주 신부는 여러 동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신설된 동교회는 탁발등산회, 오카리나반, 플룻반, 통기타반 등이 있으며 각 교우들은 각자의 취미에 맞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선교 활동과 사회사목

① 선교 활동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느 본당이나 예외 없이 교우수가 급감했다. 코로나19로 대면미사가 중단되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서 냉담 교우가 늘어났다. 1인 1선교 운동을 펼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② 사회사목

사회사목은 사랑, 애덕, 자선을 의미하는 카리타스(Caritas)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느

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애덕을 나누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남들보다 하나라도 많이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고 나눔과 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사목을 위한 활동이 가시화되어 부임 후 매년 바자회를 개최하여 전 교우의 단합과 친교는 물론 수익금을 국내외의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2023년 바자회 및 페루 공소 지원

2023년 5월 21일 개최된 바자회에서 3,3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 이 수익금은 필리핀 요셉의원과 이주사목위원회에 각 1천만 원, 페루공소후원 8백만 원, 명동밥집에 5백만 원이 전달했다. 특히 페루공소에는 바자회 수익금 8백만 원 외에 교우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후원금은 페루의 열악한 공소 건립에 사용되어 페루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2024년 바자회 및 카메룬 바피아교구 성 김안드레아 사목센터 지원

2024년 6월 2일 개최된 바자회에서는 2,900만 원의 수익금과 교우들의 온정어린 후원으로 8만 유로(약 1억2천만 원)를 카메룬 바피아교구에 후원하여 성 김안드레아 사목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카메룬의 다씨 유광 엠마누엘 주교는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주례하고, 바피아 교구의 열악한 환경을 알렸다. 교우들은 해외선교후원회의 주도로 정성껏 모은 3천여 개의 묵주를 전달했다.

(3) 여의도동 본당 50주년 준비와 행사

5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

여의도동 본당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준비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50주년 기도문, 50주년 엠블럼, 여의도동 본당가, 50주년 기념 주제 성구를 선정했다. 특히, 50주년 기도문과 본당가의 가사는 주 신부가 작성하였고 이러한 열정은 교우들

의 찬사를 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2020년 9월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험담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일치 앞에서 마음을 닫아걸게 되며,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전염병이므로 절대 험담을 하지 말자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주 신부는 친교, 선교, 참여의 정신에서 5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험담, 불평 등 나쁜 말을 삼가는 ‘Stop Bad Mouthing 21’ 캠페인과 인사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험담을 자제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교우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의 정신과 목적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우들에게는 캠페인 팔찌가 배부됐다.



50주년의 10대 기념사업

여의도동 본당의 성직자와 수도자, 교우들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이들 기념사업은 본당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개 사업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제목만 제시했다.

+ 50주년 미사

- 50주년 개막미사(2023. 9. 17.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주례)

- 50주년 기념미사(2024. 9. 1.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 주례)
- 50주년 추기경 초청미사(2024. 10. 27.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주례)
- 50주년 폐막미사(2024. 11. 24.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주임신부 주례)

+ 50년사 편찬 / 50주년 동영상

+ 묵주기도 봉헌 : 200만단

+ 친교 : 구역, 단체 활성화

+ 선교 : 1인 1선교

+ 나눔 : 페루 공소 / 카메룬 바피아교구

+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 최영심 빅토리아 작가(40년 전의 약속)

+ 문화행사

-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2023. 12. 12.)
- 기념 음악회(2024. 9. 24.)

+ 성경필사 : 4복음서 성경필사 / 전신자 신약성경 필사

+ 전신자 성지순례 : 배티성지(2024. 10. 21.), 해미국제성지(2024. 10. 12.)

시설공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성모동산을 새롭게 꾸미고 성모동산 입구아치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AVE MARIA GRATIA PLENA’ 문구를 새겨 넣어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2023년 8월 15일에는 성전 2층 성모상 앞에 전기 촛불 봉헌대를 마련하여 봉헌식을 했다.

본당 건물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인성은 물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성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에 더하여 건물 외벽에는 대형시계를, 도로변 성당간판에는 시계탑을 설치하고 축복식을 했다. 또한, 본당 교우들의 숙원이었던 성전 및 각 회의실의 에어컨 교체공사가 시행됐다.



전기촛불 봉헌식(2023. 8. 15.)



대형시계 축복식(2024. 10. 20.)



도로변 야간 조명

(4) 맺음말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의 사제 수품 성구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로 항상 성령과 함께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느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다짐해 왔다. ‘사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동 본당에서의 활발한 사목활동은 주 신부가 여의도동 본당을 떠나더라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의도동성당 50년사





50년을 되돌아보며



1974-2024

본당의 역사 Since 1971

- 1971 성모병원 진료소에서 첫 미사
- 1973 여의도공소 인가
- 1974 여의도동 본당으로 승격

제1대 최용록 신부

(1974 ~ 1979)

- 1974
- 1976 첫 번째 성전 신축 준공
- 1977 700평 유치원부지 매입(현 성전 위치)

제2대 김택암 신부

(1979 ~ 1984)

- 1979
- 1980 여의도유치원 건물 증·개축 후 성당 사용
- 1982 두 번째 성전 신축 기공
- 1983 주보성인 '파티마 성모' 선정
- 1984 천주교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시성식
두 번째 성전 신축 준공

제3대 조순창 신부

(1984 ~ 1988)

- 1984
- 1986 성모동산, 성모상 축복식
노인대학 설립
- 1988 군중후원회 설립

제4대 이계광 신부

(1988 ~ 1993)

- 1988 구역분할 개편
- 1989 제44차 세계성체대회
- 1990 장학회 설립

제5대 김승훈 신부

(1993 ~ 1996)

- 1993
- 1994 사무실 전산화
- 1995 여의도성당 20년사 발간
전신자 성서 읽기
- 1996 김대건 신부 유해순회기도회 및 신앙대회

제6대 김정직 신부

(1996 ~ 1998)

- 1996
- 1997 가족복사제도 도입
성서그룹공부 실시
성소후원회 설립
- 1998 반주단, 청년전례단 창단

제7대 김현배 신부

(1998 ~ 1999)

- 1998 사목협의회와 구역개편 및 꾸리아 재정비
- 1999 리프트(장애우, 고령자) 가동
가두선교

제8대 정광웅 신부

(1999 ~ 2004)

- 1999
- 2000 본당의 날 체육대회(국회 둔치운동장)
본당 가정 성화의 날 지정(매월 첫째주일)
- 2003 첫 번째 전신자 성지순례 : 배론성지
- 2004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제9대 김충수 신부

(2004 ~ 2009)

- 2004 여의도성당 30년사 발간
- 2006 사랑의 콘서트 잠비아돕기
- 2007 전신자 성지순례 : 홍주순교성지
- 2008 성전 보수·증축

제10대 최선웅 신부

(2009 ~ 2014)

- 2009 성전 보수·증축 축복식(현재의 성전)
- 2009 103위 시성 25주년 행사 및 기념비 제막
- 2011 본당 설립 37주년 기념 체육대회(국회 대운동장)
- 2012 자선 나눔 바자회

제11대 구본영 신부

(2014 ~ 2018)

- 2014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본당의 날 행사
- 2015 성서 40주간 및 참생명학교 개설
- 2016 전신자 성지순례 : 나바위성지(기차, 도보)
- 2017 가족과 함께 여의도 둘레길 걷기

제12대 홍성학 신부

(2018 ~ 2022)

- 2018 본당 설립 44주년 기념행사
- 2019 호프 앤 호프 데이(Hof & Hope Day)
본당 환경개선 공사 및 성전 설비 교체
대성전 오르간 교체
- 2020 코비드19로 인한 대면미사 전면 중지
(2022. 4. 18. 해제)

제13대 주경수 신부

(2022 ~ 현재)

- 2022 용인천주교묘원 내 성직자묘역 참배 및 추모미사
- 2023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 2024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페루 공소 및 카메룬 바피아교구 후원
본당 설립 50주년 개막 / 기념 / 폐막미사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 2025 여의도동성당 50년사 발간

1970
1979



1973 여의도공소 장덕필 니콜라오 신부 시절의 첫영성체



1973 공소로 사용한 시범아파트 6동 26호(24평)



1975. 3. 23. 현재 성모병원 옆 첫 성전 신축 기공식(150평 규모)



초창기 현판



1976.1.25. 첫 성전 축성식



첫 성전에서 미사



1976. 5. 22. 서울대교구 어버이성가대 성가경연대회 1등



1979. 4. 15. 첫영성체



1979 5사단 방문 위문품 전달



1977. 12. 23. 현 성당 부지 구입(당시 유치원건물 700평)



1978. 4. 16. 견진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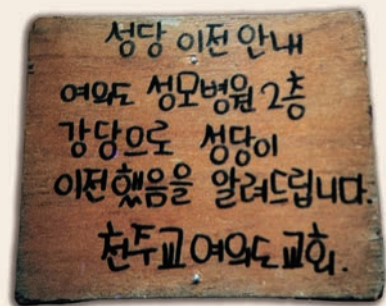


1980. 3. 1. 성당으로 사용한 유치원 건물

1980
1989



1981. 11. 노인대학 미리내성지 순례



1982. 9. 26. 성당 이전 안내



1982. 9. 26. 성전 신축 기공식



1982. 10. 29.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1983. 6. 13.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순회 기도회



1983. 6. 29. 신축 성전 상량식



1983 성전 신축공사



1984. 4. 28. 신축 성전 축성식(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주례)





신축 성전 내부



신축 성전 기념 식수



1986. 8. 15. 파티마성모 동산 축복식



1988 건진성사(강우일 베드로 주교 주례)



1988. 8. 주일학교 여름캠프



1989. 10. 7. 제44차 세계성체대회(교황 요한바오로 2세 주례)

1990
1999



1996. 9.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순회 기도회



1996. 11. 23. 견진성사(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주례)



성모의 밤



1998. 3. 28. 견진성사(김옥균 바오로 주교 주례)



1998. 10. 18. 성모상 앞에서 황영옥 루카 신부와 함께



1998. 11. 15. 제12대 사목회



1999 건진성사(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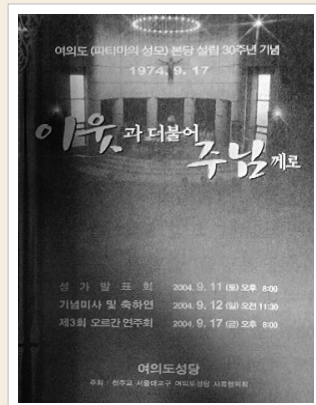
2000
2009



2002. 11. 성가경연대회(1등 미성아파트)



2004. 9. 12. 30주년 기념식



30주년 기념행사 팸플렛



2004. 9. 12. 30주년 기념미사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 주례)



2004 30주년 기념미사 후



2008. 6. 1. 영명축일



2008. 8. 3. 성전 중축 및 보수 기공식



2008. 8. 3. 성전 증축 및 보수 기공미사



2008 첫영성체 어린이와 함께

2010
2019



2010. 5. 13. 청년 도보성지순례(절두산)



2010. 10. 31. 본당 재건축기금마련 여성총구역 먹거리장터



2012. 5. 20. 희망의 모후Cu. 야외행사(공세리성지)



2014. 5. 3. 이제훈 아오스당 부제서품



2014. 9. 21.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본당의 날 행사



2015. 9. 3. 정순택 베드로 주교 사목 방문



2016. 9. 3. 전신자 나바위 기차 성지순례



2017. 6. 3. 가족과 함께 돌레길 걷기



2018. 2. 1. 김문강 크리스토폴 사제서품식



2018. 9. 15. 44주년 본당의날 - 감사와 찬미 음악회



2019. 7. 3. 김성현 라파엘 신부 사제서품식(명동대성당)



2019. 10. 본당 환경 개선 공사

2020
2024



2022. 5. 22. 혼인 갱신식



2022. 9. 18. 견진성사(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주례)



2022. 12. 26. 쌍투스성가대 창단



2023. 1. 26. 청년 베트남 성지 순례



2023. 6. 12. 페루공소지원 후원금 전달



2023. 9.17. 본당 설립 50주년 개막미사(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주례)



2023. 12. 12.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2024. 4. 10. 성당 외벽 조명 공사



2024. 4. 13. 성모상 조경



2024. 6. 9. 카메룬 바피아교구 사목센터 건립 후원금 전달



2024. 6. 30. 복사단 입단식 및 갱신식



2024. 8. 30.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2024. 9. 1.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정순택 베드로 교구장 주례)





2024. 10. 16. 대형시계 설치



2024. 10. 27.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초청미사



2024. 10. 16. 대형시계 설치



2024. 10. 27.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초청미사



2024. 11. 9. 역대 선종 사제 참배 및 추모미사



2024. 11. 10. 견진성사(이경상 바오로 주교 주례)





2024. 10. 12.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전신자 성지순례(해미)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4편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제1장 본당 설립 50주년 10대 기념사업

1. 50주년 미사
2. 50년사 편찬/ 50주년 동영상
3. 200만단 묵주기도 봉헌
4. 친교: 구역, 단체활성화
5. 선교: 1인 1선교
6. 나눔
7.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8. 문화 행사
9. 성경 필사
10. 전신자 성지순례

제2장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

1. 성구 공모전 시상
2. 신앙 수기 공모전
3. 금혼식 부부 축복장 수여
4.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5. 사랑의 바자회
6. 성당 조명과 시계 설치
7. 50주년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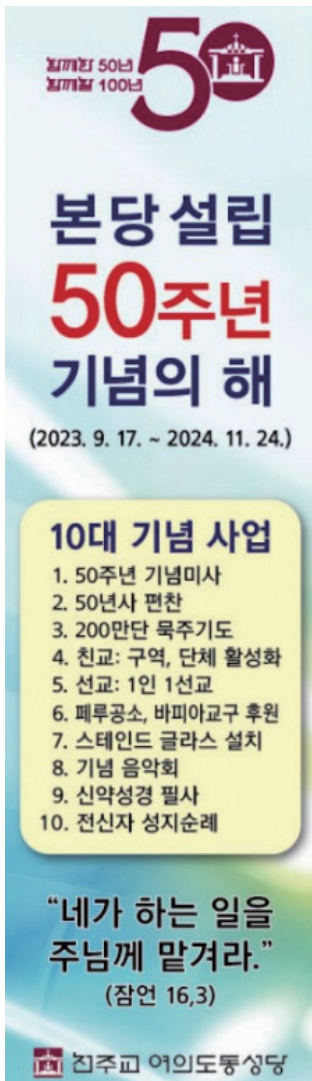


1974-2024

제1장 본당 설립 50주년 10대 기념사업

1. 50주년 미사

(1) 50주년 개막미사



2023년 9월 17일 본당 설립 50주년의 막을 올리는 거룩한 개막미사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현 의정부교구장)가 주례하고 본당 주임신부와 부주임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다. 이 미사에서 손 주교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본당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내실화란 ‘회개’의 여정으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삶,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 ① 김대건 신부와 같은 성직자처럼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죽음 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 ② 순교자들처럼 사랑을 믿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 ③ 신앙 선조를 본받고 존경과 사랑을 실천하자.

이러한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전구와 은총을 청하며 50주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모든 교우들은 손

주교의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강복을 받으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미사 중에 여의도동 본당이 50주년을 맞이하며 기획하는 여러 행사와 본당 건물 가꾸기 등을 손 주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후 손 주교와 주임신부는 교우들에게 기념떡을 나누어 주며 배웅했다. 그리고 성모동산 앞에서 사목협의회, 성가대, 본당50년사 편찬위원회 등과 기념 촬영 후 오찬을 함께 했다.



개막미사(2023. 9. 17.)

(2) 50주년 기념미사

2024년 9월 1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의 주례로 15지구장 김재화 신부, 제8대 정광웅 신부, 제9대 김충수 신부, 제12대 홍성학 신부, 본당 출신 이상훈 신부, 주임신부, 부주임신부 등이 공동 집전하는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가 성대하게 봉헌됐다. 미사 시작 전에는 새로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의 축복식을 가졌다.

정 대주교는 강론을 통하여 아파트 개발과 함께 자발적으로 생겨난 여의도동 본당

과 교우에 대한 존경을 표한 후 하느님 계명의 근본은 사랑임을 강조했다. 또 본당 교우의 기도, 희생, 봉사, 나눔이 있었기에 오늘날처럼 활발한 본당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50주년 주제 성구인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본당 교우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27년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미사에서 교우들은 50주년을 기념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했다. 예물은 50주년을 개막한 2023년 9월 17일부터 시작한 묵주기도 1,750,580단, 나눔의 실천으로 페루 공소와 카메룬 바피아대교구에 각각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후원한 활동내역, 4복음서 필사본과 전신자 신약성경 필사본이다.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 환영



스테인드글라스 축복식



기념미사



기념식

가톨릭신문

공동체

2024년 9월 8일 주일

서울 여의도동본당 50주년 기념미사

서울대교구 여의도동본당(주임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은 9월 1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메트로) 대주교 주례로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는 50년 전 여의도 거주 신자들의 자발적 신앙으로 시작된 본당이 천교, 선교, 참여의 교회로 나아가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자리였다.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정성의 예물들이 봉헌

됐다. 신자들은 묵주기도 175만580단, 페루 공소와 카메룬 바피아대교구에 각각 8000만 원과 1억2000만 원 후원 내역, 4복음서 필사본 및 전신자 신약성경 필사본을 바쳤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라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본당 교우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여러분의 기도, 희생, 봉사, 나눔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처럼



9월 1일 서울대교구 여의도동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 중 신자들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묵주기도 전신자 신약성경 필사본 등 예물을 봉헌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활발한 본당 공동체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임 주경수 신부는 축사에서 “바

로 이날이 더 많은 신자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3408호(2024. 9. 8.)

2024년 9월 8일 가톨릭평화신문

여의도동본당 50주년... 기도와 봉헌의 삶 다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미사 봉헌 100주년 향한 새로운 여정 시작

서울대교구 여의도동본당(주임 주경수 신부)이 설립 반세기째 맞아 기도와 희생, 봉헌의 삶을 다짐하며 복음화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본당은 1일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천교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신앙 공동체의 반세기 역사를 축하했다. 미사에는 제8대 주임 정광호·제9대 주임 이흥수·제12대 주임 홍성학 신부 등 역대 사목자들과 사목회장 및 사목위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많은 성직·수도자들과 더불어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가꿔나간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 봉사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 후 축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50년사 편찬위원회장 조윤근(요셉, 17·18대 사목회장)씨, 1974년에 설립된 선종봉사회가 감사패를 받았다. 또 여의도동본당 설계 및 건축 자문을 맡았던 김영선(시몬)씨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 50주년 기념 영상 ‘너섬(여의도의 순우리말)의 기적’을 상영했다.

전일 주임 홍성학 신부는 축하인사를 통해 “기도·희생·봉사로 여의도성당을 기도의 집, 하느님의 집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본당은 지난해 9월부터 50주년 개막 미사 봉



서울대교구 여의도동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되고 있다.

헌을 시작으로 10대 기념사업을 펼쳐왔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를 주제로 본당 역사를 기록한 50년사를 편찬하고, 묵주기도 200만 단을 바치는 등 천교와 선교, 나눔 등 성숙한 공동체로서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썼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선교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페루 공소와 아프리카 카메룬 교회 바피아교구에도 물질적 후원을 통해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했다.

본당은 영등포동본당 관할 여의도공소로 시작했다. 1970년 서울시가 시범아파트를 여의도

에 건설했고, 이듬해부터 입주자들이 이주하면서 여의도는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다.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러나 미사를 봉헌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성모병원 진료소(현 성당 자리)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신자들은 시범아파트 한 채를 전세 내 임시 공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의도공소는 1974년 본당으로 승격됐다. 현재 본당 신자 수는 7100여 명이며, 2730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2명의 사제와 11명의 수도자를 배출했다.

이지혜 기자 bonapelli@scbc.co.kr

가톨릭평화신문 1776호(2024. 9. 8.)

이어서 50주년 기념 축하식이 거행되었는데 여의도동 본당의 주요 연혁을 소개한 후 본당 발전에 기여한 교우들과 본당 설제 건축가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후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10대 사업 설명과 50년을 회고하는 동영상 상영으로 50주년 기념미사의 막을 내렸다. 교우들은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기념시계를 받았다.



50주년 기념미사

(3) 추기경 초청 기념미사

2024년 10월 27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초청하여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염 추기경은 강론을 통하여 50주년을 축하하며 훌륭한 본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희생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여의도동성당은 서울대교구에서 82번째로 설립 승인된 성당으로 7천여 명의 식구를 가진 큰 나무이며, 세계 시노드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복음화 여정에 충실한 본당임을 강조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보내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섭리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50주년을 맞이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을 리셋하면서 50년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축복했다.

미사 후에는 본당 50주년 동영상 상영과 염 추기경의 추기경 서임 10주년 축하식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염 추기경은 예정에 없었던 축하식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추기경 서임의 소감과 책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후 사목위원과 오찬행사를 가졌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환영(2024. 10. 27.)



본당 역대 사진전 관람



추기경 주례미사



추기경 서임 10주년 축하식



오찬 행사

(4) 폐막미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2024년 11월 24일 폐막미사로 마무리됐다.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이날의 폐막미사는 주경수 세바스티

아노 주임신부의 주례로 봉헌됐다. 지난해 9월 17일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의 주례로 시작된 개막미사와 그로부터 1년 후 폐막미사로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어 본당 공동체는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렸다.

주 신부는 이날 강론을 통해 “성령의 인도로 본당 50주년 기념행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풍성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안에서 함께한 본당 공동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50주년 기념행사는 이로써 마무리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1년 동안 함께 기념하고 진행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신앙과 희망으로 꽃피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폐막미사는 50주년 기념행사의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우리 본당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폐막미사(2024. 11. 24.)



현판 제막식



그동안 우리 본당 공동체는 50주년 기념 주제 성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 안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외적 활동으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내적 성숙에도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이날 폐막미사에서는 파견 성가로 주경수 신부 작사, 최호영 신부 작곡의 여의도동 본당가를 부르며 그 뜻을 되새겼다.

또한, 미사 후에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의 축하 메시지가 새겨진 ‘50주년 현판 제막식’을 통해 우리 본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렸다. 본당 설립 50주년에 이어 2025년 희년을 맞이하는 여의도동 본당 모든 교우들은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순례자’로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2. 50년사 편찬/50주년 동영상

(1) 『여의도동성당 50년사』 편찬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의도동성당 50년사』의 편찬이 결정됐고 이를 위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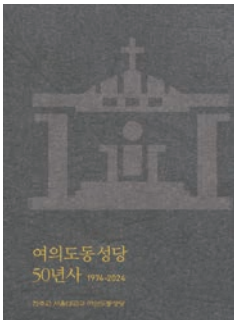
편찬위원회는 50년사의 편찬 방향, 목차, 분량 및 편찬위원들의 업무 분담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고, 월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 신부는 편찬의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먼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본당사 편찬지침’을 숙지했다. 이후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사목계획서와 주보, 본당 20년사와 본당 30년사를 포함한 12개 성당의 본당사 및 기타 자료를 참고하면서 수록 내용을 정리해 나갔다. 또한, 타 본당

의 50년사 편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50년사’ 원고를 작성한 후 출판 관계자와 편집, 디자인, 인쇄 및 후가공 등의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책으로만 보관되어 오던 여의도동성당 20년사와 30년사의 전자파일 작성을 병행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QR코드를 수록했다.

편찬위원들은 50주년 주제 성구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는 말씀을 기억하며 작업에 임했다. 『여의도동성당 50년사』의 발간은 ‘함께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함께할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본당사 편찬을 위해 소중한 사진과 기록물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50년사 표지



(2) ‘50주년 동영상’ 제작

‘50주년 동영상’ 제작은 김여욱 부주임신부를 총감독으로 하고, 방송제작사에 근무하는 본당 청년 교우에게 동영상의 연출과 제작을 의뢰했다.

동영상의 주제는 회의를 거쳐 김 신부의 아이디어인 ‘기적, 너섬, 나섬’으로 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리고 편찬위원회에서는 수집한 사진, 인터뷰 녹화 및 역사 자료들을 제공했다. 동영상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여의도동성당과 그 주변의 모습, 그리고 원로 교우들의 인터뷰 영상을 실었다.



50주년 동영상

완성된 동영상은 2024년 9월 1일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 후 거행된 50주년 기념 축하식에서 상영됐다. 그리고 여의도동성당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모든 교우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200만단 묵주기도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복음화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성모님과 함께 걷고자 모든 교우가 2023년 9월 17일부터 ‘200만단 묵주기도 봉헌’을 시작했다. 묵주기도를 생활하기 위해 매 미사 전 묵주기도 1단을 바쳤으며, 개인과 단체별로 봉헌한 묵주기도는 단수를 기록하여 성모상 옆에 마련한 봉헌함에 넣었다. 2024년 10월 20일에 200만단을 달성했고 그 후에도 세계평화, 쉬는 교우,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묵주기도 봉헌은 계속되고 있다.



목주기도 봉헌



목주기도 오라토리움

4. 진교 : 구역, 단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단체가 새로 조직됐다. 그리고 관심 있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인 1단체 가입 운동’을 독려했다. 신설 봉사단체는 성지순례회, 선창단, 쌍투스 성가대, 우니따스 챔버오케스트라, 해외선교후원회, 성체조배회, 시몬회, 대건회, 장학회, 셀 기도회, 카리타스회이며, 동호회는 타볼등산회, 통기타반, 안젤루스, 플루트반 등이다. 구역 및 단체에 대한 내용은 제5편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자세히 기록한다.

5. 신교 : 1인 1신교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의 쉬는 교우와 비신자가 신앙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1인 1신교 사업을 진행했다. 코비드19로 인해 성당을 떠난 교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성당을 안 다니는 이웃에게 선교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4년에 33명의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았으며 38명의 교우가 견진성사를 받게 됐다.



세례식(2024. 10. 20.)

6. 나눔

(1) 중남미 페루 리마 만차이 라스 콤브레스 공소 건립 지원

2023년 사순특강을 한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는 특강 후에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송 신부는 페루 빈민가에서 선교 활동 중인 여인혁 신부가 그 지역에 공소 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서울대교구는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 신부는 해외 불우 이웃을 위해 뜻 깊은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그 자리의 모든 회원이 동의하여 페루 공소 건립을 지원하게 됐다. 목표가 정해진 후 짧은 모금 기간이었으나 주 신부가 솔선수범하여 2,000만 원을 쾌적하면서 모금에 탄력을 받았다. 또한, 침체되어 있던 본당 공동체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바자회 개최 후 수익금 일부를 후원금에 보탬다. 기존의 바자회 목적에 해외 선교 지원이 추가되어 봉사자와 참가자 모두 열정과 사랑이 더해졌다.



페루 공소 후원금 전달(2023. 6. 12.)

후원금은 총 6만 달러(약 8천만 원)로 2023년 6월 12일 서울대교구에서 해외선교를 담당한 구요비 읍 주교에게 전달됐다. 이 소식은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소식지인 『평화가득하소서』(2023년 7월 제30호)에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본당 해외선교후원회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페루에 건설 중인 공소(2024)

(2) 아프리카 카메룬 바피아 교구 지원

2024년 초, 구요비 읍 주교는 카메룬 바피아 교구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주 신부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시노드 정신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목회와 논의하여 바피아 교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한국을 방문 중이던 카메룬 현지 전교 담당 김지연 아가다 수녀를 초청하여 현지 사정과 교회 공동체의 신심 단체활동 상황을 듣는 특별강론 기회를 가졌다. 바피아 교구의 엠마누엘 다씨 유팡 주교는 지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교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현지 공동체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특히, 목주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기도한다



구요비 읍 주교와 카메룬 유팡 주교(2024. 6. 9.)



여의도동 본당과 인근 성당이 모은 묵주 3,000개

는 설명에 마음이 아파 ‘묵주 모으기 운동’도 병행하여 4월~5월의 짧은 기간 동안 3천 여개의 묵주를 모았다.

6월 9일 방한 중이던 유팡 주교가 구요비 주교와 함께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 주례를 했으며, 미사 중에 후원금과 묵주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8만 유로(약 1억 2천만원)이며, 사제양성을 위한 성 김안드레아 사목 센터 건립에 사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가톨릭신문에 ‘변변한 건물 하나 없던 교구에 전해준 희망에 감사’(2024. 6. 17.)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가톨릭신문

2024년 6월 23일 주일

“변변한 건물 하나 없던 교구에 전해준 희망에 감사”

아프리카 카메룬교회 모금 위해 방한한 바피아교구장 유팡 주교

현지 상황 열악해 사목에 큰 어려움
교구 사목센터 등 기반 다지려 노력
“한국교회와 각별한 영적 유대 느껴”

“지구 반대편 가난한 이웃 교회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공감하고 정성을 모아준 한국 주교·사제단, 수도자, 본당 공동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조국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방한한 카메룬 바피아교구장 에마누엘 다시 유팡(Emmanuel Dassi Youfang) 주교가 올해도 한국을 찾았다. 유팡 주교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음) 주교 초대로 6월 5~20일 한국교회에서 후원금 모으기와 기념미사 주례, 교회 기관을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유팡 주교는 “누구보다도 카메룬 선교사 김지연 수녀님(아가타·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팡 주교가 한국교회와 연결된 것은 김 수녀의 역할이 컸다. 유팡 주교는 “2020년 교구장으로 취임했을 때, 험난한 교구 상황에 대한 하소연을 김 수녀님이 들려듣지 않고 백방으로 나서 줬기에 희망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카메룬은 3000만 인구 중 40%가 가톨릭신자일 만큼 신앙이 뜨겁지만 경제 상황이 열악해 사목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바피아교구 사제·수도자들은 면적 3만4600㎢에 달하는 교구에서 매일 10개가 넘는 공소를 도보로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목해야 한다. 쓸 수 있는 사제관이나 수도원, 속수도 없을뿐더러 주교관, 교구청도 없다. 유



팡 주교는 “교구 사목센터 등 피정이나 연수와 같은 모임을 할 변변한 건물이 없다”고 호소했다.

치안도 불안한 데다가 교회 안팎으로 도사리는 위험은 유팡 주교를 골머리 않게 한다. 2017년에는 전임 교구장이 재임 중 암살당했다. “복음을 거스르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지역에 폭력과 분열을 조장하는 몇몇 종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건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런 현실에서 도움을 준 한국교회가 큰 힘”이라고 유팡 주교는 전했다. 교구 고아원은 지난해부터 올마이키즈(이사장 김영욱 요셉 신부)의 지원을 받으며 매달 아기 2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됐다. 교구 농업기술학교는 인천 교구 중3동본당(주임 김영욱 신부) 도움으로 건축기금이 모이고, 없었던 수도사 시설도 설치됐다. 올해는 서울 여의도동본당(주임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 신자들이 유팡 주교가 지으려는 교구 사목센터 후원금으로 8만 유로(한화 1억2114만8000원가량)를 모아줬다.

“교구에서 한국교회 명성이 정말 높아졌어요. 잘 모르는 교회에 선뜻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는 한국교회와 각별한 영적 유대를 느낍니다.”

박주현 기자 ogoya@catimes.kr

가톨릭신문 3398호(2024. 6. 17.)

7.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본당 설립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주 신부는 1984년 현 성전 건축 시 스테

인드글라스 설치가 성당 제대 뿐 아니라 2층 로비에도 이미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당 내부와 외부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기록을 찾았고 원 작가인 최영심 빅토리아 작가와 협의하여 완성하기로 했다. 해외 체류 중인 작가를 초빙하여 특강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우들의 관심 속에 3~4개월의 기간을 거쳐 성공리에 설치 작업을 완수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미사 후 정순택 대주교의 축복식이 있었다.

1층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성령강림을 표현했고, 2층은 노아의 방주 형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6편 제2장 성물편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층 스테인드글라스



2층 스테인드글라스

8. 문화 행사

(1)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 초청 공연

2023년 12월 12일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이자 평화의 사도로서 알려진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특별 초청 공연을 가졌다. 공연은 본당 어린이 합창단 안젤루스도미니의 오프닝으로 시작하였고, 아베마리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을 불렀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합창단의 시그니처곡인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Le Duo

Des Chats)’이 재미있게 연주되어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앵콜곡으로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한국어로 불러 관객들은 많은 갈채와 환호를 아낌없이 보냈다.

이번 공연에서 더욱 특별했던 점은 우리 본당의 어린이 성가대인 안젤루스도미니가 출연하여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과 함께 한국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부른 것이다. 이는 주신부가 두 합창단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제안한 후 오디션을 거쳐 성사됐다. 파리나무십자가 공연은 QR코드를 이용해 다시 볼 수 있다.



안젤루스도미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베 마리아



공연 포스터(2023. 12. 12.)



공연 전 미사



공연 개막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2023. 12. 12)

(2)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여의도동 본당 설립 50주년이라는 신앙적 여정을 기념하며 문화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악회가 본당 대성전에서 열렸다. 본당 설립 50주년이라는 축제의 기간에 어울리는 활기차고 장엄한 느낌의 곡인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이 연주됐다.

이번 음악회는 파티마 성가대, 쌍투스 성가대, 클라비스 청년성가대, 안젤루스도미니 어린이 성가대 그리고 안젤루스 어린이 실내악, 우니따스챔버 앙상블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합창과 연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렸다. 특히, 소프라노 김민지 세 실리아와 테너 강훈 시몬의 독창은 이번 음악회의 품격을 높이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모든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화음은 성전 가득 울려 퍼졌고, 감동으로 하나된 본당 공동체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기념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다짐했다. 음악회 공연 동영상은 QR코드를 이용해 다시 볼 수 있다.

50주년
음악회



50주년 기념음악회 포스터(2024. 9. 24)



안젤루스도미니



안젤루스 어린이 실내악



파티마&우니파스챔버



쌍투스



클라비스



연합성가대

9. 성경 필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본당 전신자와 함께 하는 신약 성경 필사'를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2층 제의실 앞에서 진행했다.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열려 있는 공간에 비치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성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경 필사



신약성경 필사

또한, 2024년 2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교우와 단체가 신약성서 필사를 완료했으며, 필사한 성경은 9월 1일 기념미사에서 봉헌됐다.

10. 진신자 성지순례

(1) 배티성지

2023년 10월 21일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360여명의 교우들이 충북 진천의 배티성지로 전신자 성지순례를 했다. 야외선상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배티는 조선교구 최초의 신학교 마을이었던 곳으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사목활동 중심지였고,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순교하신 복자와 유명·무명 순교자 묘소가 산재해 있는 성지이다.



전신자 성지순례(2023. 10. 21.)

미사 봉헌 후 최양업 신부 박물관, 최양업 신부 탄생 기념성당, 최초의 신학교사, 순교자 묘역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단체 촬영을 한 후 본당 교우들이 모두 함께하는 친교 시간을 가졌다. 코비드19로 인해 움츠렸던 교우들이 야외에서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대성전 앞

이날의 순례를 통해 교우들은 선조들의 꺾이지 않는 신앙과 굳건한 신심을 느끼고, 이 순례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2) 해미국제성지

2023년에 이어 2024년 10월 12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해미국제성지로 전신자 순례를 갔다. 해미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국내 유일의 단일 국제성지이다. 1866년부터 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신자들이 순교한 곳으로 순교자들의 유해는 대부분 홍수로 유실되고, 1935년 그 일부를 발굴했다. 박해 기간 동안 매일 서문 밖으로 끌려 나와 교수형,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으로 순교한 슬픈 역사의 땅이 지금은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곳이 됐다.

우리 교우 350여 명은 미사를 봉헌하고 대성당 건물 4층의 디지털역사체험관과 유해참배실에서 참배한 후 망루에 올라 옛 선조들의 신앙 터전인 서산 땅을 바라보았다. ‘과연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순교자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번

순례도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과 영성을 기리며 교우들 간의 유대와 공동체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해미 국제 성지(2024. 10. 12.)

제2장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

1. 성구 공모전 시상(2024. 1. 21.)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본당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되어 묵상과 기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성구 공모전을 진행했다. 190명이 참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6개 성구가 선정되었고 최종 수상자는 교우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50주년을 지내



우측 아래가 1등으로 당선된 성구

는 교우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구에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각자 스티커를 부착했다. 가장 스티커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1~3 순위의 성구를 최종 선정했고 제안자에게는 상금이 시상됐다.

1위로 선정된 한 성구,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는 교우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50주년의 모든 행사에 사용됐다. 또한, 전신자에게 나누어준 50주년 기념 벽시계에도 새겨 넣어 각 가정에서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의 실천이 되도록 했다.

순위	성구	제안자
1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잠언 16,3)	한임경 보나
2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코린 16,14)	권주영 데레사
3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 2,5)	정덕희 데레사, 허경혜 리디아, 정소영 파비올라

2. 신앙 수기 공모전(2024. 8. 18.)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체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신앙 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하느님 은총의 여정을 담은 신앙 수기에는 생활 속에 현존하시면서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신 하느님 증거 내용이 많았다. 심사는 사목위원으로 이루어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앙체험, 창의력, 문장력 등으로 평가했으며 우수상 1인, 장려상 2인에게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축복장이 수여됐다.



수상자(2024. 8. 18.)

구분	수상자	제목
우수상	서교분 안젤라	‘하느님 사랑으로 맞이한 50년 신앙의 여정’
장려상	양종구 요셉	‘옥수수 가루의 자양분’
	허경혜 리디아	‘예수님 사랑을 증언하다’

3. 금혼식 부부 축복장 수여(2024. 8. 18.)

50주년이라는 반세기의 여정을 함께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면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9쌍의 부부에게 교구장 축복장과 기념품을 수여하며 모든 교우가 축하했다.



금혼식 부부 축복장 수여(2024. 8. 18.)

4.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2024. 9. 1.)

주 신부는 시설 및 건축, 성물 등 모든 기록물의 정리작업을 하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교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양종구 요셉(전 시니어아카데미 학장), 조운곤 요셉(현 50년사편찬위원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2024. 9. 1.)

장, 전 제17,18대 사목회장)과 단체로는 선종봉사회가 받았다. 공로패는 본당 설계 건축

에 기여한 김영섭 시몬 건축가가 받았다.

5. 사랑의 바자회(2024. 6. 2.)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사랑의 바자회에서도 각 단체는 물론, 주일학교, 성가대,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품목도 더욱 다양해지고 특히 아나바다 코너와 50주년 기념품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바자회는 기꺼이 기증한 다양한 물품을 사고 팔면서 시노드 정신인 친교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행사였다.

바자회의 총 수익금은 2,922만 원으로, 전액 카메룬 바피아 교구 성 김안드레아 사목센터 건축 기금으로 후원됐다.



바자회 현수막(2024. 6. 2.)



바자회 개막식



50주년 기념 물품



바자회

6. 성당 조명과 시계 설치

여의도 지역의 건물과 시설은 시인성을 위하여 각종 조명과 간판 등을 설치했으나 여의도동성당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주 신부는 선교를 염두에 두고 성당을 돋보이게 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간판을 정비하고 외부 십자가와 건물 외벽에 간접 조명을 설치했다. 또한, 도로변에 시계탑을 설치하고 건물 정면 외벽에 대형시계를 설치한 후 축복식을 가졌다.



성당 외벽 조명(2024)



대형시계 설치(2024. 10. 16.)



대형시계 축복식(2024. 10. 20.)

7. 50주년 기념품

본당 설립 반 백년의 여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고자 다양한 기념품이 특별 제작되었다. 먼저 김유리 율리아 전례초 공예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부활초와 제대초는 중후한 푸른색 배경으로 어린양이 성당을 감싸고 알파와 오메가가 받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본당을 지켜주시는 듯하여 든든함을 더해준다. 정순택 대주교 주례 50주년 기념미사에서 사용됐다. 또한, 연한 노랑색을 배경으로 한 부활초와 제대초는 튿짱 포교 베네딕토수녀회 이명애 요한 수



김유리 율리아 작

녀의 작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50주년을 맞이한 여의도동성당을 축복하는 형상이 매우 아름답다.



이명애 요한 수녀 작

전 교우에게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벽걸이 시계(지름 30cm)를 나누어 주었다. 도자기 머그컵은 웅기 향아리의 부드러운 디자인과 각각 하늘과 땅을 표현한 열은 향토빛과 하늘색을 가운데 띠로 두르고 50주년 성구와 로고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모든 기념품에는 교우들이 직접 선정한 50주년 성구인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잠언 16,3)가 새겨져 있다.

이 밖에도 사목회장의 기증품으로 작은 텀블러, 에코백과 머그컵 등이 제작되었으며 바자회에서 판매되어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기부되었다.



기념 시계 배부(2024. 9. 1.)



50주년 기념 시계



디퓨저



기념 컵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5편

평신도 사도직 단체

제1장 사목협의회·구역공동체

제2장 신심·봉사단체

제3장 동호회



1974-2024

제1장 사목협의회·구역 공동체

1. 사목협의회



개막미사 후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과 상임위원(2024. 9. 1.)

(1) **설립일:** 1974년 10월 1일

(2) 설립목적

주임신부의 자문기구로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기획, 평가한다.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며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3) 주요활동

사목협의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에서 본당의 사목에 관련된 주요 업무를 논의한다.

- 매년 여의도동 본당 사목 목표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선교 및 친교, 본당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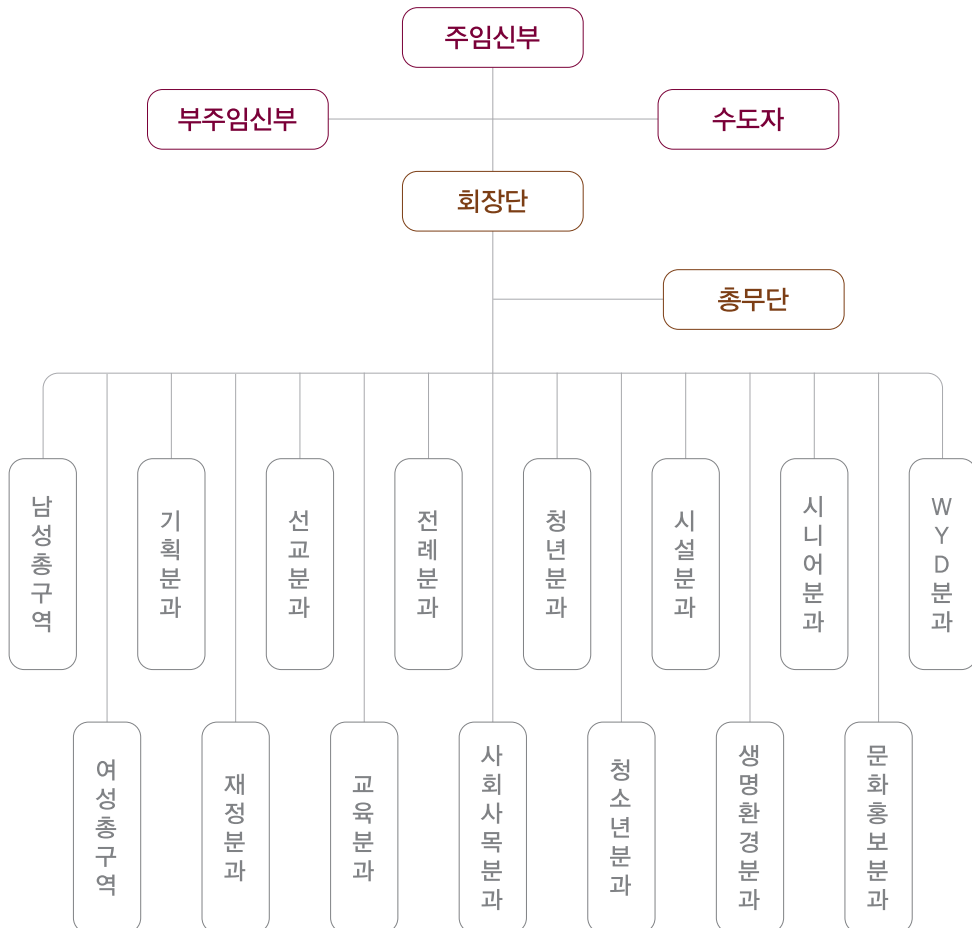
주관 등 제반 활동 수행

- 2024년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4) 조직 및 구성원

현재 제25대 사목협의회는 사목회장, 사목부회장, 남성총구역장과 여성총구역장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총무단, 그리고 15개의 분과와 47개 산하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 조직도



분과	소속단체	분과	소속단체
남성총구역	18개 구역과 반	여성총구역	18개 구역과 반
기획분과		재정분과	성물방
선교분과	구세주의모후 CU. 성모성심 CU., 희망의모후 CU. 선종봉사회, 쉼기교회 성체조배회, 카리타스회	교육분과	예비신자봉사회, 견진교리반, 가톨릭성서모임, 울뜨레아, 성소후원회
전례분과	해설단, 독서단, 반주단 선창단, 제대회, 헌화회, 성찬봉사회, 시몬회, 파티마성가대, 쌍투스성가대	사회사목분과	데레사회, 빈첸시오회, 군중후원회, 해외선교후원회
청년분과	청년전례단, 청년성가대, 청년성서모임	청소년분과	초등부 교사회, 중·고등부 교사회, 복사단(자모회), 주일학교 자모회, 대건회, 안젤루스 도미니
시설분과		생명환경분과	M.E.
시니어분과	너섬시니어 아카데미	문화홍보분과	성지순례회, 등산회 동호회(다수)
WYD분과		주임사제 직속	50년사 편찬위원회 파티마 장학회

• 상임위원

회장	정옥선 안젤라		
부회장	장현선 스테파노, 남종애 크리스티나		
총무	김재정 요안나/ 황의상 아브라함(부) 이현주 로사, 송미란 안젤라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임경선 루갈다
기획분과장	김동석 마태오	재정분과장	전병수 레지나
선교분과장	정덕희 데레사	교육분과장	신시란 아녜스
전례분과장	조옥심 모니카	사회사목분과장	이순주 요안나
청년분과장	정상경 요셉	청소년분과장	염현호 하상바오로
시설분과장	조항진 스테파노	생명환경분과장	성현숙 루시아
시니어분과장	고정원 데레사	문화홍보분과장 / WYD분과장	정민희 마틸다
50주년기념사업회장		정옥선 안젤라	

2. 남성구역 및 여성구역 공동체



여성구역

(1) **설립일:** 1974년 10월(여성구역), 1996년 5월(남성구역)

(2) **설립목적**

하느님 말씀 안에서 본당의 기초 공동체인 구역·반 모임을 활성화하고 친교와 선교로써 하느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며, 본당 사목의 효과적인 전달과 집행을 통해 본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3) **주요활동**

본당의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주관하고 지원하며 본당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 매월 구역장 회의, 격월 구역장·반장 회의를 거친 후 반 모임을



남성구역(구역모임)

개최하여 소공동체의 활성화 및 신심 유도

- 예비 교우 및 냉담 교우 돌봄과 봉성체 지원
- 사순, 대림 판공성사표 배부
- 상가 돌봄 및 전입과 전출 교우 돌봄
- 바자회, 전신자 성지순례 등 본당 내 각종 행사 지원
- 미사 안내 및 정리

(4) 조직 및 구성원

1996년 남성구역이 신설된 후 남성구역과 여성구역으로 분리되었고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① 남성구역: 총구역장과 구역장으로 구성

- 초대 남성총구역장은 최기영 아오스딩이고, 현재는 공석이다.

② 여성구역: 총구역장과 구역장, 반장으로 구성

- 초대 여성총구역장은 배삼원 막달레나이며, 현재 임경선 루갈다가 여성총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역	구분	남성구역장	여성구역장
	총구역장		임경선 루갈다
	부총구역장		송지영 보나
	총무	윤재성 바오로	이경희 데레사
	서기		좌혜경 헬레나
1	시범 1~9동		안순란 카리타스
2	시범 10~24동, 상가	곽도현 베드로	남효숙 루시아
3	라이프콤비,리버타워,리첸시아	이재화 안토니오	차수정 소피아
4	삼익	박현우 안셀모	
5	은하	김규언 프란치스코	정관숙 비아

구역	구분	남성구역장	여성구역장
6	진주, 트럼프1차	문양진 미카엘	권명애 로사
7	화랑, 장미	박종수 야고보	오선자 모니카
8	대교	김교덕 레오	송지영 보나
9	한양	황재훈 안토니오	박은영 데보라
10	수정, 브라이튼	한민기 스테파노	이정자 소화데레사
11	삼부	이한선 베네딕토	임경선 루갈다
12	서울, 공작, 목화	강대일 다윗	이재무 아녜스
13	진미파라곤, 더샵, 초원	박정범 스테파노	
14	앰파이어, 힐스테이트, 아이비	정태영 가브리엘	김소희 안나
15	광장, 파크센타	부덕권 야고보	정미선 켄마
16	미성	임대섭 다비오	연정순 그라시아
17	자이, 트럼프2차	하태강 안드레아	서향선 요안나
18	여의도지역 외		

5) 구역 현황

구역은 초창기 25개반(1978년) → 5개 지구 34반(1980년) → 사목회 구역분과위원회로 구성(5개 지구 29반, 1981년) → 7개 지구(1984년) → 12개 지구 78반(1988년) → 30개 구역 98반(1999년) → 18개 구역 70반(2022년)으로 변경됐다.



제2장 신심·봉사단체

1. 레지오마리아에(Legio Mariae)



(1) 설립일

-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 1980년 3월 27일
- 성모성심 꾸리아: 1990년 12월 13일
- 희망의 모후 꾸리아: 1994년 9월 8일

(2) 설립목적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모님의 군대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3) 소속 평의회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Senatus, Se.) 직속 영등포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꼬미시움(Comicium, Co.)

(4) 주요활동

① 단원 각자의 개인 성화 활동

- 평일 미사 참례 및 묵주기도 등 기도 생활
- 교육, 피정, 성지순례로 신앙심 함양

② 선교, 봉사활동

- 비신자 입교 권면, 개종 권면, 천주교 홍보
- 예비신자, 신영세자, 전입 교우, 냉담 교우 등 돌봄
- 교육, 피정, 성지순례로 신앙심 함양
-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봉사활동
- 행동 단원 모집,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
- 본당 협조, 소공동체 활동, 자연 보호 활동, 생명 존중 활동 등

③ 매주 1회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단원들이 1주일간 실행한 선교, 봉사, 신심 활동에 대해 나눔을 진행함

(5) 꾸리아(Curia, Cu.) 및 프레스디움(Praesidium, Pr.)

세나투스	꼬미시움	꾸리아(단장)	프레스디움
서울 무염 시대 Se.	영등포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Co.	구세주의 모후 Cu. (이재무 아녜스)	상아보탑Pr.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자비의 모후Pr. 매괴의 모후Pr. 오묘한 매괴Pr. 티없으신 어머니Pr. 일치의 모후Pr. 사랑의 샘Pr. 기쁨의 샘Pr. (10개 Pr.)
		성모성심 Cu. (엄기화 데레사)	샬별Pr. 사랑의 모후Pr. 창조주의 모후Pr. 능하신 정녀Pr. 환희의 모후Pr. 애덕의 모후Pr. 의덕의 거울Pr. 공경하올 어머니Pr. 착한 의견의 모후Pr. 찬송하올 어머니Pr. 상지의 옥좌Pr. 겸손하신 어머니Pr. (12개 Pr.)
		희망의 모후 Cu. (인영수 미카엘)	사도의 모후Pr. 순교자의 모후Pr. 파티마의 성모Pr. 승리자의 모후Pr. 중재자의 모후Pr. 말씀의 모후Pr. 영광의 모후Pr. 은총의 모후Pr. 믿음의 모후Pr. 구원의 문Pr. 사랑하올 어머니Pr. (11개 Pr.)



①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 소속 10개 브레시디움

초대단장은 문태준 바오로이며 6개 브레시디움으로 시작했다. 이후, 단원이 계속 증가하며 47개 브레시디움이 되어 분단을 논의하게 됐다. 현재 10개 브레시디움이 있으며, 행동 단원 67명, 협조단원 146명이다.

브레시디움	설립일	단장	행동단원	협조단원
상아보탑 Pr.	1976. 5. 20.	손정옥 수산나	8	11
평화의 모후 Pr.	1978. 10. 7.	고려숙 올리아	6	11
자비의 모후 Pr.	1980. 11. 19.	정경자 에밀리아나	9	18
순결하신 어머니 Pr.	1982. 7. 4.	김순례 루시아	6	12
매괴의 모후 Pr.	1988. 4. 7.	이재선 클라라	4	6
오묘한 매괴 Pr.	1988. 6. 15.	전제봉 알로이시아	6	22
티없으신 어머니 Pr.	1990. 6. 19.	이진숙 레지나	8	27
일치의 모후 Pr.	1990. 7. 19.	김귀남 아델라	7	16
사랑의 샘 Pr.	1991. 2. 28.	이상진 안젤라	6	16
기쁨의 샘 Pr.	2011. 5. 11.	박남용 요셉	7	7



② 성모성심 꾸리아 소속 12개 브레시디움

구세주의 모후 꾸리아가 47개 브레시디움으로 증가하면서 팀을 분단하여 성모성심 꾸리아를 창단했다. 성모성심 꾸리아의 초대단장은 이인순 아오스딩, 현재 12개 브레시디움이 있으며, 행동 단원 89명, 협조단원 2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브레시디움	설립일	단장	행동단원	협조단원
셋별 Pr.	1977. 4. 4.	이회영 스텔라	8	24
사랑의 모후 Pr.	1979. 10. 21.	지영애 보나	8	17
창조주의 모후 Pr.	1982. 7. 4.	송지영 보나	6	5
능하신 정녀 Pr.	1983. 11. 19.	윤점심 아네스	8	18
환희의 모후 Pr.	1987. 1. 15.	심재숙 프란체스카	7	10
애덕의 모후 Pr.	1987. 1. 7.	김금주 유스티나	9	39
의덕의 거울 Pr.	1988. 6. 15.	강국초 클라라	7	8
공경하올 어머니 Pr.	1988. 6. 15.	김은선 베르틸라	5	40
착한 의견의 모후 Pr.	1990. 7. 1.	김여희 미카엘라	6	9
찬송하올 어머니 Pr.	1990. 7. 20.	우미애 글로리아	11	19
상지의 옥좌 Pr.	1990. 12. 13.	정관숙 비아	9	28
겸손하신 어머니 Pr.	1992. 5. 26.	조영순 막달레나	5	10



③ 희망의 모후 꾸리아 소속 11개 브레시디움

꾸리아 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다시 분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희망의 모후 꾸리아가 창단 됐다. 기존 두 꾸리아가 평일 낮 시간 회합으로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웠으므로 희망의 모후 꾸리아는 저녁 시간에 회합하게 되었다. 초대 단장은 이성환 베네딕토이며 현재 남성 8개, 여성 3개 브레시디움이 있고 행동 단원 83명, 협조단원 1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브레시디움	설립일	단장	행동단원	협조단원
사도의 모후 Pr.	1979. 5.20.	김남수 대건안드레아	6	9
순교자의 모후 Pr.	1982. 2. 2.	유승준 안토니오	4	7
파티마의 성모 Pr.	1987. 12. 17.	신미경 소화데레사	7	14
승리자의 모후 Pr.	1994. 7. 14.	이용식 바오로	10	10
말씀의 모후 Pr.	1997. 6. 12.	권명애 로사	8	10
중재자의 모후 Pr.	1997. 6. 18.	박근옥 바오로	7	22
영광의 모후 Pr.	1998. 4. 2.	이왕균 니콜라오	6	8
은총의 모후 Pr.	2000. 1. 14.	인영수 미카엘	6	13
믿음의 모후 Pr.	2005. 2. 17.	이주명 로렌조	10	8
구원의 문 Pr.	2008. 9. 25.	박선병 에드문도	10	4
사랑하을 어머니 Pr.	2009. 11. 11.	이정숙 엘리자벳	9	5

2. 선종봉사회



(1) 설립일

1974년 9월 17일 연령회로 설립되었고 2024년 9월 1일 선종봉사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2) 설립목적

본당 교우 선종 시 천주교 상장예식의 장례 절차에 따라 염습, 입관, 출관 예절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도와 봉사로 유족을 돕고, 자신의 성화와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선종 때마다 선종한 교우의 영원한 안식과 상심한 가족을 위해 장례 절차를 도우며 헌신한다. 또한, 선종봉사회는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위령기도와 회원을 위한 생미사, 개인 성화 및 여의도성모병원 봉사, 서울대교구 연합회 위령미사를 봉헌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이 필립보이며, 현재 홍준표 요셉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 회원 20여 명과 기도회원 100여 명이 봉사하고 있다.

3. 파티마의 세계 시도직(셀 기도회)



(1) **설립일:** 파티마의 모후(2021. 3. 16.), 티없으신 모후(2023. 2. 23.), 자비의 모후(2024. 7. 10.), 애덕의 모후(2024. 8. 27.), 희망의 모후(2024. 12. 27.), 평화의 모후(2025. 5. 13.) 창단

(2) 설립목적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기도하라 · 희생하라 ·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세포(Cell)들의 소그룹 영적 기도 모임이다.

(3) 주요활동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자신과 이웃의 성화를 위하여 주 1회 회합 및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성모님 발현일에 전국 잔위 피정에 참가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셀장은 이은옥 유스티나이다. 각 셀장은 파티마의 모후 김재정 요안나, 티없으신 모후 이정자 올리아, 자비의 모후 김보미 세실리아, 애덕의 모후 이현주 로사, 희망의 모후 이회영 스텔라, 평화의 모후 성지훈 막시모로 총 56명이다.

4. 성체조배회



(1) 설립일: 2023년 2월 5일

(2) 설립목적

모든 교우가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통하여 성체 공경과 성체 신심을 증진하고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신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3) 주요활동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회원들은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헌과 희생을 실천하고 있으며, 성체조배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및 현재 회장은 오선자 모니카이며 회원은 63명이다.

5. 카리타스회(호스피스 봉사회)



(1) 설립일: 2024년 11월 17일

(2) 설립 목적

카리타스(Caritas: 사랑) 정신으로,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복음적 생활로 이끌며, 심신 건강 유지, 생활의 안정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영적,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임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활동

입원 중인 환우 및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도움을 주며 병자 안수 축복식, 병자 봉성체, 사별가족 초청 위로미사 등에 참여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회장은 오희주 아네스이고 현재 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6. 예비신자 봉사회



(1) **설립일:** 본당 설립 초기부터 예비자교리반 봉사단으로 활동하였고, 2022년 9월 25일 예비신자봉사회로 재조직됐다.

(2) 설립목적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새 영세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3) 주요활동

매년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이 예비신자 교리, 성경 필사, 사제 면담, 성지순례 등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결석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 보강 수업을 하고, 견진성사를 위한 지원과 봉사를 병행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한숙현 주리아 회장을 포함하여 9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7. 가톨릭성서모임



(1) **설립일:** ‘아버이 성서모임’으로 시작되어 1983년부터 가톨릭 성서모임 정릉지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직화됐다.

(2) 설립목적

하느님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가톨릭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 성장, 전례를 생활화하고, 그룹 공부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말씀의 봉사자를 양성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주요활동

말씀의 봉사자와 함께 성경공부와 묵상을 나누며 연수프로그램 참가 후 1년 과정을 수료한다. 현재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 마태오, 코린토 그룹이 개설되어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회장은 정정숙 아나다시아이며 현재 김은선 베르뫼라 회장과 6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8. 울뜨레야



(1) 설립일: 1975년 2월 2일

(2) 설립목적

꾸르실료(Cursillo)를 수료한 형제자매들의 모임을 울뜨레야라고 하며, 1949년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앙운동 단체이다. 꾸르실료의 목적은 ‘이상, 순종, 사랑’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정기적 회합을 통해 신앙체험을 나누고 개인의 신심 함양과 쇠신을 도모한다.

(3) 주요활동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각자 본당의 소속 단체와 교회 단체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한다. 연 2~3회 남성과 여성 체험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팀 회합과 월1회 정기 회합을 통해 꾸르실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간사는 남규백 프란치스코, 현재 간사는 정상경 요셉이며 60여 명의 회원이 있다.

9. 성소후원회



(1) 설립일: 1997년 6월 7일

(2) 설립목적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 계발 및 육성과 회원공동체의 사도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제 지망자들의 신학교 입학부터 사제 수품 기간까지 영적, 물적으로 지원해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3) 주요활동

사제, 수도자, 성소자의 양성을 지원한다. 교구의 신학생을 후원하고 본당 출신 사제, 부제의 근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양화희 세실리아이며, 현재 이토다 실비아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회원 12명, 후원회원 223명이다.

10. 해설단



(1) **설립일:** 1998년 11월 전례단으로 시작하여 2022년 11월 1일 해설단과 독서단으로 분리됐다.

(2) 설립목적

미사 해설을 통하여 미사 전례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제와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여 신심 함양과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됐다.

(3) 주요활동

주일 및 평일 미사에서 미사 해설을 하고 있으며, 본당의 주요 행사시 전례에 관련된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매월 단원 간의 정기 회합을 개최하며 원활한 미사 해설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전례단장은 김현 요셉이며 현재 백금화 로사 단장을 중심으로 12명이 봉사를 하고 있다.

11. 독서단



(1) **설립일:** 1998년 11월 전례단으로 시작하여 2022년 11월 1일 해설단과 독서단으로 분리됐다.

(2) 설립목적

미사 전례 안에서 독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록하고 원활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3) 주요활동

모든 미사에서 제1, 2독서 및 보편지향기도를 담당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구연지 글라라 단장을 중심으로 13명이 봉사를 하고 있다.

12. 반주단



(1) 설립일: 1998년 4월

(2) 설립목적

미사 전례시 성가 반주를 통하여 전례를 더욱 은혜롭고 풍요롭게 이끌어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고 자발적인 자세로 봉사를 하며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반주단은 성가대의 찬송이 없는 평일미사와 일요일 새벽미사에 반주로 성가를 이끌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반주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레슨을 병행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이경하 엘리사벳 단장을 중심으로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13. 신창단



(1) 설립일: 2022년 11월 22일

(2) 설립목적

성가대 없는 평일미사 때 교우들이 한 목소리로 성가를 이어 부를 수 있도록 선창단을 설립했다.

(3) 주요활동

평일미사 및 주일 새벽미사에서 성가 선창에 따라 교우들이 성가를 따라 부르게 되어 안정된 성가 봉헌으로 교우들이 미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박희요 알로이시아 단장을 중심으로 5명이 활동하고 있다.

14. 제대회



(1) **설립일:** 1974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76년 1월 첫 성전 준공 당시부터 ‘제대회’라는 공식 단체로 됐다.

(2) 설립목적

본당의 공식적인 전례가 성스럽고 정결하며 가장 아름답게 봉헌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교우들이 미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한다.

(3) 주요활동

본당의 모든 미사 전례를 준비하고 제의실의 모든 전례용품과 각종 물품을 관리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이지연 카타리나 회장을 중심으로 10명이 봉사하고 있다.

15. 헌화회



(1) 설립일: 1976년 1월

(2) 설립목적

헌화회는 전례 시기에 맞춰 주님의 현존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꽃
꽂이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다.

(3) 주요활동

주일 및 대축일, 전례 시기에 맞추어 꽃과 소품으로 제대를 장식하고, 혼인미사와 세
례식 등 본당 행사를 위한 꽃장식 및 꽃다발을 제작하고 준비한다. 매주 금요일이 정
기회합일이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은 조영순 막달레나이며 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6. 성진봉사회



(1) 설립일: 2001년 6월 8일

(2) 설립목적

성체 분배의 권한을 부여받은 평신도 단체로서 봉사자는 미사 중의 영성체 예식 때 사제의 지시에 따라 성체 분배를 한다.

(3) 주요활동

세례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50세 이상 남성 교우로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 교구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성체 분배자 교육을 수료한다. 교육 수료후 교구장으로 부터 성체분배의 비정규 집전자 권한을 부여받아 성체 분배권을 부여받는다. 대축일과 교중미사에서 성체 분배를 하며, 회원들은 월례회의와 성체조배를 통하여 신심을 함양하고 친교 행사에 참석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권영재 마르띠노, 현재 회장은 장현선 스테파노이며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17. 시몬회



(1) 설립일: 2023년 6월 7일

(2) 설립목적

평일미사에서 주례사제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3) 주요활동

평일 미사에 성인 복사로서 봉사하며, 본당의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월례회의를 통하여 복사단의 발전과 단원 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박혜정 페트라이고 현재 회장은 김재정 요안나이며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8. 파티마성가대



(1) **설립일:** 1974년 10월 ‘어버이 성가대’로 설립, 2013년 2월 ‘파티마 성가대’로 명칭 변경

(2) 설립목적

성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지향하고, 성가 전례를 통해 신자들의 심신 함양에 밑거름이 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1974년 설립된 이후 1976년에 어머니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시작으로 2004년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성가발표회를 개최했다. 또한, 영등포교도소, 군부대 위문 공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병행했다. 2012년 10월 여의도성가대 제1회 정기연주회, 2013년 9월 반포성당 하느님의 종 전례음악회, 2014년 제2회 파티마성가대 정기연주회 및 다수의 전례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및 미사 전후로 정기 회합과 연습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현재 단장은 김민철 토마스아퀴나스이고 지휘자 송민선 아녜스, 반주자 오윤경 프란체스카, 단원 38명이 활동하고 있다.

19. 쌍투스성가대



(1) 설립일: 2022년 11월 28일

(2) 설립목적

본당 전례에 성가 합창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시니어들의 참여로 본당의 신구 세대 간 화합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설립됐다. '성가는 2배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듯이 성가를 통하여 교우들을 기도의 길로 이끌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도록 돕는다.

(3) 주요활동

시니어로 이루어진 쌍투스성가대는 여의도동 본당의 토요저녁주일미사에서 성가 봉사를 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우리 몸을 악기 삼아 아름다운 가락으로 성가를 주대전에 바침으로써 미사 전례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 미사 전후로 회합 및 성가 연습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현재 단장은 김지수 노엘이고 지휘자 황정선 세실리아, 반주자 조은비 리디아, 단원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20. 우니따스챔버 오케스트라



(1) 설립일: 2022년 12월 11일

(2) 설립목적

현악기와 관악기의 앙상블로 성가 반주를 풍성하게 하고, 전례 중의 미사곡을 다채롭게 연주함으로써 경건하고 거룩한 미사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우니따스챔버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3) 주요활동

매주 교중미사에서 성가대와 호흡을 맞추어 연주로 봉사하고 단원 간의 화합과 친교, 그리고 성가연주 연습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김혜은 마리아막달레나 회장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연주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데레사회



(1) 설립일: 1973년 9월 23일

(2) 설립목적

성녀 소화 데레사의 겸손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위로 함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헌신과 봉사를 하며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신앙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본당이 공소일 때 설립된 첫 번째 단체로 교우들 간의 애경사를 함께 하며 입교 권면 활동 등 성당으로 승격하기까지 본당의 성장에 기여했다. 성당 승격 후 여성구역과 연령회, 레지오 등의 단체들과 활동을 공유하였고, 성전신축공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와 장터를 개최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회장은 전정애 율리아나이고, 현재 회장은 권장숙 베로니카로 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2.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1) 설립일: 2019년 10월 21일

(2) 설립목적

성 빈첸시오의 정신에 따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불우 이웃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회원들의 친교와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월 1회 기도와 함께 진실한 자세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후원 대상 선정을 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윤범로 스테파노이고 현재는 임경선 루갈다 회장을 중심으로 34명의 후원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23. 군중부원회



(1) 설립일: 1988년 7월 1일

(2) 설립목적

군인과 그 가족에게 가톨릭 선교 및 사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신앙이 없는 장병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기쁨을 알려주며, 신자인 장병들에게는 믿음과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군복음화에 헌신하는 군종사제들의 군중 사목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3) 주요활동

군성당의 영세, 서적,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군성당의 사제관, 교육관의 신축 및 보수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지회장은 박종순 올리엣다이며, 현재 정소영 파비올라 회장을 중심으로 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4. 해외신교후원회



(1) 설립일: 2023년 1월 29일

(2) 설립목적

2023년 사목교서지침에 따라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해외의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가난한 교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3) 주요활동

회원모집과 모금 활동을 하고 후원사업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 및 후원을 한다. 2023년 페루 공소 건립 지원, 2024년은 카메룬 바피야교구 돕기 및 '목주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이순주 요안나이고 현재 김설주 멜라니아 회장과 활동회원 13명, 후원회원 75명이 활동하고 있다.

25. 청년협의회



(1) 설립일: 1999년 11월 1일

(2) 설립목적

본당 청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또한, 각 청년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 사목을 모색하는 한편, 전교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주요활동

청년 여름 캠프 및 피정, 청년 부활축제 및 성탄 축제, 친교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대 교구 및 제14지구 청년연합회 정기 회합과 본당 내 각종 청년 행사를 준비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단체장은 현재 공석으로, 청년전례단 임원진과 청년성가대 임원진이 함께 청년연합 활동을 준비, 집행하고 있다.

26. 청년 전례단



(1) 설립일: 1998년 8월

(2) 설립목적

청년 미사의 해설과 독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룩한 미사 성제가 되도록 사제의 미사 집전을 보좌한다. 전례 봉사를 통해 단원들의 신심을 일깨우는 한편, 모든 전례 예식과 미사의 중요성을 청년들에게 알림으로써 청년 교우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

(3) 주요활동

주일 청년 미사의 모든 전례와 행사를 주관한다. 또한 매년 2회 교구 주관 전례 학교의 전례 교육과 단원 간 친목 도모 및 영적 활력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단장은 윤지숙 리더이며 1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7. 청년성가대



(1) 설립일: 1980년 8월 15일

(2) 설립목적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 각자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신앙인다운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더 나아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성당의 봉사활동에 충실하고, 성가 전례를 통해 청년미사를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다.

(3) 주요활동

전례 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정하여 연습하고, 혼배미사에서 성가로 봉사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단장은 이다솜 리더아이고 한주영 마르치아가 지휘자로, 조은정 크리스티나가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가대원은 21명이다.

28. 청년성서모임



(1) 설립일: 1993년 1월

(2) 설립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청년 신자들의 모임이다. 모든 청년들이 성서를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의 생활화와 삶의 복음화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3) 주요활동

매년 봄학기과 가을학기의 성서모임 과정을 운영하며 각 과정 이수자는 청년, 직장인 연수 파견 후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단장은 박주희 미카엘라이며 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9. 초등부 교사회



(1) **설립일:** 초기의 주일학교는 1975년 무렵 청년협의회에서 담당했으며 정식으로 교사회라는 단체로 독립한 시기는 1980년도 초반이다.

(2) 설립목적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신앙 교육과 감동적인 체험을 통해 신앙심을 키워나가며,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주요활동

방학을 제외한 매주 어린이미사 후에 유초등부 어린이에게 교리교육을 하고 있으며 캠프 및 행사를 진행한다. 교구 교육국 교재를 토대로 하여 담당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재 및 월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리를 진행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교감은 최종인 에프렘, 현재 교감은 이희준 소화테레사이며 교사는 총 10명이다.

30. 중고등부 교사회



(1) **설립일:** 1975년도부터 청년협의회 소속의 교사회와 성가대에서 담당하다가 1980년에 정식으로 주일학교 교사회라는 단체로 독립되어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분리됐다.

(2) 설립목적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리 교육과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하느님의 올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운영과 교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교사 개개인의 성화와 본당발전에 기여한다.

(3) 주요활동

교리경시대회와 사생대회를 실시하고 교사 신심 함양 및 친교 활동을 하며 각종 연수에 참가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교감은 박대웅 요한, 현재 교감은 안홍재 미카엘이며 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1. 복사단



(1) 설립일: 1979년

(2) 설립목적

복사는 사제를 도와 거룩한 미사성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한다.

(3) 주요활동

전례를 보조하고 성소 주일에 행사의 일환으로 신학교를 방문한다. 또한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피정과 캠프에 참여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단장은 박도진 프란치스코이고 회원수는 총 39명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이 활동 중이다.

32. 복사단 지모회



(1) 설립일: 1995년 2월

(2) 설립목적

복사단이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복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신앙심을 성장시킨다.

(3) 주요활동

복사단 여름 피정, 겨울 스키캠프, 성소 주일 행사를 지원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은 채윤희 아녜스이며 총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주일학교 지모회



(1) 설립일: 1986년 2월

(2) 설립목적

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며 주일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3) 주요활동

주일학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활동을 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자모회장은 이택영 히야친타이며, 현재 자모회장은 홍윤교 도미니카, 중고등부 회장은 강승혜 헬레나, 초등부 회장은 김영주 스텔라이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년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34. 대진회



(1) 설립일: 2023년 7월 9일

(2) 설립목적

주일학교 자부 모임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30~50대의 형제 교우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모여 신앙을 키우고 친교를 나누며 교회에 봉사하고 가정 성화를 위해 힘쓴다.

(3) 주요활동

주일학교 활동 및 본당 행사를 지원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은 염현호 하상바오로이며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5. 안젤루스도미니(어린이 성가대)



(1) **설립일:** 1975년 창단되었고 2023년 안젤루스도미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설립 목적**

라틴어로 ‘주님의 천사’라는 뜻의 안젤루스도미니는 초등부 주일학교 소속의 어린이 성가대로 어린이 미사에서 성가로 전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다.

(3) **주요 활동**

어린이 미사에서 성가 및 특송 봉헌을 하고 본당 성가 관련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5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과 협연하였으며 50주년 기념음악회에도 참가하였다.

(4) **조직 및 구성원**

지도교사로 원지선 크리스티나, 이희준 소화데레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24명으로 소프라노 13명, 알토 11명이다.

36. 여의도 메리지 엔카운터(M.E)



(1) 설립일: 1981년 4월 29일

(2) 설립목적

M.E 주말 강습을 수료한 부부들이 모여 신앙을 바탕으로 진실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부부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느님 계획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매월 본당의 정기 모임과 15지구 모임을 하고, ‘참 부부가 되는 길’, ‘참 부모가 되는 길’, ‘혼인 갱신식’을 통해 부부와 이웃의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김정식 안젤모, 강미영 데끌라 부부이고, 현재 회장은 최상원 미카엘, 진현희 미카엘라 부부이며 회원수는 16명이다.

37. 녀섬 시니어 아카데미



(1) **설립일:** 1987년 9월 11일 노인대학이 설립된 후 2011년 2월 녀섬 시니어 아카데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설립목적

신앙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뿌리내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원숙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 및 주요활동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3년 9월 다시 개강하였으며, 3월~7월, 9월~12월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전체 강의, 점심, 동아리 수업으로 진행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학장은 심필구 비오이고, 2023년 9월 개편된 이후 학장 고정원 소화데레사를 중심으로 8명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등록 회원수는 65명이다.

38. 성지순례회



(1) 설립일: 2022년 9월 25일

(2) 설립목적

성인들의 묘소와 성당 등의 성지를 순례하며 신앙 선조의 숭고한 삶과 거룩한 정신을 본받아 신앙심을 키우고, 함께하는 교우들과의 친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성지순례를 희망하는 교우들의 요구에 맞추어 성지순례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할 성지순례회가 조직됐으며 순례지 선정 및 사전 답사, 순례 당일 순례자 인솔 등의 활동을 한다. 2022년 10월 29일 성지순례회 설립 이후 배론 성지 순례를 시작으로 각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성지순례회의 회원은 120여 명이며 초대 회장은 김유진 글라라, 현재 변원섭 프란치스코 회장을 중심으로 10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39. 50년사편찬위원회



(1) 설립일: 2023년 2월 28일

(2) 설립목적

2024년 9월 17일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여의도동 본당 5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50년사 편찬과 동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직됐다.

(3) 주요활동

여의도동성당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후세에 남길 기록 자료로 본당 50년사를 발간한다. 본당의 변천사, 역대 사제와 수도자의 봉사와 희생, 평신도의 활동, 본당 건축과 성물의 의미, 각 단체의 활동, 본당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본당 설립 후 30년간의 내용은 이미 발간된 본당 20년사와 30년사를 참고하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는 20년간에 관한 내용은 인터뷰 및 자료수집을 기초로 작성했다.

(4) 조직 및 구성원

위원장은 조윤곤 요셉이며 8명의 편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40. 파티마장학회



(1) 설립일

1990년 1월 14일 여의도동성당 장학회로 발족하였으며 2023년 7월 16일 파티마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재정비했다.

(2) 설립목적

장학회의 목적은 소득이 낮은 지역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그 지역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주요활동

주요 활동 내용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기금 마련과 관리, 그리고 후원 회원 모집이다. 초기의 장학금 수혜대상은 농촌과 탄광촌의 중고등학생이었고, 현재는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은 당시 사목회장이던 이관진 베드로이며, 파티마장학회로 재정비한 후 현재 이병지 프란치스코 회장과 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41. 성물방 봉사회



(1) 설립일: 2023년

(2) 설립목적

성물방 봉사회는 가톨릭 성물을 판매하는 단체로 성물 구입의 편리성에 도움을 주며 성물을 통하여 신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활동

평일 화~금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주일은 오전 9시 미사 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활동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 이영인 울리아를 중심으로 14명의 회원이 봉사하고 있다.

제3장 동호회

1. 티볼등산회



(1) 설립일: 2024년 2월 18일

(2) 설립목적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느끼며 친교를 나누고 영육간의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고자 설립했다. 타볼등산회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타볼산(Mt. Tabor)을 기억하며 지어졌다.

(3) 주요활동

2024년 3월 23일 안산자락길 산행으로 시작하여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 산행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조향진 스테파노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여당회



(1) 설립일: 2023년 6월 3일 재조직

(2) 설립목적

당구를 통한 본당 공동체 형제들의 친교와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하여 조직됐다.

(3) 주요활동

여당회의 재정비와 함께 2023년 6월 제1회 구역별 당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주 미사 후 활동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이주명 라우렌시오 회장을 중심으로 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오카리나반



(1) 설립일: 2023년

(2) 설립목적

오카리나 동호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배우며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와 친교를 도모한다.

(3) 주요활동

오카리나는 배우기 쉬우면서 음역도 비교적 넓어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사용될 만큼 전문적인 연주도 가능한 악기로 매주 1회 전문 강사에게 오카리나 연주법을 지도받으며 연 2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 임은아 도미니카 외 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4. 통기타반



(1) 설립일: 2022년 12월

(2) 설립목적

가장 대중적인 악기인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배우고 연주하며 친교를 나누기 위하여 창단됐다.

(3) 주요활동

매주 금요일 원성기 강사에게 연주법을 지도 받으며 연습을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초대 회장으로 김정미 안나 외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영어성경공부반



(1) 설립일: 2007년 9월

(2) 설립목적

본당 교우들의 신심 강화를 위한 성경공부를 영어로 진행하여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묘미를 접하고 회원 간의 친교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3) 주요활동

주 1회 각 회원이 영어 성경을 읽은 후 패트릭 수사에게 성경 구절의 의미, 그 당시 시대상으로 해석한 성경의 의미와 배경 등을 들으며 성경의 진정한 뜻을 되새기고 신앙을 돈독히 하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카푸친 작은형제회(Order of Friars Minor Capuchin) 소속 패트릭 수사가 영어 성경을 지도하고 있다. 이종수 베네딕토가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수는 23명이다.

6. 라인댄스반



(1) 설립일: 2010년

(2) 설립목적

라인댄스는 안무가 단순하고 쉬워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건강에 좋은 춤이다. 라인댄스반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여 즐겁게 춤을 추면서 실력을 키우고 친교를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3) 주요활동

전문 강사에게 라인댄스를 지도받고 있으며,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서 공연한다.

(4) 조직 및 구성원

중급반은 총무 남효숙 루시아 외 34명, 초급반은 총무 김은옥 수산나 외 약 4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7. 하모니카반



(1) 설립일: 2015년 3월 20일

(2) 설립목적

하모니카 연주 활동을 통해 친교를 도모하며,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본당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생활한다.

(3) 주요활동

주 1회 연습을 하고 정기 연주 공연을 한다. 2017년 5월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무궁화꽃 기념회에서 연주 공연을 했다.

(4) 조직 및 구성원

회장은 노영숙 스테파니아이며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안젤루스(어린이 실내악단)



(1) 설립일: 2022년 9월

(2) 설립목적

라틴어로 ‘천사’라는 뜻을 가진 안젤루스 어린이 실내악단은 다양한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통해 문화 선교와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의도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여의도동성당 공동체의 친교를 위하여 조직됐다.

(3) 주요활동

주 2회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한다. 2023년 1월 15일 첫 연주 발표회를 시작으로 4회의 발표회를 하였으며,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연주 공연을 했다.

(4) 조직 및 구성원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9. 플루트반



(1) 설립일: 2023년 10월 7일

(2) 설립목적

플루트에 관심 있는 교우들과 함께 연습하며 연주 실력을 쌓는다. 또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앙상블 연주를 통해 공동체와의 화합을 이루며 세상에 봉사함으로써 보람 있고 기쁜 신앙생활을 한다.

(3) 주요활동

매주 1회 전문 강사의 개별 맞춤 레슨으로 플루트 주법, 성가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배우고 연습한다. 또한, 앙상블 연주를 통해 함께 화음을 맞추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고 있다.

(4) 조직 및 구성원

전문 강사 1명과 8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6편

본당 건축과 성물

제1장 본당 건축물

1. 공소
2. 첫 성전
3. 두 번째 성전 신축
4. 현 성전 보수·증축
5. 환경개선 공사
6. 성모동산

제2장 본당 성물



1974-2024

제1장 본당 건축물

본당 건축물의 역사

1972. 12. 19.	성모병원진료소(유치원건물 2층)에서 첫 미사 봉헌
1973. 5. 18.	영등포성당 여의도공소 인가
1973. 10. 1.	공소로 시범아파트 19동 12호(임대), 6동 26호(구입) 사용
1974. 9. 17.	여의도동성당 승격(설립기념일)
1975. 5. 23.	첫 성전 기공식(현 성모병원 옆 마리아관 대지 213평)
1976. 1. 25.	첫 성전 축성식
1977. 12. 23.	현 성당 부지 구입(당시 유치원건물 700평)
1980. 3. 1.	유치원 건물 개조·증축 후 성당으로 사용
1982. 9. 26.	현 성전 기공식(두번째 성전)
1984. 4. 28.	현 성전 축성식
2008. 8. 3.	현 성전 보수·증축 기공식
2009. 11. 29.	현 성전 보수·증축 축복식
2019. 7. 9.	현 성전 환경개선 공사 시작
2020. 11. 30.	현 성전 환경개선 공사 완료

본당 건축물 Milestones

여의도동성당
승격 후 첫 성전



1976년

1973년



영등포성당
여의도공소
(시범아파트)

1980년



유치원건물
증축 후
성당으로 사용

1984년



현 성전 건립 축성

2009년



현 성전 보수·증축 축복

2020년

현 성전
환경개선



1. 공소

1971년부터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교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당시 약 30명의 교우들은 정기적인 미사를 원했고, 이 요구에 응하여 1972년 12월 19일 성모병원 진료소(유치원건물 2층)에서 당산동성당 김대성 바오로 주임신부의 주례로 감격적인 첫 미사가 봉헌되며 여의도동성당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후 교우들의 의견을 모아 1972년 3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 공소 설립을 요청하여 같은 해 5월 18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영등포성당 여의도공소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영등포성당의 공소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영등포성당의 장덕필 니콜라오 주임신부가 매주 방문하여 미사를 주례했다. 장 신부는 교구에서 2백만원을 차입하여 시범아파트 24평의 19동 12호를 6개월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같은 평수의 6동 26호를 매입하여 임시 공소로 사용했다.



공소로 사용한 24평 시범아파트



시범 19동 12호 / 6동 26호 평면도(24평형 / 전용면적 63.7㎡)

‘여의도성당 20년사’에는 시범아파트 6동 26호에서 첫 미사를 드렸을 때 교우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우들의 갈망과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1974년 9월 1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동성당으로 승격되어 이 날이 본당의 창립일이 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가 여의도동 본당의 초대신부로 부임했다.

2. 첫 성전

여의도동성당은 본당으로 승격한 이후에도 1년여 동안 평일 미사는 24평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주일 미사는 성모병원 강당을 빌려서 봉헌했다. 첫 주임신부인 최 신부는 성전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80여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성전 건립의 필요성과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304명 교우들의 성전 건립을 위한 희생과 노력, 그리고 무한한 봉사로 1975년 3월 23일 부활절에 현 성모병원 옆 마리아관의 대지 213평을 구입하여 건물 면적 150평 규모의 첫 성전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했다. 원래 교구에서 할당받은 면적은 350평이었으나 실측 결과 213평이었다. 기공식 후 약 10개월 만에 새 성전이 완공되어 1976년 1월 25일에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축성식과 기념 미사를 거행했다. 이날의 감격은 20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교우들은 성당 한 구석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첫 성전의 공사비는 2,500만원으로 교우기부금 1,900만원, 본당 지원 150만원, 교구차입 450만원이었다. 이 시기는 여의도와 강남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로 공사 자재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그러나 성전의 공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공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성전 기공식(1975. 3. 23.)



첫 성전 축성식(1976. 1. 25.)



첫 성전 내부



첫 성전 앞 영세기념(1979. 12. 24.)

3. 두 번째 성전 신축

(1) 여의도유치원 건물 매입 및 개축

첫 성전이 완공된 1976년에 교우수는 793명으로, 성전을 처음 논의하던 1975년의 414명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당연히 성전 건립 당시의 기준으로 했던 교우 규모를 초과하였고 급증한 교우들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다시 성전 증축이 논의되었으나 현 부지는 너무 협소했고 재원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 부지의 추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성모병원 또한 증축 계획이 있어 더 이상의 부지확보는 어려웠다. 다른 대안으로 그 당시 매물로 나온 여의도유치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77년 12월 23일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성전을 갈구하고 기도한 덕에 현 성당 부지 (당시 유치원건물 700평)를 1억 9천만원에 매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매입 후에는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축·증축을 하였고, 1980년 3월부터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됐다.



여의도유치원 건물

여의도유치원 매입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주님의 기적이었다.

(2) 성전 신축 논의

1981년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와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행사 등이 거행된 해이다. 이로 인해 교세가 확장되었고 교우도 급증하여 1978년 1,519명이었던 교우수는 1981년에 2,768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그리하여 기존의 건물로 원활한 미사가 어려워지자 또다시 성전 신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전 건립과 두 번째의 유치원 건물 매입 후 개축·증축 공사 등으로 이미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추가로 건축비를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포화 상태가 된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김택암 베드로 신부는 성전 신축을 결정하였고 1981년 10월 11일 '새성전 신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새성전 신축 추진위원회의 필사적인 노력과 교우들의 염원으로 성당 신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1982년 6월 27일, 2차 공청회는 7월 14일에 미사 후 개최됐다. 이 당시는 환등기를 이용하여 신축 설계도면을 설명하고 전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981년 11월 29일부터 새 성전 축성식이 있었던 1984년 4월 28일 전까지 매일 미사 때 마다 '성전 건립을 위한 봉헌기도'를 바치며 새 성전을 기다렸다.

(3) 성전 신축 착수

임시성당(성모병원)

성전 신축을 위한 설계가 완성되고 1982년 8월에 성모병원(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성당을 이전하는 등 새 성전 신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성모병원의 증축이 시작되어 임시 성당은 1983년 7월 다시 신축 중인 성당 공사장 앞마당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난관을 겪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의도동 교우들의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성전 신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성전 신축 기공식

신축 공사는 1982년 9월 26일 경갑룡 요셉 주교의 주례로 기공식을 거행하며 시작됐다. 두 번째 성전은 김영섭 시몬 건축가가 설계하였고, 삼익건설이 시공했다. 김 신부는 새 성전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고민하고 감독하였고, 여의도동 본당 구석구석 김 신부의 열정과 혼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성전 신축 기공식(1982. 9. 26.)

(4) 성전 준공

신축된 성전은 대지 2,314㎡(700평), 건축면적 1,064.77㎡(322평), 연면적 3,677.4㎡(1,115평)으로 건립됐다.

층	면적	용도
지하층	921.18m ² (279평)	기계실 및 소성당
1층	963.85m ² (292평)	유치원, 회합실, 사무실
2층	972.77m ² (295평)	대성전, 사제관, 회합실
중2층	109.44m ² (33평)	성가대
3층	598.09m ² (182평)	보좌신부 사제관, 수녀원, 폐백실
4층	112.05m ² (34평)	손님신부방
합계	3,677.40m ² (1,115평)	

신축 성금과 기금 약 13억 원으로 현 성전을 완공하였고 1984년 4월 28일에는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새 성전 축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 당시의 교우수는 1981년 2,768명에서 1984년 4,325명으로 1.6배 급증했다.

성전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봉헌되었으며 150주년 기념 구호인 ‘하나로’의 콘셉트로 설계됐다. 성당의 바닥은 부채꼴 모양으로 제대를 향하여 ‘하나로의 모임’을 뜻하고 있다. 맨 뒷좌석에서도 제대가 잘 보이도록 약 5도의 경사를 만들어 교우들이 사제와 한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전의 디자인은 돌무덤을 모티브로 하여 벽면은 콘크리트로 하고 문은 육중하게 만들었다. 내부 벽면은 노출콘크리트 공법(루돌프 콘크리트 공법)으로 자연재와 가깝게 콘크리트로 마감한 후 표면을 다시 조각하여 마치 자연 암석과 같은 형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음향 효과와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페인트칠이 필요 없어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된다. 성전 정문은 단순하고 육중하며 잔무늬로 조각하여 마치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았던 바위를 연상케 한다.

제대 앞의 4개 계단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40일간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양쪽의

벽면은 정점을 향하여 세 면이 모여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붕 위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웠다. 이 형상은 평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나 '하나로의 모임'을 상징하고 있다. 여의도동 본당 교우들은 신비하고 경건한 성전에서 항상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축 성전 축성(1984. 4. 28.)

성전 내부 모습



+ 천정의 33개 전등 : 천정은 예수님의 33세 나이에 맞춘 33개 전등이 둥근 모양으로 성당 안을 비춤

+ 정면의 부활상 : 돌무덤의 형상인 성전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상징

+ 성전 중심부 : 성체를 모신 감실과 그 위에 수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고상'

+ 제단의 기둥 : 감실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3개씩의 웅장한 둥근 기둥이 있어 감실과 합하여 모두 7개, 즉, 7성사를 상징



+ 제대 앞 4계단 : 예수님께서 겪으신 40일간의 고난을 의미

+ 세로축·가로축으로 십자형의 부활상과 내벽 : 날개를 편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모두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여의도동 본당의 신축 성전 축성에 대한 기사는 1984년 5월 20일 가톨릭신문에 게재됐다.



가톨릭신문 1406호(1985. 5. 20.)

서울 여의도본당(주임·김택암 신부)은 1984년 4월 28일 오후 3시 8백여 본당교우들과 많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신축성당 축성식을 가졌다.

지난 81년 3월 25일 성전건립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던 여의도본당은 82년 9월 26일 공사에 돌입, 총 13억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1년6개월여 만에 새 성전을 마련했다. 이날 축성된 여의도동성당은 밀집된 아파트촌에 위치하면서도 건폐율을 낮게 설계, 현대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살렸다.

(5) 성전 건축의 설계

김영섭 시몬 건축가가 성전을 설계했다. 김 건축가는 현재 건축문화설계사무소 대표로 당시 교황 방문을 계기로 1983년 명동성당 리노베이션 때 책임 건축가로 활약하

였으며 세계 건축가 1000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일본 아트 디자인(Art Design)이 선정한 세계 건축가 51인에 선정된 인물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정릉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가톨릭대 성신교정 도서관 및 강의동’, ‘안양 중앙천주교회’, ‘초당 천주교회’ 등이 있다.

김택암 신부는 성전 설계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정릉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를 설계한 김영섭 시몬 건축가의 성전 설계 작품에 매료되어 그에게 설계를 부탁했다. 김 신부의 제안은 소박한 600석 규모의 성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설계 완료 후 김 건축가는 시공을 위한 건축, 설비, 전기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 기술자를 투입하여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완벽함을 보였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와 기초를 완료하고 1층 건물을 위한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여의도에 2개 정도의 성당을 계획하던 서울대교구에서 여의도에는 1개의 성당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성전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김 신부는 김 건축가에게 600석 규모의 성전을 1,200석 규모로 건설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당시의 시공 공정에서 성전의 규모를 2배로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 건축가는 요청사항 변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디자인 콘셉트를 유지한 채 확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원래의 디자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제대 공간 축소, 중2층 설치, 계단 돌림 등 현재 성전의 모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때 엘리베이터 공간은 고수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라고 김 건축가는 회고한다. 당시에는 없던 노출콘크리트공법을 적용한 벽면은 아늑한 디자인, 흡음효과, 경제적 유지관리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벽면과 제대에 어울리는 부활상 조각 등은 성전을 한층 경건하고 돋보이게 하고 있다.

50년을 맞이하며 김영섭 건축가는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못내 아쉬웠던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즉, 막힌 천창을 어느 정도 개방감있게 만들어 자연광이 제대를 신비롭게 비추게 하는 것, 부활상이 성전 규모로 볼 때 작게 보일 수 있으므로 나무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부 천장의 십자가에 미적 요소를 가미하여 가늘고 높게 설치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여의도에도 제2의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의도 재개발과 함께 천주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합 기능의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24년 4월16일에는 본당을 방문하여 여의도동 성전 건축에 대한 구상 배경과 회고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9월 1일에 거행된 50주년 기념미사에서 ‘여의도동성당 설계 및 건축 자문’의 공로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성전건축 특강(2024. 4. 16.)



공로패 수상(2024. 9. 1.)

4. 현 성전 보수·증축

(1) 성전 보수·증축 필요성

1984년에 준공되어 사용하던 성전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여러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본당 교우의 증가에 따라 교리실과 회합실은 늘 부족했고, 사제관과 수녀원은 매우 노후화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겪던 교우들은 성전 증축을 희망했고 김충수 신

부는 이러한 교우들의 간청에 따라 성전 보수와 증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5월, 본당 보수·증축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12월 성전 보수 및 교육관 증축을 결정하고 바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성전 증축에 대하여 약 1년여에 걸친 검토와 중지를 모아 공사의 범위는 노후시설 보수와 300평 지하시설 증축으로 결정됐다. 이 지하시설에는 소성당, 교리실 및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2) 성전 보수·증축 및 축성식

보수·증축 개요

2008년 1월부터 성전보수 및 교육관 증축공사의 안내서가 배부되었고, 2월에 본당 원설계자인 김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4월 6일에 김충수 신부는 성전보수 및 증축공사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주보 2008년 4월 6일자). 같은 해 7월 (주)코렘시스템이 선정되어 성전보수 및 증축공사를 하게 됐다. 8월 3일 성전보수 및 증축을 위한 기공식미사와 기공식을 거행한 후 8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12월 8일에는 사제관과 수녀원이 자이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2009년 4월 15일 사제관과 수녀원의 공사가 완료되어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다. 12월 10일과 2009년 3월 16일에는 안전기원미사를 봉헌했고, 보수·증축 공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성되어 9월 28일 본당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보수 및 증축공사 기공식(2008. 8. 3.)

완료된 성전은 지하2층~지상4층 건물로 기존의 연면적 3,677.4m²에서 4,996.25m²로 기존 면적대비 35.8%가 증가했다.

건물규모	지하 2층~지상 4층
대지면적	2,314m ²
건축면적/연면적	1,073.17m ² /4,996.25 m ²
용적율/건폐율	123.4%/46.4%
구조	RC조/경량철골조(일부)
외장마감	외벽-토석 벽돌, 지붕-동판
주차대수	옥외 12대, 옥내 14대, 계 26대
공사기간	2008. 8. 3. ~ 2009. 9. 28.
설계/시공사	건축문화연구소+렉스건축사사무소/(주)코렘시스



성전 공사 모습

보수·증축 준공 및 축성식

현재 우리 성전의 모습은 2008년 8월 3일부터 시작한 보수·증축 공사로 2009년 9월 준공된 성전이다. 11월 29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주례로 축성 미사가 거행되어 현재까지 우리 교우들의 경건하고 숭고한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신축된 성전은 대지 2,314m²(700평), 건축면적 1,064.77m²(322평), 연면적 4,996.25m²(1,514평)이다.

층	면적	용도
지하 2층	576.80m ²	에어로빅장, 회합실, 창고
지하 1층	1,564.38m ²	소성당, 식당, 회합실, 기계실
1층	1,036.10m ²	유치원, 사무실, 회합실, 성물판매소 등
2층	999.39m ²	대성전, 사제관
중2층	109.44m ²	대성전
3층	598.09m ²	대성전, 사제관, 수녀원
4층	112.05m ²	손님신부방, 사제관
합계	4,996.25m ²	



보수·증축 준공 축복식(2009. 11. 29.)

보수·증축 전과 후의 모습

성당 외관, 계단, 지하 1층 교육관과 회합실, 지하 2층 회합실 등이 새롭게 단장되어 교우들이 각 장소에서 편안하고 용이하게 친교 및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했다.

공사전(2008. 8.)



성당 전경



1층 주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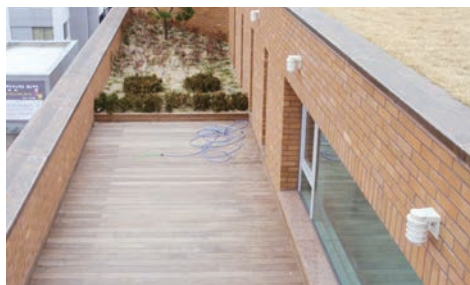


지하 1층 회합실과 홀



3층 옥상 조경공사

공사후(2009. 8.)



공사후(2009. 8.)



지하 1층 썬큰가든



지하 1층 교육관



지하 1층 회합실



지하 1층 주방



지하 1층 사물함



지하 2층 주차장 겹 홀



페백실(현 제의실)



2층 계단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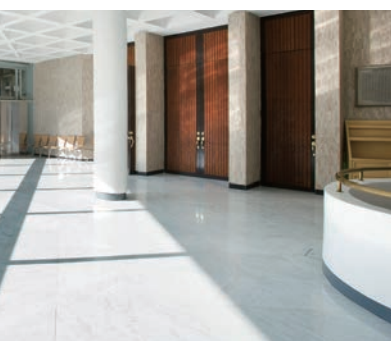
대성전



1층 홀



2층 홀



3층 홀



현 성전(주간)



현 성전(야간)

5. 환경개선공사

1984년 현재의 여의도동성당이 신축되었고 2008년 대대적으로 보수 및 증축을 한 이후 건물,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홍성학 신부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에 걸쳐 타일 및 바닥 교체, 지붕 교체 등 개선 공사를 했다. 이 때 사제관 및 수녀원의 바닥이 교체되었고, 욕실과 세면대 등이 교체되었다. 유치원 천정 누수로 인하여 지붕 공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외로 지하 회합실의 리모델링과 도색 공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각종 음향장치와 조명, 냉난방기도 교체되었다.



계단 도색작업(2019. 8.)



지붕교체공사(2020. 11.)

6. 성모동산

성전 마당의 성모상은 1975년 최용록 주임신부 시절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을 할 때, 한 교우가 대리석 성모상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여 기증했다. 1986년 초까지 성모상 뒤 장식 벽이 없어 황량하였는데 조순창 주임신부 재임하던 1986년 6월 24일에 성모상을 감싸는 벽을 세우고 뜰 안쪽에 성모상을 세우면서 아늑한 성모동산으로 변모했다.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축복식을 거행했다. 이 성모동산은 2009년 성전 공사 기간에 철거 후 붉은 벽돌로 재조성하였다.

2023년 5월에는 성모상 앞 아치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내용의 ‘AVE MARIA GRATIA PLENA’를 부착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성모상 주변의 조경공사를 하여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 성모동산을 조성했다.



성모동산



성모상(1986년 이전)



성모동산 축복식(1986. 8. 15.)



성모동산(1986. 8. 15.)



성모동산(2008)



성모동산 재조성(2009. 9. 28.)



현재 성모동산(20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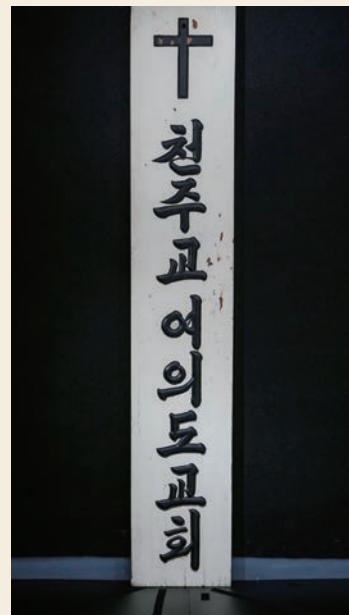
제2장 본당 성물



성모동산



성전 머릿돌



초창기 현판

1974년 공소가 성당으로 승격되면서 처음 사용한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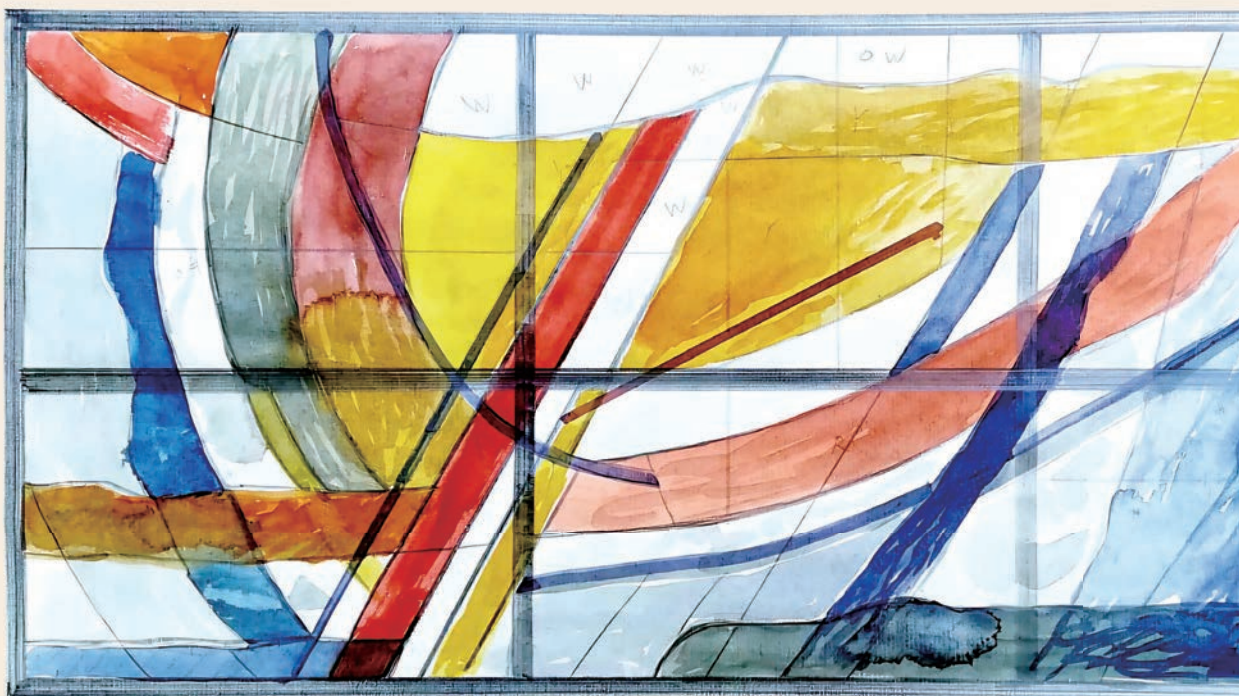
스테인드글라스 _ 성령 강림 | 최영심 빅토리아 作, 2024.





스테인드글라스 _ 노아의 방주 | 최영심 빅토리아 作, 2024.





노아의 방주 _ 작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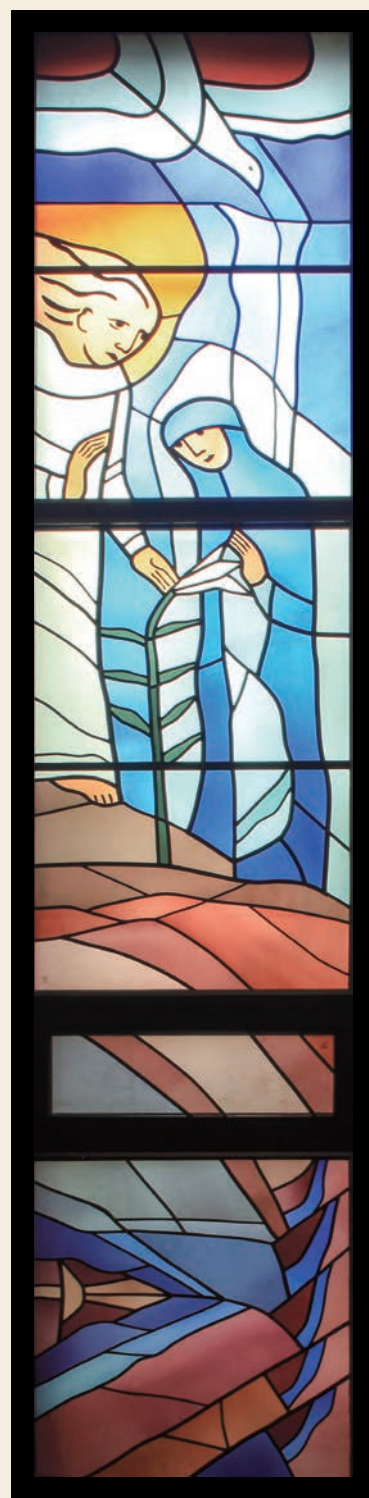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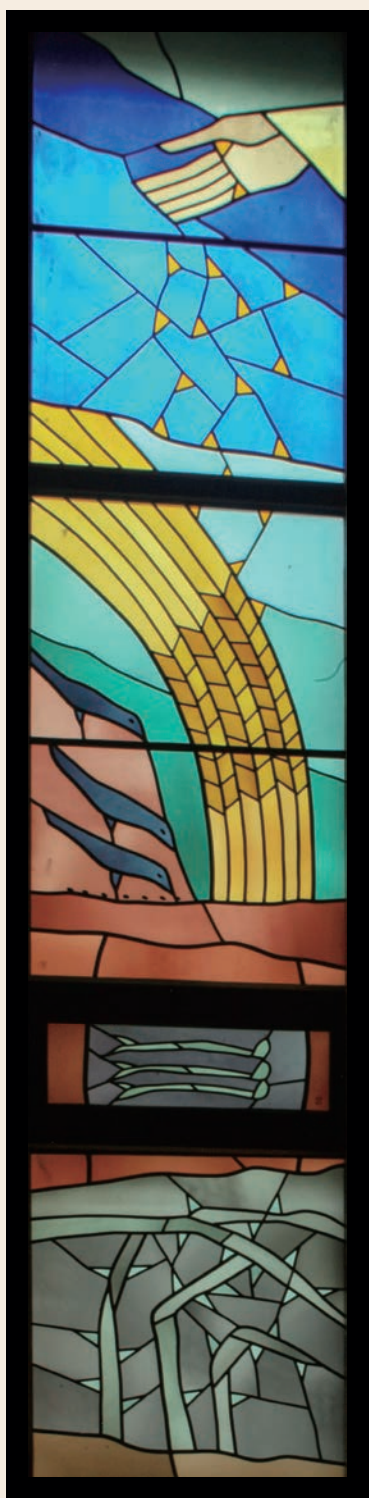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제작.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비둘기, 올리브 잎, 무지개'는 평화의 의미. 왼쪽 아랫부분에 뿌리 뽑힌 흰 나무 등걸과 떨어져 나간 나뭇잎이 떠다니는 모습은 사람이 하느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고 빛이 바래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품



성령강림 _ 작품 스케치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제작. 성령 강림의 은총의 빛줄기가 신자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내리꽂힘을 표현한 작품





스테인드글라스 _ 씨 뿌리는 자(좌), 성모영보(우) | 최영심 빅토리아 作, 2008.



스테인드글라스 _ 다니엘서의 불가마 안의 세 젊은이 | 최영심 빅토리아 작, 2008.



스테인드글라스 _ 비둘기, 올리브잎, 무지개가 드러나기 시작한 언덕의 땅 | 최영심 빅토리아 作, 2008.



스테인드글라스 _ 대성전 창 | 왜관 베네딕토수도원 유리화 공방

대성전 십자가



제1차 사형선고 받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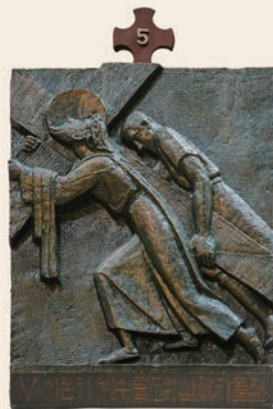
제2차 십자가를 지심



제3차 첫 번째 넘어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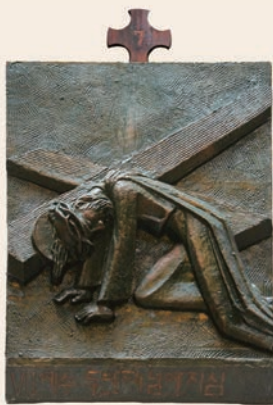
제4차 성모님을 만나심



제5차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제6차 베로니카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



제7차 두 번째 넘어지심



제8차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제9차 세 번째 넘어지심



제10처 옷벗김 당하심



제11처 십자가에 못박히심



제12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



제13처 십자가에서 내리심



제14처 무덤에 묻히심



대성전

성전의 개념트는 돌무덤. 대리석으로 제작된 제대는 석관을 상징. 석관에서 부활하신 예수상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나타내는 33개 원형등. 감실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3개씩의 기둥과 합하여 7성사 의미



제대 위 원형등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상징하는 33개의 원형등



제대와 독서대



예수부활상 | 최인수 베드로 作 _ 제대가 상징하는 석관에서 부활하신 예수상



파티마 성모상 _ 여의도동성당의 주보성인으로 이탈리아에서 제작(2023. 5. 13.)

시기별 대상진 감실



초기 감실

1970년대 후반 대성전에서 사용했던 감실로 금속으로 제작
현재 성체조배실에 모심



두 번째 감실

두 번째 성전이 준공한 1984년부터 성전 보수·증축 전인 2009년
까지 사용한 감실



현재 감실



성체등
본당 설립 초기부터 사용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대성전 제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척추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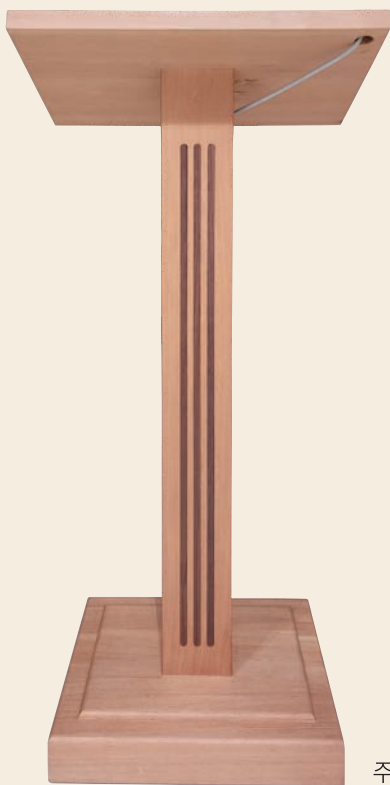


탁상용 십자가상

2009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 대성전 감실 위에 십자가상을 둬으로써 십자가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



성광 _ 성시간, 성체 강복 등 특별한 성체 공경 예절 때 사용



주례대 | 베네딕도회 왜관수도회 분도가구공예 作



주수상 | 베네딕도회 왜관수도회 분도가구공예 作



세례반(또는 세례대)
세례성사 때 사용하는 세례수를 담아
보관하는 저장 용기



부활 촛대
부활초를 올려놓기 위한 촛대



장례미사용 촛대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장례미사용 촛대



대성전 입구 문 _ 성전의 개념트는 돌무덤으로 무덤의 육중한 입구를 상징



우측에서 바라본 대성전 입구 문



대성전 입구 문의 빗장



대성전 벽 _ 예수님의 돌무덤을 표현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 공법(루돌프 콘크리트 공법) 사용
콘크리트로 마감 후 표면을 다시 조각하여 자연 암석과 같이 처리



정면에서 바라본 대성전 벽



측면에서 바라본 대성전 벽



우리들의 성모여 | 박옥순 미카엘라 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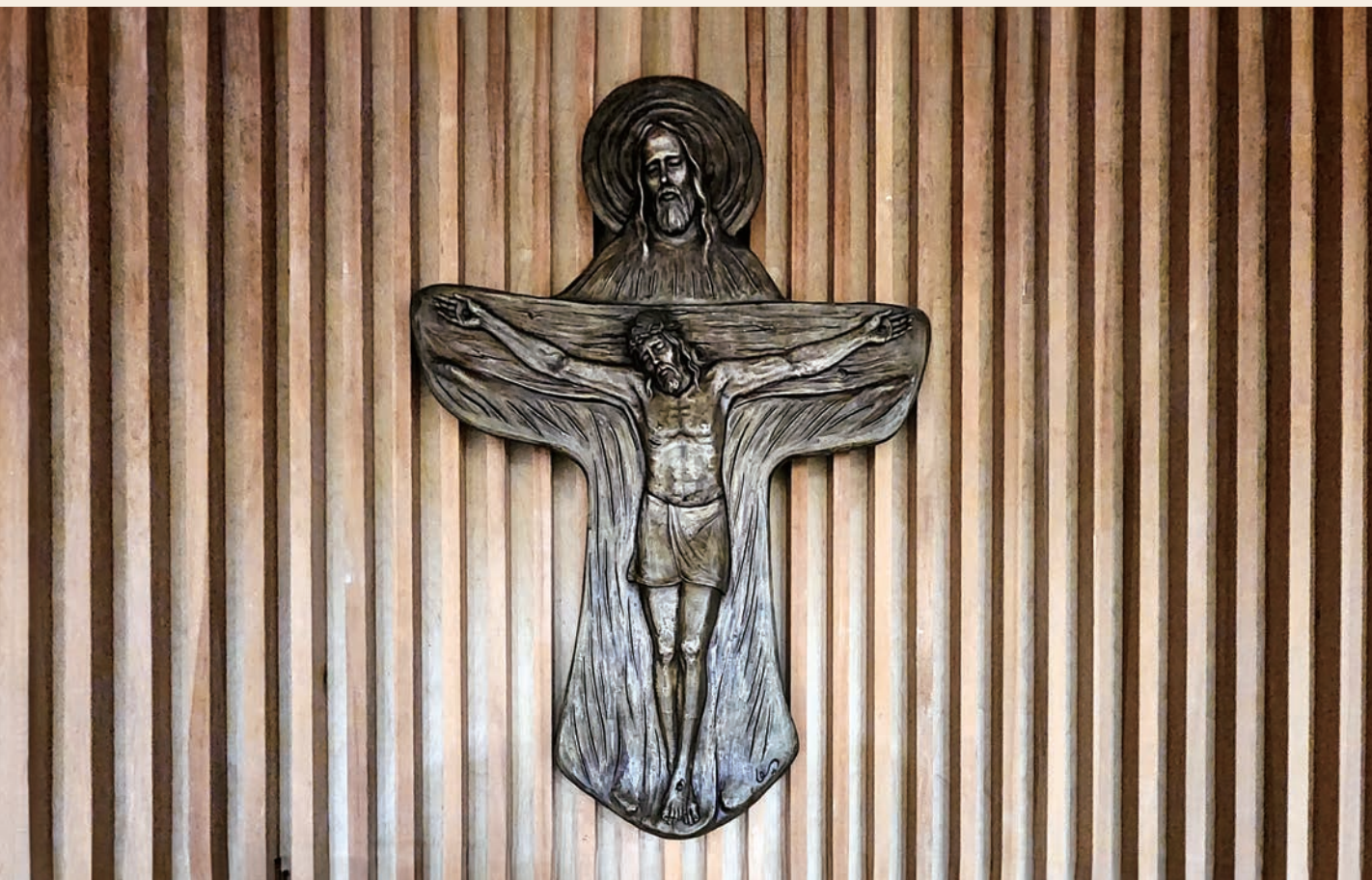
성모 마리아 | 박영성 안드레아 作
성모님을 딸의 모습으로 담아내며 투병 중인 딸의 회복을 기원



성수대



파티마 성모상



삼위일체 십자가상(지하 교육관) | 박옥순 미카엘라 作, 2014.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자 예수를 따뚝이 품으시는 성부 하느님
그 모습 속에서 성령과 함께인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표현



목각 성모상(교육관) _ 2020년 베트남 성지순례 중 현지에서 구입



목각 성요셉상(교육관) _ 2020년 베트남 성지순례 중 현지에서 구입

지하 교육관 십자가



제1처 사형선고 받으심



제2처 십자가를 지심



제3처 첫 번째 넘어지심



제4처 성모님을 만나심



제5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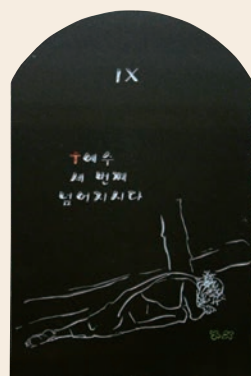
제6처 베로니카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심



제7처 두 번째 넘어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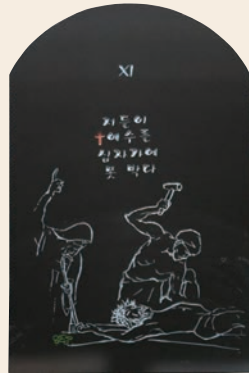
제8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제9처 세 번째 넘어지심



제10차 옷벗김 당하심



제11차 십자가에 못박히심



제12차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



제13차 십자가에서 내리심



제14차 무덤에 묻히심

박옥순 미카엘라 作, 2009.

우아한 아치형 선과 색으로 표현, 검은 돌에 음각하고 채색하여 토착화된 표현을 시도

흰색은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주황색은 '하느님께 바치는 사랑', 연두색은 '천국을 향한 희망'을 의미



성체조배실 십자가상



성체등

붉은 빛 성체등은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을 상징



예절용 십자가상



소성전 촛대



성모동산의 파티마 성모상 _ 본당 설립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대리석 성모상. 2009년 성전 보수·증축시 벽돌 아치로 새 단장, 2023년 “AVE MARIA GRATIA PLENA”(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문을 부착.



파티마 성모상 _ 여의도유치원 입구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제7편

본당 운영 현황

제1장 본당의 연혁

제2장 본당의 현황

1. 관할 구역
2. 구역 및 반 편성
3. 교세현황
4. 역대 교역자
5. 성소 계발 현황
6. 역대 사목회장
7. 본당 로고



1974-2024

제1장 본당의 연혁

1971.	12. 19.	첫 주일미사 봉헌(당시 성모병원 진료소/현 성당 위치)
1972.	3. 1.	서울대교구청에 공소 설립 요청
1973.	5. 18.	천주교 영등포교회 여의도공소 인가
	6. 1.	제1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이기석 비오)
	9. 23.	데레사회 설립
	10.	시범 아파트 19동 12호, 6동 26호를 임시 공소로 사용
1974.	9. 17.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교회로 본당 승격
	9. 17.	연령회 설립
	10. 1.	초대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주임신부 부임
1975.	3. 23.	첫 성전 신축 기공식(현 성모병원 옆)
1976.	1. 25.	첫 성전 축성식(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주례)
	3.	상아보탑 Pr. 출범(최초의 레지오)
	5. 22.	제5회 교구 성가 경연 대회 1등 수상
1977.	12. 23.	현 성당 부지 매입
1979.	2.	제2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남규백 프란치스코)
	6. 14.	제2대 김택암 베드로 주임신부 부임
	9. 23.	레지오 마리아 협의회(루드비코회) 발족

1980.	1. 1.	제3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이창복 놀벨도)
	3.	유치원 건물 개조 성당 증축
1980.	3.	구세주의 모후 Cu. 창단
	8. 15.	청년 성가대(CIGAL)설립
1981.	4. 29.	여의도 M.E. 설립
	6. 14.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제11지구 신앙대회
	10. 18.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전국 신앙대회(5.16 광장)
1982.	8.	새 성전 공사 중 성모병원으로 성당 임시 이전
	9. 26.	새 성전 신축 기공식(경갑룡 요셉 주교 주례)
1983.	1. 1.	제4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오용길 시몬)
	2. 18.	본당 출신 첫 사제 : 서유석 사도요한 사제수품
	6. 13.	김대건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
	10. 30.	주보 성인으로 파티마의 성모 선정
1984.	4. 26.	새 성전 축성 기념 음악회
	4. 28.	새 성전 축성식(김수환 추기경 주례)
	5. 6.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및 103위 시성 시복 대회(5.16광장)
	8. 17.	제3대 조순창 가시미로 주임신부 부임
1985.	1. 1.	제5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안광영 도마)
	4. 18.	푸른 군대 창단
1986.	1. 19.	전 신자 총회
	6. 24.	성모동산 준공(8.15. 축성식)

1987.	1.	제6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이관진 베드로)
	2. 6.	본당 출신 2대 사제 : 박원주 요셉 사제수품
1988.	1. 1.	제7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이관진 베드로)
	7. 1.	군중후원회 설립
	9. 9.	제4대 이계광 세례자요한 주임신부 부임
	10. 23.	구역 분할(7개 지구에서 12개 지구로 분할)
1989.	10. 4.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여의도광장)
1990.	1. 14.	여의도동 본당 장학회 발족
	11. 16.	제8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이관진 베드로)
	12. 4.	성모성심 Cu. 창단
1991.	6. 29.	이관진 사목회장 성 그레고리오 기사 대훈장 수상
1993.	11. 5.	제5대 김승훈 마티아 주임신부 부임
	11. 16.	제9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차희원 루카)
1994.	3.	사무실 전산화 실시
	9.	희망의 모후 Cu. 창단
1995.	2.	제10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오종석 발렌티노)
	3. 31.	여의도성당 20년사 발간
	7.	남성 성서 공부, 본당 보수 공사

1996.	5.	남성 구역 결성
	5. 7.	로사리오회 설립
	7. 5.	본당 출신 3대 사제 : 김선용 토마스아퀴나스 사제수품
	9.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참가
	10. 11.	제6대 김정직 디오니시오 주임신부 부임
1997.	1. 19.	제11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김봉기 안드레아)
	6. 7.	성소후원회 설립
	7. 5.	본당 출신 4대 사제 : 김환수 가비노 사제수품
1998.	10. 9.	제7대 김현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주임신부 부임
	11.	제12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유년희 아오스딩)
1999.	4.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가동
	5.	사제관 증축
	7. 5.	본당 출신 5대 사제 : 김주용 암브로시오 사제수품
	10. 1.	제8대 정광웅 요셉 주임신부 부임
	10.	제13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김용규 야고보)
2000.	2. 6.	본당 가정의 날 지정(매월 첫 일요일)
	10. 8.	본당의 날 체육대회
	10. 29.	대희년 평신도 대회 참가
	11.	제14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권영재 마르티노)
2001.	6. 14.	전 교우 피정

2002.	3. 8. 11.	여성 성서그룹공부 개강 본당 구역별 성가 경연대회
2003.	1. 1. 7. 4. 10. 26. 12. 13.	제15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최석한 루카) 본당 출신 6대 사제 : 김운종 안드레아 사제수품 전신자 배론 성지 순례 신앙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
2004.	6. 13. 7. 2. 9. 21. 11. 12. 25.	필리핀 독립 106주년 기념미사 본당 출신 7대 사제 : 이영제 요셉 사제수품 제9대 김충수 보니파시오 주임신부 부임 제16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한우현 사도요한) 여의도성당 30년사 발간
2005.	1. 6. 5. 10. 8. 27. 12. 9.	본당 30주년 기념 묵주기도 백만 단 바치기 - 1,341,530단 여의도동 본당 성령기도회 주관 은혜의 밤 실시 가두 선교 실시 본당 출신 8대 사제 : 이상훈 요셉 사제수품
2006.	4. 26. 9. 17. 11. 26.	잠비아 돕기 - 가수 인순이 사랑의 징검다리콘서트 본당 설립 32주년 본당의 날 한마당 체육대회 제17대 사목협의회 구성(총회장 : 조윤곤 요셉)
2007.	1. 21. 5. 13. 9. 9. 11. 20. 12. 14.	평화방송 교중미사 중계 관내 경로잔치 - 여의도동 주민대상 경로잔치 120명 전신자 열차성지순례 - 홍성성지(844명) 보수·증축 본 설계자 설명회 - 김영섭 교수 성령쇄신 대피정(강사 - 이태리 폴비오신부 외 세 분 수녀)

2008.	2. 17.	성전 보수 및 증축 기금 약정서 발급
	3. 28.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봉사
	7. 27.	공사 사업자 확정 - 주식회사 코렘시스
	8. 3.	여의도동성당 보수 및 증축을 위한 기공 미사
2008.	11. 16.	제18대 사목협의회 구성 - 전원 연임(사목회장 : 조운곤 요셉)
2009.	8. 10.	여의도동성당 간판 설치
	9. 1.	제10대 최선웅 야고보 주임신부 부임
	9. 19.	한국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행사 및 표석 제막식(여의도광장)
	11. 29.	여의도동성당 보수 및 증축 축성식
2010.	1. 27.	성당 웹사이트 개설(https://cafe.daum.net/youidocatholic)
	11. 14.	제19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유희진 이냐시오)
2011.	3. 14.	성당 3층 성가대석 및 좌우 바닥 타일공사
	5. 24.	터키 성지순례
	6. 17.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참석
2012.	9. 20.	본당 설립 38주년 본당의 날 행사
	12. 2.	제20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최명주 암브로시오)
2013.	3. 16.	영화 상영 - 사랑의 침묵
	12. 1.	본당 설립 39주년 기념 신부님배 바둑대회
2014.	8. 16.	124위 시복미사(프란치스코 교황 주례, 광화문광장)
	9. 2.	제11대 구본영 바오로 주임신부 부임
	11. 1.	본당 출신 9대 사제 : 이제훈 아오스딩 사제수품

2015.	8. 22.	지역미사 봉헌(5주간)
	11.	제21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김영수 안드레아)
2016.	1. 11.	복사단 나가사키 성지순례
	6. 12.	아나바다 행사
	9. 3.	전신자 열차성지순례 - 나바위성지
2017.	2. 3.	본당 출신 10대 사제 : 이민구 프란치스코 사제수품
	6. 3.	가족과 함께 여의도 돌레길 걷기
	9. 16.	본당의 날 행사 작은음악회
	9. 17.	제22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이병지 프란치스코)
2018.	2. 1.	본당 출신 11대 사제 : 김문강 크리스토폴 사제수품
	2. 4.	새사제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 첫미사
	8. 28.	제12대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주임신부 부임
	9. 15.	본당의날 44주년 기념 감사와 찬미 음악회
2019.	6. 28.	여의도동성당 사제관 및 수녀원 보수공사
	7. 3.	본당 출신 12대 사제 : 김성현 라파엘 사제수품
	7. 28.	여의도동성당 환경개선공사
	9.	제23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이병지 프란치스코)
2020.	1. 3.	대성전 오르간 교체
	2.	성모상, 요셉상 설치
	9. 17.	성전 냉난방기 교체공사
2021.	11.	제24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김대수 미카엘)

2022.	8. 30.	제13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주임신부 부임
	12. 11.	여의도동성당 머릿돌 제막식
2023.	1. 26.	청년단체 베트남 성지순례
	2. 14.	김여옥 프란치스코 보좌신부 부임
2023.	5. 21.	사랑의 바자회
	6. 12.	페루 공소 지원 후원금 전달
	9. 10.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개막미사
	10. 1.	제25대 사목협의회 구성(사목회장 : 정옥선 안젤라)
	12. 12.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2024.	1. 1.	50주년 기념 주제 성구선정
	2. 1.	여의도동성당 본당가 제정
	2. 6.	대성전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6. 9.	카메룬 바피아교구 다씨 유광 임마누엘 주교 초청 미사
	9. 1.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
	9. 24.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10. 12.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전신자 성지순례(해미국제성지)
	10. 27.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초청미사
	11. 24.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폐막미사
2025.	2. 18.	김여옥 프란치스코 부주임신부 이임
	2. 18.	하상헌 윤호요셉 부주임신부 부임
	5.	여의도동성당 50년사 편찬

제2장 본당의 현황

1. 관할 구역

본당명 :	천주교 여의도동성당
관할 구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설립 :	1974년 9월 17일
성당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57
지역 및 구역 :	서서울지역 15지구
신자수 / 세대수 :	7,221명 / 2,828세대(2024. 12. 기준)
사무실 :	사무장 박배규 베드로, 사무원 조승현 마리아나



2. 구역 및 빈 편상

단위 : 명

구역	반	세대수	교우수		계	지역
			남자	여자		
1구역	5	149	150	210	360	시범아파트 1~9동, 시범상가
2구역	5	305	345	456	801	시범아파트 10~24동
3구역	3	141	138	207	345	라이프콤비, 리버타워, 리첸시아
4구역	3	95	121	143	264	삼익아파트
5구역	4	88	101	148	249	은하아파트
6구역	3	126	131	183	314	진주아파트, 트럼프 1차
7구역	3	85	97	135	232	화랑아파트, 장미아파트
8구역	4	130	136	217	353	대교아파트
9구역	4	148	176	237	413	한양아파트
10구역	4	85	101	130	231	수정아파트, 브라이트
11구역	5	193	210	264	474	삼부아파트
12구역	6	149	156	236	392	서울, 공작, 목화아파트
13구역	3	135	117	159	276	진미파라곤, 초원, 더샵아일랜드
14구역	3	191	230	281	511	엠파이어, 아이비, 힐스테이트
15구역	6	173	188	254	442	광장아파트, 파크센터
16구역	1	137	146	180	326	미성아파트
17구역	6	173	215	290	505	자이아파트, 트럼프2차
18구역	8	325	338	395	733	구역 외 지역, 성모병원
합계		2,828	3,096	4,125	7,221	

* 2024. 12. 기준

3. 교세현황

(1) 관할구역 주민수 및 교우수

단위 : 명

연도	주민수	세대수	신자수	비율(%)
2024	33,775	2,828	7,221	21.4

(2) 성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세 레		견진	혼인	영성체	봉성체	고백	병자	장례
		유아	어른							
2023년	남	17	13	23	8	30	39	2,143	14	28
	여	20	24	37			26		7	19
	계	37	37	60	8	30	65	2,143	21	47
2024년	남	10	25	22	16	13	32	955	4	9
	여	11	40	40			34		5	12
	계	21	65	62	16	13	64	955	9	21

(3) 주일학교 현황(2023년)

단위 : 명

구분	학생수	교사수	등록수	비율(%)
초등부	131	10	273	48
중등부	37	9	171	22
고등부	5	0	155	0.3

4. 역대 교역자

(1) 역대 주임 신부

대별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소임
1대	최용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1974. 10. 1. ~ 1979. 6. 14.	2015 선종
2대	김택암	베드로	1979. 6. 14. ~ 1984. 8. 17.	2021 선종
3대	조순창	가시미로	1984. 8. 17. ~ 1988. 9. 9.	2010 선종
4대	이계광	세례자요한	1988. 9. 9. ~ 1993. 11. 5.	2011 선종
5대	김승훈	마티아	1993. 11. 5. ~ 1996. 10. 11.	2003 선종
6대	김정직	디오니시오	1996. 10. 11. ~ 1998. 10. 9.	2016 선종
7대	김헌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1998. 10. 9. ~ 1999. 10. 1.	원로사목
8대	정광웅	요셉	1999. 10. 1. ~ 2004. 9. 21.	원로사목
9대	김충수	보니파시오	2004. 9. 21. ~ 2009. 9. 1.	원로사목
10대	최선웅	야고보	2009. 9. 1. ~ 2014. 9. 2.	2020 선종
11대	구본영	바오로	2014. 9. 2. ~ 2018. 8. 28.	이태원 주임신부
12대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2018. 8. 28. ~ 2022. 8. 30.	제11강남지구장
13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2022. 8. 30. ~ 현재	여의도동 주임신부

(2) 역대 보좌 신부

대별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소임
1대	박향오	마르띠노	1985. 8. 30. ~ 1986. 8. 29.	원로사목
2대	김경모	야고보	1987. 2. 20. ~ 1989. 2. 17.	일산 주임신부
3대	양형석	루카	1989. 2. 17. ~ 1990. 2. 23.	병원사목위원회 요양사목
4대	손명중	요한	1990. 2. 23. ~ 1991. 9. 5.	
5대	유병만	가브리엘	1991. 9. 5. ~ 1993. 11. 5.	원로사목

대별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현소임
6대	유도마스	토마스아퀴나스	1993. 11. 5. ~ 1994. 9. 9.	신사베드로 주임신부
7대	이정훈	플레멘스	1994. 12. 2. ~ 1995. 12. 1.	의정부교구 총대리
8대	한상호	그레고리오	1994. 12. 2. ~ 1995. 3. 17.	특수사목
9대	한철호	라이문도	1995. 12. 1. ~ 1996. 11. 29.	상설고해담당
10대	이재경	세례자요한	1996. 11. 29. ~ 1998. 11. 27.	제18양천지구장
11대	황영욱	루카	1997. 11. 28. ~ 1999. 12. 3.	문정동 주임신부
12대	김종한	베네딕도	1998. 11. 27. ~ 2001. 1. 9.	
13대	황 현	미카엘	1999. 12. 3. ~ 2001. 12. 4.	본당사목
14대	박성욱	엘리아	2001. 1. 9. ~ 2002. 12. 3.	원당 주임신부
15대	이응제	베드로	2001. 12. 4. ~ 2002. 12. 3.	사회사목국장
16대	유환민	마르첼리노	2002. 12. 3. ~ 2003. 12. 5.	문정2동 주임신부
17대	최형규	미카엘	2002. 12. 3. ~ 2004. 9. 21.	안동교구 청송 주임신부
18대	김영철	시메온	2004. 9. 21. ~ 2006. 11. 21.	중앙동 주임신부
19대	김진규	다니엘	2006. 11. 21. ~ 2008. 12. 9.	선종(2013. 12. 20.)
20대	김진호	프란치스코하비에르	2008. 12. 9. ~ 2011. 2. 22.	주교좌 기도사제
21대	김은기	바오로	2011. 2. 22. ~ 2013. 2. 12.	성모병원 영성부원장
22대	김필중	세례자요한	2013. 2. 12. ~ 2015. 2. 17.	해외선교
23대	김성민	시메온	2015. 2. 17. ~ 2016. 2. 16.	성서못자리 담당
24대	한정화	레오	2016. 2. 16. ~ 2017. 10. 13.	공동체 기도사제
25대	성지운	이나시오	2018. 2. 13. ~ 2020. 2. 18.	미아동 주임신부
26대	최성한	베드로	2020. 2. 18. ~ 2023. 2. 14.	양천 부주임신부
27대	김여욱	프란치스코	2023. 2. 14. ~ 2025. 2. 18.	상계2동 부주임신부
28대	하상헌	윤호요셉	2025. 2. 18. ~ 현재	여의도동 부주임신부

(3) 역대 수도자

대별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	분원장	서안례	세바스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74. 3. 8. ~ 1977. 1. 7.
2	분원장	조애현	수산나	1977. 9. 1. ~ 1978. 3. 6.
3	분원장	전순자	발바라	1978. 1. 6. ~ 1982. 2. 8.
4	분원장	조규명	마리아	1982. 2. 9. ~ 1983. 1. 6.
5	분원장	최영희	로사	1983. 1. 6. ~ 1984. 1. 10.
6	분원장	심진순	가오로	1984. 1. 10. ~ 1986. 2. 11.
7	분원장	함희자	베드로	1986. 2. 11. ~ 1989. 2. 17.
8	분원장	조애현	수산나	1989. 2. 19. ~ 1990. 2. 16.
9	분원장	윤태순	바오로	1990. 2. 17. ~ 1993. 2. 17.
10	분원장	김정자	바오로	1993. 2. 17. ~ 1996. 2. 21.
11	분원장	정영자	아가다	1996. 2. 21. ~ 1999. 2. 5.
12	분원장	송복기	안나	1999. 2. 5. ~ 2003. 1. 28.
13	분원장	김정자	페르페투아	2003. 1. 28. ~ 2006. 2. 8.
14	분원장	박정자	아가다	2006. 2. 8. ~ 2007. 2. 5.
15	분원장	함영자	막달레나	2007. 2. 5. ~ 2010. 1. 27.
16	분원장	인재영	보나	2010. 1. 27. ~ 2012. 2. 3.
17	분원장	임춘자	아네스	2012. 2. 3. ~ 2015. 1. 30.
18	분원장	임성심	세실리아	2015. 1. 30. ~ 2017. 12. 15.
19	분원장	김은영	아가타	2017. 12. 15. ~ 2021. 1. 28.
20	분원장	이현옥	마리아	2021. 1. 28. ~ 2023. 2. 1.
21	분원장	김양길	마리아막달레나	2023. 2. 1 ~ 현재

대별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	전교	정진옥	아네스릿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74. 3. 8. ~ 1977. 1. 7.
2	전교	전두련	아가다	1977. 9. 1. ~ 1978. 2. 6.

대별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3	전교	정수호	요한	1978. 2. 6. ~ 1980. 12. 8.
4	전교	이영순	마리안나	1980. 1. 6. ~ 1982. 1. 8.
5	전교	최영희	로사	1982. 1. 8. ~ 1983. 1. 6.
6	전교	김미은	울리아	1983. 1. 6. ~ 1985. 2. 7.
7	전교	조옥숙	로사리아	1983. 9. 12. ~ 1986. 2. 1.
8	전교	김주희	비비나	1985. 2. 1. ~ 1987. 2. 10.
9	전교	정명희	안나	1986. 2. 10. ~ 1987. 2. 10.
10	전교	김수자	글라라	1987. 2. 10. ~ 1989. 2. 17.
11	전교	이광순	루시아	1987. 2. 17. ~ 1990. 2. 23.
12	전교	엄덕선	울리엣타	1989. 2. 17. ~ 1991. 2. 19.
13	전교	고순희	제노베파	1990. 2. 19. ~ 1992. 2. 17.
14	전교	이희숙	마리안나	1991. 2. 19. ~ 1993. 2. 13.
15	전교	정락진	요셉피나	1992. 2. 17. ~ 1994. 2. 9.
16	전교	구선옥	젬마	1993. 2. 13. ~ 1996. 2. 7.
17	전교	김영옥	요셉피나	1994. 2. 9. ~ 1996. 2. 7.
18	전교	최영복	아가다	1996. 2. 7. ~ 1999. 2. 5.
19	전교	장미정	세실리아	1996. 2. 7. ~ 1998. 2. 14.
20	전교	장혜경	가브리엘라	1998. 2. 14. ~ 2000. 2. 2.
21	전교	고미옥	베로니카	1999. 2. 5. ~ 2000. 2. 2.
22	전교	장점순	젬마	2000. 2. 2. ~ 2001. 2. 8.
23	전교	금필화	아네스	2000. 2. 2 ~ 2002. 2. 7.
24	전교	오순복	아나스타시아	2002. 2. 7. ~ 2005. 2. 5.
25	전교	김복희	프란치스카	2002. 2. 22. ~ 2005. 2. 4.
26	전교	김경진	마리아막달레나	2005. 2. 20. ~ 2007. 2. 16.
27	전교	고성아	아가다	2005. 2. 5. ~ 2007. 2. 4.
28	전교	이선영	안젤라	2007. 2. 4. ~ 2010. 1. 27.
29	전교	박미영	유리안나	2007. 2. 16. ~ 2010. 2. 3.
30	전교	김유분	바울리나	2010. 1. 27. ~ 2011. 1. 28.

대별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31	전교	전윤미	베로니카	2011. 1. 28. ~ 2013. 1. 31.
32	전교	차남림	엘리사벳	2013. 1. 31. ~ 2014. 2. 3.
33	전교	김경순	가타리나	2014. 2. 3. ~ 2017. 2. 7.
34	전교	정누리	데레사	2017. 2. 7. ~ 2019. 1. 30.
35	전교	이예리	세노리나	2019. 1. 30. ~ 2021. 1. 28.
36	전교	김소연	엘리사	2021. 1. 28. ~ 2022. 1. 27.
37	전교	장석자	발렌티나	2022. 1. 27. ~ 2023. 2. 1.
38	전교	이인순	젼마	2023. 2. 1. ~ 현재

대별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	유치원장	남춘자	베드로	1978. 2. ~ 1979. 2.
2	유치원장	윤옥순	발바라	1979. 2. ~ 1981. 2.
3	유치원장	양인순	아오스딩	1981. 2. ~ 1983. 2.
4	유치원장	박현숙	막달레나	1984. 2. ~ 1985. 8.
5	유치원장	최경옥	요한	1986. 2. ~ 1989. 2.
6	유치원장	김연옥	아가다	1989. 2. ~ 1992. 2.
7	유치원장	남춘자	베드로	1992. 2. ~ 1995. 2.
8	유치원장	심성자	카타리나	1995. 2. ~ 1998. 2.
9	유치원장	강정숙	그라시아	1998. 2. ~ 2002. 2.
10	유치원장	김복희	방지거	2002. 2. ~ 2005. 2.
11	유치원장	김경진	막달레나	2005. 2. ~ 2007. 2.
12	유치원장	박미영	울리아나	2007. 2. ~ 2010. 1.
13	유치원장	이서경	아가다	2010. 1. ~ 2013. 8.
14	유치원장	유재선	보나	2013. 8. ~ 2016. 1.
15	유치원장	이수경	세라피나	2016. 1. ~ 2019. 1.
16	유치원장	백주영	실비아	2019. 1. ~ 2022. 1.
17	유치원장	정윤경	마리아	2022. 1. ~ 2024. 1.
18	유치원장	홍성희	아나톨리아	2024. 2. ~ 현재

5. 성소 개발 현황

(1) 본당 출신 신부

대별	성명	세례명	서품일	현 소임지
1대	서유석	사도요한	1983. 1. 18.	선종(2023. 4. 20.)
2대	박원주	요셉	1987. 2. 6.	일원동 주임신부
3대	김선용	토마스 아퀴나스	1996. 7. 5.	안식년
4대	김환수	가비노	1997. 7. 5.	반포1동 주임신부
5대	김주용	암브로시오	1999. 7. 5.	선종(2019. 8. 23.)
6대	김운종	안드레아	2003. 7. 4.	안식년
7대	이영제	요셉	2004. 7. 2.	WYD 사무국 국장
8대	이상훈	요셉	2005. 12. 9.	호주 퍼스 한인 천주교회
9대	이제훈	아오스딩	2014. 11. 1.	미얀마 선교지역
10대	이민구	프란치스코	2017. 2. 3.	등촌3동 부주임신부
11대	김문강	크리스토폴	2018. 2. 1.	군중교구
12대	김성현	라파엘	2019. 7. 3.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보좌신부

(2) 본당 출신 수도자

대별	성명	세례명	입회일	소속
1대	최수영	말가리다	1986.	스페인 뿌라센시아 여자 갈멜 수녀원
2대	김현주	안나	1988. 3. 19.	한국순교복자수녀회
3대	이강익	사도요한	2003. 2. 4.	예수회
4대	박윤신	마리안드레	2025. 3. 19.(서원)	프랑스 아르장땅의 성 베네딕토 수녀회

6. 역대 시목회장

대별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대	故 이기석	비오	1973. 6. ~ 1979. 2.
2대	故 남규백	프란치스코	1979. 2. ~ 1980. 1.
3대	故 이창복	놀벨도	1980. 1. ~ 1983. 1.
4대	故 오용길	시몬	1983. 1. ~ 1985. 1.
5대	故 안광영	도마	1985. 1. ~ 1987. 1.
6,7,8대	故 이관진	베드로	1987. 1. ~ 1993. 11.
9대	故 차희원	루카	1993. 11. ~ 1995. 2.
10대	故 오종석	발렌티노	1995. 2. ~ 1997. 1.
11대	故 김봉기	안드레아	1997. 1. ~ 1998. 11.
12대	유년희	아오스딩	1998. 11. ~ 1999. 8.
13대	김용규	야고보	1999. 8. ~ 2000. 12.
14대	권영재	마르티노	2000. 1. ~ 2002. 11.
15대	최석한	루카	2002. 2. ~ 2004. 10.
16대	故 한우현	사도요한	2004. 11. ~ 2006. 11.
17,18대	조운곤	요셉	2006. 12. ~ 2010. 11.
19대	유희진	이나시오	2010. 11. ~ 2013. 11.
20대	최명주	암브로시오	2013. 11. ~ 2016. 11.
21대	김영수	안드레아	2015. 11. ~ 2017. 11.
22,23대	이병지	프란치스코	2017. 11. ~ 2021. 11.
24대	김대수	미카엘	2021. 11. ~ 2023. 10.
25대	정옥선	안젤라	2023. 10.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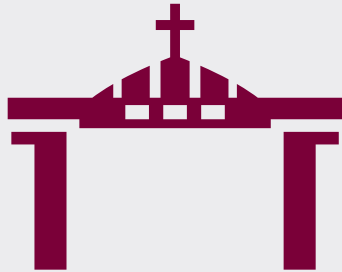
7. 본당 로고

삼위일체와 성체성사의 신앙을 상징



전체적 의미와 해설

로고는 여의도동성당의 건축적 아름다움과 신학적 사상을 결합하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중심으로 성체성사를 통한 여의도동성당 공동체의 신앙과 성당 건축의 영성을 상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 첨탑과 십자가 그리고 양쪽 기둥

뿔쭉한 첨탑 위의 십자가는 여의도동성당의 고유한 건축양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한다. 양 기둥은 본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며,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상징한다.



+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제대

중심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제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의 신앙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신앙의 중심인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이신 성체가 중앙에 자리한 것은 성체성사가 공동체 신앙 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성체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나타내며, 공동체가 이 성사를 통해 하나로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찬위원 후기

여의도동성당 공동체의 뿌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정직하고 진실 되게 기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이 비록 부족함은 있으나, 우리 본당의 지난 50년 세월을 따뜻하게 품은 한 권의 기록으로 남아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윤곤 요셉(위원장)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만들듯, 역대 신부님들과 선배 교우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이룩하신 신앙공동체를 보면서 감동과 환희를 느낍니다. 신부님의 따뜻한 격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 덕분에 역사 기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같이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설주 멜라니아(부위원장)

서로 얼굴만 쳐다보던 시간을 보낸 후, 우리 교우들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50년사를 만들자는 다짐과 소망으로 편찬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둘 이상 모이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하셔서 가능했습니다.

신시란 아녜스(간사)

교우님들의 협조와 편찬위원들의 노력, 열정으로 50년사를 완성하여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 날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위원들 간에 쌓인 동료애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정원 소화데레사(위원)

오로지 하느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2년여 기간 50년의 은혜로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리며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감싸주며 함께해 온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건영 올리아(위원)

본당 공동체를 이끄시느라 많은 고뇌 중에 계셨을 신부님들의 발자취를 정리할 때는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선종하신 신부님들을 기억하며 성지를 찾아 기도드리던 시간을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김진희 세레나(위원)

걸어온 시간을 되짚으며 퍼즐을 맞추 듯 여의도동 신앙 공동체의 여정을 새롭게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차 검증하고 기록을 담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순주 요안나(위원)

여의도동 교우들이 닦아온 50년 역사의 기록을 더듬으면서 그 안의 사랑, 헌신과 친교 그리고 복음화를 향한 활기찬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50년사가 다음 편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편찬위원들의 인내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아영 안나(위원)

성당 앞마당을 뛰어다니던 유치원생이 어느덧 편집위원이 되어 지난 50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찬위원님, 신부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여의도동성당 50년사편찬위원회

참고문헌

- 천주교여의도교회(1995), 『여의도성당 20년사』
- 천주교여의도교회(2004), 『여의도성당 30년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22), 『한국천주교 성지순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17), 『천주교 용어집』 개정증보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15), 『「자비의 얼굴」 (프란치스코 교황 칙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1), 『본당사편찬지침』
- 가톨릭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 <https://m.catholictimes.org>
- 가톨릭평화신문, <https://news.cpbk.co.kr>
- 김충수 신부 웹사이트 <http://choongsoo.kr>
- 서울역사박물관(2021), 언론보도 “여의도 100년사 한눈에”展
-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생활문화자료, <https://museum.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보실(1968), “여의도 윤중제공사현장”, 서울시정사진, <https://archives.seoul.go.kr>
- 영등포구청, <https://www.ydp.go.kr>
- 영상역사관(1989),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 영상역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https://www.ehistory.go.kr>
- 코렘시스(주), <http://coremsys.com>
- 홍주일보, <http://www.hjn24.com>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 <https://www.hsnews.co.kr>

여의도동성당 50년사

초판인쇄 2025년 6월 4일

발행 2025년 6월 20일

펴낸이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

펴낸곳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의도동성당

역은이 여의도동성당 50년사편찬위원회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57

홈페이지 <http://ycatholic.or.kr/>

성물촬영 김영섭 시몬, 조향순 소피아

하상출판사

주소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210번길 21-1(이목동)

등록 제10-51-96-1-3호

전화 031-243-1880

이메일 hasang@casuwon.or.kr

홈페이지 <https://hasang.casuwon.or.kr>

디자인 표지·홍진주 / 본문·서은지, 지은자, 김지영, 손자영

비매품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